

大概*

風勢*

電報*

歸郷*

路毒*

困難*

別緣故*

食堂、珈琲*

133 대키맛찬가지나, 비멀미하는사람은, 혼이,

류로로갑디다

134 오늘은, 풍계가적으니까, 비가흔들니지안아

쫓켓습니다

135 우리집에, 이년보를노아, 주십시오

딕을, 떠나오신지가, 여러날됩니까

137 한스므날됩니다

138 그러면, 딕소식이, 미우궁급하겠습니다

이삼일후면, 귀향하겠습니다

140 로독이나, 나지안앗습니까

데일음식이, 입에맛지안아시, 곤난하얏습니다

142 되에도, 별연고는, 업섯습니까

143 고맙습니다

144 이딩거장식당에, 올너가시, 가비차나, 한그

릇잡수시지요

145 시간이느긋스니, 고한두시지요

大概同じころですが、船に酔ふ人は、大抵陸を
行く様です

今日は風が少いから、船が揺れなくてようござ
いませう

私の宅へ、この電報を打つて下さい
お宅を出られて、永くおなりですか

彼れ是れ二十日許りになります

それでは、お宅の消息が、嚙ぞ案せられませう

二三日後には歸郷致します

旅疲は出ませんでしたか(お疲でございませう)

第一、食物が口に合はなくて、困りました

お宅にも、別に變つたところは、ありませんでし
たか

有難たうございます

この停車場の食堂に上がつて、珈琲でも一杯お
上りなさい

時間が遅いからおよしなさい

便*

146 이 켜릴, 마중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47 오늘은, 편히 주십시오

第十二節 散步・遠足

日氣、和暢

1 요사이는, 일기가, 미우화창합니다

空日、消暢

2 오늘은, 공일이니, 어딴, 소창이나, 하러가

시지아니 하렵닛가

金*

3 가고말구요, 그러지안어도, 김상이오시거든

놀너나가라고, 이썬가지, 기다리고잇습니

다

景致

4 어딴, 경치조흔곳이, 잇습닛가

5 잇고말구요, 남산공원이며, 한양공원은, 로

南山公園、漢陽公園、老松、鬱々蒼々

朝鮮神社、京城神社、長安萬戶、櫛比

송이, 을을창창하게, 가득들어 서잇스며, 그 사이로, 사구라잇쳐웃는듯이, 내여다보이며
도원신궁과, 경성신사에도, 참비할수잇슬련
아니라, 북쪽을보면, 장안만호가, 즐비하게

こんなに、お出迎へ下さいして、有難たうござ
います

今日はゆつくりお休みなさい

此頃は、天氣が、大層よう御座います

今日は日曜ですから、何處か、散歩にでもお出

でになりませんか

行きますとも、それでなくとも、金さんが來ら

れたら、出掛けやうこ、今まで待つて居た所で

す

何處か景色の好い處がありますか

ありますとも、南山公園や漢陽公園は、古い松

が鬱蒼と生ひ茂つて、一杯立つて居るし、その

間に、櫻の花が笑ふやうに窺いて居るし、朝鮮
神宮や京城神社にも、參拜するここが出来る許
りでなく、北の方を見るこ、長安の(首都のこと)

*三角山連峰
*漢江

보이며、삼각산련봉도 보이고、또남쪽을보면
한강이、굽의굽의흐르는것이보이니、참、볼
만합니다

*求景、牛耳洞
櫻花、桃洞、
桃花

6 矢구경으로조키는、우이동의잉화와、도동의
도화가、가장조습니다

*日前、李炯植
景概

7 남산에는、일전에、리형식군과、갓치올너가
하로동안놀며、삿삿치、경기를、다、구경하
였습니다

8 아、그러섯습닛가、그러면、도동복송아섯
은、일즉된다하여도、지금겨우、봉오리가、
성질낙말낙하엿슬터이니、오늘은、우리、우
이동으로가서、사구라섯을구경하십시다

*加五里

9 우이동은、여괴쳐、멋리가됩니다

*鍾路、二十里

*三十里、假量

10 가오리란데도、잉화가、만히잇습니다、이가
오리는、경청종로에서、이십리고、우이동은
삼십리가량이나됩니다

萬戶(家屋人口の多いこと)が軒を並べて居るのが
見え、三角山の連峯も見えます、又南の方を見
れば、漢江が曲がりくねつて、流れるのが見え
て、誠に見事です

花見によい所は、牛耳洞の櫻と、桃洞の桃の花
が最もよいです

南山には、この間李炯植君と一緒に登つて、一
日中遊びながら、隅から隅まで、景色を皆探り
ました

あ、そうでしたか、それでは桃洞の桃の花は、
早く咲く云つても、今漸く蕾が出たか出ない
位いだらうと思ひますから、今日、一緒に牛耳
洞へ行つて、櫻の花を見ませう

牛耳洞は此處から何里位ですか

加五里と云ふ所にも、櫻の花が澤山あります、

此の加五里は、京城の鐘路から二里で、牛耳洞
は三里あります

時間*

萬若*

自動車*

權書房*

三千坪、軍士*

行軍操練*

朝鮮各地*

11 그러면、여서가봅시다

12 시간이、느긋지만、우이동하지、가보시는것이、엇더합닛가

13 그:죇습니다、만약、시간이늦거든、을:꼭에는:즈동차를라고오십시다

14 권:처방도、대리고、가시지요

15 그러면、볼니오지요

16 이:들니름을、무엇이라고합닛가

17 이것은、삼:천평이라하는데、네:천에、군:수들이、형:군조련하든、곳이올시다

18 이내는、왜、큰내인데、엇지、물이:업습닛가

19 釣:천각디의내는、다、이러합니다、키:괴키산을보십시요、어:되、나무가잇습닛가、이:런외:닥으로、장:마싸나、물이잇습니다

20 내:디와、달:습니다그려

21 쉼:터에、을:나가서、쉬:다갑시다

それでは速く行つて見ませう

時間が遅くなつたけれども、牛耳洞まで行つて見てはごうですか

それがい、でせう、若し時間が遅ければ、歸りには、自動車に乗つて歸りませう

權君も連れて行かうではありませんか

それでは呼んで來ませう

この野原の名は、何と云ひますか

これは三千坪と謂ひますが、昔軍人達が、行軍の教練をやつた所であります

この川は、餘程大きい川だが、何故水がないのですか

朝鮮各地の川は皆こういふ風です、向ふの山を御覽なさい、何處に木がありますか、こういふ譯で、梅雨の時だけ水があるので

内地とは違ひますね

あの丘に上つて、休んで行きませう

茶* 眼界*

22 목이 말느니, 차나 한잔 먹읍시다

23 여기도 안계가, 좃습니다 그러

24 죄괴 좁흔 산은, 무슨 산이라 하오

25 그것이, 삼각산중, 데일 좁흔 봉오린대, 빙운

데라합니다

26 고만 쉬고, 어서 가봅시다

27 안 켜다 이려나 빗가, 다리가, 썩 켜지 근합니다

그러

28 찻, 귀골이 십니다 그러, 한, 이 십리 도 못 거러

시, 그런 말 삼을 하 십 빗가

29 아니 올시다, 학생 시대에는, 만히 거러 보았습

니다 만은, 근 리에는, 도 모지, 거러 보지 못

하엿습니다

30 죄 동구를 지나 가면, 우이동이 올시다

31 아! 그러 합 빗가

32 죄 괴 보이는 것이, 다사 구라 싹칩니다 구려

33 대단히, 곰게 피엿소 구려, 붉은 구름이, 셔오

洞* 洞口

貴* 骨

白* 雲臺

咽喉が渴いたから、お茶でも一杯飲みませう
此處も見はらしがよいですね
向ふの高い山は、何と云ふ山ですか
あれは、三角山の中で一番高い峯ですが、白雲
臺と謂ひます

さあ早く行つて見ませう

休んでから起き上がるこ、脚が重くて痛いです

ね

ほんこにお弱いですね、まだ二里も歩かないの

に、そんなことを仰言るのですか

いや學生時代には、澤山歩いて見ましたけれど

も、近來は一向歩いて見たこがないのです

あの村の前を通つて行くこ牛耳洞です

あゝそうですか

向ふに見えるのが、皆櫻の花ですね

大變奇麗に咲きましたね、紅い雲が柵引いて居

國花*

點心*

近處*

華溪寺*

大刹*

村落*

杏花村*

富者*

洞内*

場*

田畚*

르는것 같습니다

34 내디에는, 잉화를국화라하는데, 그것이맛당
합니다

35 적, 사구라꽃나무밧헤가쳐, *
*
36 이근처에, 철이잇습닛가

37 여긔서, 한, 심리가량이나되는데, 화계사라
하는철이잇습니다

38 그러면, 그리로가쳐, 놀다가, 도라갑시다

39 이철도, *
*
40 적긔, 보이는*
*
41 그마을은, *
*
42 이알동내는, *
*
43 그것은장터올시다

자가, 만히삽니다

42 이알동내는, *
*
43 그것은장터올시다

44 이뒤에는, *
*
45 이뒤에는, *
*
46 이뒤에는, *
*
47 이뒤에는, *
*
48 이뒤에는, *
*
49 이뒤에는, *
*
50 이뒤에는, *
*
51 이뒤에는, *
*
52 이뒤에는, *
*
53 이뒤에는, *
*
54 이뒤에는, *
*
55 이뒤에는, *
*
56 이뒤에는, *
*
57 이뒤에는, *
*
58 이뒤에는, *
*
59 이뒤에는, *
*
60 이뒤에는, *
*
61 이뒤에는, *
*
62 이뒤에는, *
*
63 이뒤에는, *
*
64 이뒤에는, *
*
65 이뒤에는, *
*
66 이뒤에는, *
*
67 이뒤에는, *
*
68 이뒤에는, *
*
69 이뒤에는, *
*
70 이뒤에는, *
*
71 이뒤에는, *
*
72 이뒤에는, *
*
73 이뒤에는, *
*
74 이뒤에는, *
*
75 이뒤에는, *
*
76 이뒤에는, *
*
77 이뒤에는, *
*
78 이뒤에는, *
*
79 이뒤에는, *
*
80 이뒤에는, *
*
81 이뒤에는, *
*
82 이뒤에는, *
*
83 이뒤에는, *
*
84 이뒤에는, *
*
85 이뒤에는, *
*
86 이뒤에는, *
*
87 이뒤에는, *
*
88 이뒤에는, *
*
89 이뒤에는, *
*
90 이뒤에는, *
*
91 이뒤에는, *
*
92 이뒤에는, *
*
93 이뒤에는, *
*
94 이뒤에는, *
*
95 이뒤에는, *
*
96 이뒤에는, *
*
97 이뒤에는, *
*
98 이뒤에는, *
*
99 이뒤에는, *
*
100 이뒤에는, *
*

44 이뒤에는, *
*
45 이뒤에는, *
*
46 이뒤에는, *
*
47 이뒤에는, *
*
48 이뒤에는, *
*
49 이뒤에는, *
*
50 이뒤에는, *
*
51 이뒤에는, *
*
52 이뒤에는, *
*
53 이뒤에는, *
*
54 이뒤에는, *
*
55 이뒤에는, *
*
56 이뒤에는, *
*
57 이뒤에는, *
*
58 이뒤에는, *
*
59 이뒤에는, *
*
60 이뒤에는, *
*
61 이뒤에는, *
*
62 이뒤에는, *
*
63 이뒤에는, *
*
64 이뒤에는, *
*
65 이뒤에는, *
*
66 이뒤에는, *
*
67 이뒤에는, *
*
68 이뒤에는, *
*
69 이뒤에는, *
*
70 이뒤에는, *
*
71 이뒤에는, *
*
72 이뒤에는, *
*
73 이뒤에는, *
*
74 이뒤에는, *
*
75 이뒤에는, *
*
76 이뒤에는, *
*
77 이뒤에는, *
*
78 이뒤에는, *
*
79 이뒤에는, *
*
80 이뒤에는, *
*
81 이뒤에는, *
*
82 이뒤에는, *
*
83 이뒤에는, *
*
84 이뒤에는, *
*
85 이뒤에는, *
*
86 이뒤에는, *
*
87 이뒤에는, *
*
88 이뒤에는, *
*
89 이뒤에는, *
*
90 이뒤에는, *
*
91 이뒤에는, *
*
92 이뒤에는, *
*
93 이뒤에는, *
*
94 이뒤에는, *
*
95 이뒤에는, *
*
96 이뒤에는, *
*
97 이뒤에는, *
*
98 이뒤에는, *
*
99 이뒤에는, *
*
100 이뒤에는, *
*

るやうです

内地では、櫻の花を國花に云つて居ますが、そ
れは尤もですね

あの櫻の花の下に行つて、辨當を食べませう

この近處にお寺がありますか

此處から約一里許りの所に、華溪寺に云ふお寺
があります

それでは、其處へ行つて、遊んで歸りませう

このお寺も大きなお寺ですね

あそこに見える部落は、餘程大きい村ですね

その村を杏花村に云ひますが、昔から金持が多
く住んで居ります

この前の部落は、家が澤山ありますが、何に云
ふ村ですか

それは市場です

この後ろには廣い野原があるが、草原が多くて
田畑は少いから惜しいものです

茂盛

李七星

爽快

滿員

苦端

當身、徳、困

祭日、北漢山城、丹楓

- 45 오른쪽에, 퍼런 (푸른) 것은, 보리밭친가요
46 그런가봅니다
47 커인쪽산에는, 나무가, 만히 무성하였스니,
경치가 좃소
48 그것은, 리칠성이란 사람의 집, 갖이 올시다
49 희가, 기우렸스니, 그만 도라갑시다
50 오늘은, 잘 놀아서, 마음이, 상쾌하오
51 그러나, 집에 가기에, 늦지 아니하겠소
52 그럴걸이요, 만히 늦겠습니다
53 아, 자동차가 오니, 자! 탑시다
54 맞침, 만원이 되지 안아서, 좃습니다
55 고단 하시겠습니다
56 오늘은, 당신의 덕으로, 잘 구경하였소, 곤하시지요
57 리일은, 쉼일이니, 부한산성으로, 단풍구경
가시지 아니 하랍닛가

- 右の方の青いのは麥畑でせうか
その様ですね
あの左の方の山には、樹木が澤山茂つて居て、
景色が宜いです
あれは李七星云ふ人の家の山です
(火とは薪を探る爲めの山なり)
日が暮れますから、もう歸りませう
今日は善く遊んだので、心持が爽快です
併し内へ歸へるのが、遅くはならんでせうか
そうですね、餘程遅くなりませう
あ、自動車が來ましたから、さあ乗りませう
丁度滿員でなくて、よかつたですね
お疲れでございませう
今日は、貴方のお蔭で、愉快に見物致しました
お疲れでせう
明日は祭日ですから、北漢山城へ、紅葉狩に行
かうではありませんか

俞鎮國氏、散步、通奇

電話

別、相値

衣服、輕捷、運動

點心

韻致

出發

俞公

58 그것、미우춍습니다

59 유진국씨도、언제 한번、갓치산보가자는말이 잇섯스니、통괴할가요

60 어렵습니다만은、던화로、말승하야보십시오

61 별노、상치되는일이、업스닛가、꼭가갓다합나다

62 산길을갈터이니、의복은경첩하게넘고、운동구두를신고、갑시다

63 :덤심은、엇더케할가요

64 쉼밤이、애긋하고、맛이잇스니、중의게부락하야、지여먹읍시다

65 그것참、운치가잇겍습니다

66 삼십리되는길을、갓다와야하겍스닛가、리일아침여덜시에、출발합시다

67 유공이、오지아니하니、가다가들너、갓치갑시다

68 참、기다릴것업습니다

それは大變結構です

俞鎮國さんも、何時か、一度一緒に散歩に行かう云つて居ましたから、知らせてやりませうか御面倒ですが、電話で話して見て下さい

別に差支がありませんから、是非行く云つて居ります

山道を歩くのだから、着物は輕装して、運動靴を履いて行きませう

晝飯はごうしませうか

お寺の飯が、奇麗で美味しいから、坊さんに頼んで、炊いて貰つて食べませう

それは大變面白い趣向です

三里の路を往復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ら、明朝は八時に出發しませう

俞さんが來ませんから、行きがけに寄つて、誘つて行きませう

成程、待つ必要はありません

時方

感謝

短杖

山莊

庭園

貌様

引導

黃菊

老大監、精誠

69 시방, 덕으로, 가랴 하얏더니, 이 처럼 와 주셔
시, 감사합니다

70 단장을 집고, 가시지요

71 집고 가는 것이, 쫓켓습닛가

72 죄산장은, 뉘 것인가요

73 들어가 봅시다

74 정원을, 잘 꾸며 노았습니 다구려

75 산장 직이가, 잇는 모양이니, 구경식혀 달나고
합시다

합시다

76 좀, 구경합시다

77 구경하십시오, 제가 인도 하야, 되리 겠습니 다

78 황국이, 보기 좋케, 피엿습니 다

79 이 황국은, 로대 감이, 청청을 되려, 길은 것이
올시다

올시다

80 어시, 가 봅시다

81 아, 보기 좋습니 다구려, 왼산이, 셋발 갖습
니 다구려

只今お宅へ上がらうと思つて居ましたが、こん

なにお出で下さいまして、有難うございます

短杖スキツキをついて行かれてはさうですか

ついて行く方がいゝでせうか

あの別莊は誰のですか

這入つて見ませう

庭園がよく出来て居ますね

別莊の番人が居るやうですから、見せて貰ふや
うに頼みませう

うに頼みませう

ちよつと見せて下さい

御覽下さいまし、手前が御案内致しませう

黃菊の花が、見事に咲きましたね

この黃菊は、旦那様が、丹精を籠めて、育てた
ものであります

ものであります

早く行つて見ませう

あ、見事ですな、山全體が、眞つ赤ですな

紅葉勝於二月
花、嘘言

82 넷사람이 「홍엽이승어이월화」라드니、허언

이아니올시다

83 산길이、희미하니、풀을헤쳐가면시、을너갑

시다

仁川
84 적과보이는것이、인천바다오릿가

85 그럭습니다、이알헤、시내갓치보이는것이、

한강이올시다

漢江
86 가을날이라、하날에、한덩구름도엮시쳐、이

와갓치、멀니、잘보입니다구려

87 다리가、팍팍하니、쉬여갑시다

88 잘구경하야、마음이상쾌합니다

89 오늘은、청월보름날이니、달구경갑시다

踏橋、一年
90 달구경하면시、담교를하면、일년동안、다리

가압흐지안타하오

五月端午
91 오늘은、오월단옷날이니、그네뛰는구경갑시

다

昔の人が「紅葉勝於二月花」云つて居ますが
嘘では御座いませんね

山道が、はつきりして居ないから、草を分けな
がら登りませう

彼處に見えるのが、仁川の海ですか

そうです、この前方に、小川のやうに見えるの
が漢江です

秋なので、空に一點の雲もなく、こんなに遠く

まで、よく見えるんですね

脚が疲れましたから、休んで行きませう

愉快に遊んで、心持がようございます

今日は正月の十五夜だから、月見に行きませう

月見をしながら「踏橋」をするこ、一年間脚の

病氣かないそうです

(踏橋とは正月十五夜に橋を三つ渡る風俗をいふ)

今日は端午の節句だから、鞦韆ぶらんこに乗るのを見に

行きませう

當身* 92 당신은, 그네설줄아니, 한번, 타보시오

申時、藥* 93 오늘은, 미우터우니, 신시역에, 약불먹으러

갑시다

空日、濯足* 94 요담오는공일날에는, 알바로, 락족갑시다

銀魚、川獵、鯀* 95 요사이, 은어도, 만히잡히니, 천령검갑시다

李書房* 96 그물은, 리쇠방터러, 비러오라고합시다

漢江、船遊* 97 한강으로, 천유갑시다

栗村* 98 룰촌으로, 밤주러갑시다

遠足* 99 너는, 원족을언케가나

모레, 간다고하여요

101 너의누이하고, 갖차갓다오너라

あなたは、鞦韆に乗れるんだから、一度乗つて見なさい

今日は非常に暑いから、午後四時頃薬水を飲みに行きませう

この次の日曜には、前の川へ濯足に行きませう
(濯足とは、谷間の溪流に足を濯し、或は、沐浴して遊ぶ風俗をいふ)

此の頃は、鮎も澤山取れますから、川狩を兼ねて行きませう

網は李君に借りて来るやうに云ひませう
漢江へ船遊びに行きませう

栗村へ栗拾ひに行きませう
お前は何時遠足に行くのか

明後日行くそうです
お前の姉さんと一緒に رفتて来い

東*

前*

太陽、次々
山*

爽快
太陽*

1 하늘이, 높다

2 날이 밝아 (식) 온다

3 먼동이 떠오른다

4 시벽바람이, 차니, 옷을 덧겹게, 남으시오

5 시벽밥을, 먹고, 일즉일즉 단여야 한다

6 히닷기천에, 물을, 만히 길어 오너라

7 일은 아침에, 들에, 나아가 보면, 이슬이 잔득

와습디다

8 해가 (태양이) 츠츠아옵니다

9 산에, 안개가, 서여 잇더니, 히살에 쓰여서,

훑터키버렸소

10 봄날이, 다싯하야, 먼산에, 아지랑이가 서여

소

11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옷자락이, 나뭇기

니, 마음이, 대단히, 상쾌하오

12 저녁놀이, 서엿습니다

13 날이, 저물었스니, 그만, 도라갑시다

天が高い

夜が明けて来る

夜が明けて来る (먼동-遠い東)

曉の風が寒いから、着物を厚く着なさい

朝飯を食べて、早く往かなければならぬ

日の出る前(夜明け前)に、水を澤山汲んで来い

朝早く野原へ出て見るに、露が一面に降りて居

ました

日が(太陽が)次第に昇つて来ます

山に霧がかかつて居たが、日光に照らされて、

散つてしまひました

春の日が暖くて、遠い山に、霞が棚引いて居ま

す

春風がそよ／＼吹いて、着物の裾が、ひら／＼

するから、氣持が非常に爽快です

夕焼がして居ます

日が暮れたから、もう、歸りませう

細雨

14 요사이는, 霂^{*}심으로, 날마닥, 흐립니다
15 햇물이름하니, 아마, 비가오랴나보오

16 ^{*}취우에 (가는비에) 버들가지가, 쪼쪼, 더
욱폴으러컷소

17 이비가, 온뒤에는, 霂^{*}봉오리가, 르겟지요

滿發
花柳

18 산과들에는, 霂^{*}치만밭하고, 시풀이푸릇푸릇
나시, 화류^{*}가는사람이만소

19 벗헤, 霂^{*}내를, 霂^{*}어말니시오

20 요사이는, 장마^{*}혀라, 비가, 자조자조옵니다

21 벗치나고, 이슬비가오오

22 해가나기에, 비가개인 (날이든) 줄알앗더니
또비가옵니다

貌樣

23 처북^{*}풍이불면, 비가, 개이나, 이처럼, 동남
풍이부닛가, 비가만히올모양^{*}이오

24 너무비가, 만히와서, 방마루가, 모도, 축축

此頃は花曇りで、毎日曇つて居ます

日が笠を被つて居るから、多分、雨が降るので
せう

小糠雨^{こぬか}に柳の枝が濡れて、一入^{ひとしほ}青くなりました

この雨が降つた後は、花の蕾が綻びるでせう

山や野には、花が満開で、新しい草の芽が、青
々こ萌え出て、花見に行く人が多いです

日向に洗濯物を擴げて、乾かしなさい

此の頃は梅雨期なので、雨が頻りに降ります

日が當つて居ながら、小糠雨が降ります

日が照つて來たので、雨が霽れた(雨が上がつ
た)と思つたら、又雨が降つて來ました

西北の風が吹くと、雨が霽れるのですが、こん
なに、東南の風が吹いて居ますから、雨が澤山
降るのでせう

餘り雨が降り續いたので、部屋や板の間が、皆

上流地方

합니다

25 압내물이, 펴불었스니, 상류지방에는, 비가

만이온모양이올시다

26 작년에는, 한지로, 귀우제를, 다지내었는데

금년에는, 도토혀, 슈히가있지아니할가요

27 이만한비에, 홍슈의넘려는, 엄겟지요

28 번개가, 번적번적하며, 우뢰(런동) 소리가

우루루하니, 무섭습니다

29 어제, 던신주를, 바람을쳤다합니다(던신

대에, 벽력이나렸답니다)

30 무더우니, 소네기가, 쏘다질모양이올시다

31 이쪽하늘은, 맑아서, 한덤구름도없스나, 췌

동쪽하늘은, 검은(먹장갓흔) 구름이, 잔득

서엿습니다

32 우태(우괴)가잇스니, 얼핀, 단여오시오

33 글쨌요, 동풍이슬슬불어오고, 날이잔득홀여

옵니다그려

じく／＼して居ます

前の川の水が、非常に殖えましたが、上流地方

には、雨が澤山降つたらしいです

去年は早稔で、雨乞祭までやりましたが、今年

は却つて、水害はありはしないでせうか

これ位の雨で、洪水の心配はないでせう

稻妻がぴか／＼やり、雷がごろ／＼いふから、

恐いです

昨日も、電柱に落雷したそうです(電信柱に雷

が落ちたさうです)

蒸暑いから、夕立が降りそうです

此方の空は晴れて、一點の雲もないが、向ふの

東の空は、眞黒い(墨の様な)雲が一杯かゝつ

て居ります

雨貌様ですから、さつさゝ行つていらつしやい

そうですね、東風がごう／＼吹いて来て、空が

すつかり、曇つて來ましたね

*五色、玲瓏
*支離、運動

*福童、海水浴
*黑人種

*一年中、第一
*初、初生、西山

*半

*明朗
*所用

34 무지개가, 샛갯스니, 나와보시오

35 엷켜면, 쪼러케, 오식이렁롱한가요

36 장마가, 너무지리하야, 운동도할수업고, 갑
갑하야, 견딜수업소

37 바람은불어도, 날이, 대단흔중합니다

38 복동이가, 원산에가쳐, 해슈욕을하고오더니

*흑인종갓치, 얼골이, 몹시그렸습니다

39 달이, 둥그럿케, 켜습니다

40 일년중, 가을달이, 데일밝고, 보기죇습니다

41 오늘은, 초사흘이라, 실달(초성달)이쳐산
에, 걸렸습니다

42 초여들에달은, 반달이올시다

43 보름달이밝어쳐, 별이, 잘보이지안습니다

44 등근달(원달)이쳐쳐, 밤이낫갓치, 명랑하
니, 등불은, 소용이업습니다

45 달밤이조흐니, 산보하러, 나갑시다

虹が出ましたから、出て御覽なさい

ぎょうしてあんなに五色の色が奇麗なんでせうね

長雨が餘り降り續いて、運動も出來ず、退屈で

堪りません

風は吹いて居ますが、天氣が非常に、蒸し暑い

です

福童が元山へ行つて、海水浴をして來たが、黒

ん坊のやうに、顔が大變日に焼けました

月が眞ん丸く、出て居ます

一年中で、秋の月が一番明るくて、美しいです

今日は三日ですから、三日月が西の山にかかつ
て居ます

八日の月は、半月でございます

十五夜の月が明るいので、星がよく見えません

眞ん丸い月が出て、晝のやうに明るいから、燈
火はいりません

いゝ月夜ですから、散歩に參りませう

種々

日蝕

月蝕、三十

瑞氣

一字

三台星

分明

46 겨울달밤은, 더욱찬것갓소

47 봄이나, 녀름에는, 으스름달밤도, 만홀연아

나라, 달불이도, 종종합니다

48 일식하는것은, 여러번보았습니다

49 월식도하렷만은, 나히삼십이되도록, 보지못

하얏습니다

50 달이, 아즉, 지지아니하얏소

51 셋별이, 반작거리오

52 금음밤에는, 별이, 더욱, 반작반작하며, 쇠

괴가, 썩쳐잇소

53 하늘에, 못별이, 반작거리는것은, 맞쳐, 금

가루나, 은가루를썩려노흔것갓소

54 죄별은, 무엇이라합니다

55 죄괴, 큰별세기가, 두렷하게, 일쓰로, 나란

히잇는것은, 삼티청이라하는것이요

56 부쪽에, 일곱기별이, 분명히보이는것은, 부

두칠청이라고합니다

冬の月夜は、一層冷いやうです

春や夏には、朧月夜も多いばかりでなく、月暈

(月が笠をかぶること) も屢々あります

日蝕するのは、度々見ました

月蝕もあるだらうが、年が三十になつて未だ見

たここがありません

月が、未だ入りません

明けの明星が、きら／＼光つて居ます

晦日の夜には、星が殊にきら／＼して、美しい

光を放つて居ます

空に多くの星が、きら／＼して居るのは、丁度

金の粉か、銀の粉を蒔き散らしたやうです

あの星は何と云ひますか

向ふに大きな星が三つ、はつきり(目立つて)

一文字に竝んで居るのが、三台星と云ふのです

北方に七つの星が、はつきり見えて居るのは、

北斗七星と申します

*北極星、北斗星
*老人星、長壽
*漆夜、暫時間
無數、鑛物學上

*隕石

*尾星、慧星
*銀河、節候、
方向、變

*牽牛織女星、
七月七夕、銀
河水、烏鵲橋

*西風

*丹楓

*日氣、不調、
攝養、操心
*換節

57 그 옆에 있는 것이, 북극성(북두성)이 을시다

58 노인성늘, 보면, 장수를 한다 하오

59 캄쉴야에, 잠시 간 하늘을 볼지라도, 별뿔이
무수히, 썰리지는대, 이것을, 광물학상으로
는, 운석이라 합니다

60 미성(혜성)을 보면, 엇진지, 침득합되다

61 은하늘, 철후를 알아서, 방향이 변합니다

62 견우직녀성은, 칠월칠석에, 은하수에, 노흔
오작교를 건너, 일년만에, 한번씩, 만나본다
하오

63 쇄풍이, 천들천들부니, 벌서, 가을철이 되얏
습니다 그러

64 찬이슬이, 내려서, 나무잎사귀가, 단풍이,
들었습니다

65 얼마 아니잇스면, 쇄리가 오겠지요

66 일기가, 부묘하오니, 설양을 조심하십시오

67 환절씨가, 되엿스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その側にあるのが、北極星(北斗星)であります

老人星(南極星)を見るに長生をするに申します

眞暗な晩に、一寸の間、空を見て居ても流星が
無數に落ちますが、これは鑛物學上では、隕石
に云ふのであります

彗星(慧星)を見るに、何だか氣味が悪いです

天の河は季節によつて、方向が變ります

牽牛織女星は、七夕に、天の河に架けられた烏
鵲橋を渡つて、一年目に一度づゝ逢ふさうであ
ります

西風がさわく吹いて居ますが、もう、秋の季
節になつたんですね

冷い霜が降りて、木の葉が、紅葉になりました

間もなく、霜が降りるでせう

氣候が不順ですから、養生にお氣をつけなさい

氣候の變り目になりましたから、お身に御注意

* 風雨、大作

* 東海岸地方、暴風雨
漁場、損害

* 果然、土雨、册床

* 世上、銀世界

68 어제밤에는, 풍우가 대작하여, 나무가지가,

다불어 컸다 하오

69 동해안 지방에는, 이맘때가 되면, 폭풍우 때문

에, 어장의 손허기가, 적지 안타 하오

70 회리바람이, 불어서, 집옹이 벗겨지며, 몬지

가, 대단히 날니오

71 오늘 아침부터, 해미가 잔뜩 엮였더니, 과연

우가 만히 와서, 최상우에, 몬지가 갖득 잇소

72 오늘, 첫음눈이, 왔습니다

73 눈이 만히 와서, 온채상이, 은세계가 되었소

74 함박눈이, 펄펄오니, 톨일은, 날이 푸군하겜

습니다

75 미우, 일기가, 음산하니, 아마, 눈이 올듯하

오

76 아침부터, 차락이 눈이 와서, 날이, 미우살々

합니다

なさい

昨夜は嵐が酷くて、木の枝が、皆折れたそうで
あります

東海岸地方では、この頃になると、暴風雨の爲
めに、漁場の損害が尠くないそうです

旋風が吹いて、家根が剥がれ、ほこりが非常に
立ちます

今朝から土ぐもりが酷かつたが、果して霧が澤
山降つて、机の上が、塵が一杯です

今日初雪が、降りました

雪が澤山降つて、全世界が、銀世界になりました
牡丹雪が、澤山降つて居ますから、明日は氣候

がゆるむでせう

非常に天氣が、寒くて曇つて居ますから、多分
雪が降るでせう

朝から霧が降つて、天氣が非常に寒いです

*新聞、江原道
淮陽
穀食、傷
氷板、行人、
困難

*酷毒

*行人、稀少

*寒暖計、度

*攝氏、零下、
二十一度三分

*極寒

*朝鮮、氣候、
三寒四溫
來日

*内地、比

*比較的

77 *신문을본즉, 강원도회양에서는, 밤들만한우

박이와서, 곡식이, 만히상하였다합니다

78 진눈개이 (진흙갑이) 가오니, 길에, 여름빙

판이, 커서, 빙인들이, 곤란하겠습니다

79 오늘은, 데일홍독히, 추운날인가봅니다, 더

구나, 눈바라를, 쳐서, 길에빙인아희소합니다

80 *한란계를보시요, 몇도나되었소

81 *섭씨령하이십일도삼분이올시다

82 *그러면, 아조, 극한이올시다그러

83 *도선겨울귀후는, 삼한스온이라, 한사날 (사

흘) 추웠스닛가, 리일부러는, 좀, 덜춡겟습

니다

84 *그런고로, 도선귀후가, 니디에, 비하야, 춡

기는하지만은, 비교덕견되기는, 좃소

85 *집웅눈이, 녹아서, 첨아에, 고두름이달냈습

니다

86 *압집춘여에도, 고두름이, 만히달냈더라

新聞を見るこ、江原道淮場では、粟位いな電が
降つて、穀物が澤山傷んださうです

電が降りますから、道に氷が張つて、通行人が
困るでせう

今日、一番寒さが酷いやうです、おまけに、

吹雪が吹いて、往來に通行人も尠いやうです

寒暖計を見なさい、何度になりましたか

攝氏零下二十一度三分で御座います

それでは、全く極寒ですね

朝鮮の冬の氣候は、三寒四溫だから、約三日間

寒かつたから、明日からは、少しゆるむでせう

それ故、朝鮮の氣候が、内地に比して、寒いこ

こは寒いが、比較的我慢し易いのです

屋根の雪が溶けて、軒に氷柱が、下がつて居ま

す

前の家の廂にも、氷柱が澤山下がつて居つたよ

す

前の家の廂にも、氷柱が澤山下がつて居つたよ

87 지난밤에는, 무쇠리가, 왓스닛가, 오늘은, 좀, 덜춡겠습니다

88 손발이, 시려서, 압습니다

89 오늘밤에도, 치을모양이니, 방에, 불을, 만
히써여라

90 방안에서도, 이러케, 손이, 시려우니, 밖
은, 몹시추운가보다

91 유리창에는, 미화를, 쳐노흔것갓치, 창에
가
스러구나

92 여름이, 뽕뽕얼엇소

93 바람이, 또디동치듯, 부모

94 칙후소, 괴사의말을, 들은즉, 이십년리의,
처음추위라하오

95 난로밧에, 부어노흔불이, 다, 얼어서, 녹지
아니하오

96 오늘은「스게」로「지」치려가지만

97 일기가, 츄츄, 뽕뽕하야옵니다

昨晚は、霜が澤山降りましたから、今日は、少
し寒さが緩るみませう

手足が、かじかんで、痛みます

今夜も冷えさうだから、部屋に、火を澤山たけ

室内でも、こんなに、手がかじけるのだから、
外は酷く寒いだらう

硝子窓には、梅の花を描いたやうに、氷が張つ
たわい

氷が、堅く張りました

風が又酷く(地震の様に)吹きます

測候所の技師の話に依れば、二十年來始めての
寒氣ださうです

ストーブの下に、注いで置いた水が、すっかり
凍つて解けません

今日は、スケートをしに行つてはならぬ

天氣が、追々暖くなつて参ります

地動

測候所、技師
二十年來

暖爐

日氣、次々

解氷*

98 히방이, 되었겠지요

氷が、もう解けたでせう

陽地*

99 이름은, 벌서, 다, 풀렸습니 다

氷は、もう、すっかり解けました

地震、地動*

100 적, 양지착에는, 풀이, 파릇파릇났습니 다

あの日向ひなたには、草が青々こ生へて來ました

朝鮮半島、面積、方里*

101 도천에는, 다진(디동)이, 별노엄습니 다

朝鮮には、地震が別にありません

南北*

102 도천반도의, 면적은, 한일만스천방리나 됩니 다

朝鮮半島の面積は、約一萬四千方里位あります

百九十里、百五十里*

103 남북길이는, 얼마나, 됩닛가

南北の長さは、幾ら位ですか

東西、幅*

104 긴곳은, 일백구십리요, 작은곳은, 일백오십 리가 됩니 다

長い處は百九十里、短い處は百五十里あります

陸地、連*

105 동서의, 폭(넓이, 넓이)은, 좁은곳이, 스 십리오, 넓은곳이, 칠십리나 되오

東西の幅は、狭い處で四十里、廣い處で七十里程あります

地勢*

106 도천은, 북쪽만류디에, 연하여잇고, 다른곳 은, 다, 바다를, 낫하야, 잇습니 다

朝鮮は、北方だけ陸地に連つて居り、他の所は皆海に面して居ります

山地、平野、江*

107 도천디체가, 엇더합닛가, 말승하야보십시오

朝鮮の地勢は、さうですか、お話して見なさい

山脈、北方、春長白山脈*

108 산디는, 만코, 평야는, 적으나, 긴강은만습 니 다

山地は多く、平野は少いが、長い河は澤山あります

109 산딕중에, 부방에잇는, 장백산딕과, 동쪽의

山脈の中で、北方にある長白山脈や、東部の脊

梁山脈、太白
聯脈、有名、
南方、蘆嶺、
車嶺

第一、白頭山
景致、金剛山

五大江

海岸線、島嶼
港灣

港口

海軍要港

濟州島

境界、支那、
滿洲、露國領
地、接、馬關
海峽、下關、
隔、日本海、
黃海

人口、總數、
一千九百萬

110 * 嶺南산맥인 티백련맥이, 가장 유명하고, 그 외
남방에 로딩, 차령의 산맥도, 꽤 높습니다

111 * 德일곱은 산은, 빅두산이고, 경치가, 아름다
운 산은, 금강산이오

112 *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랑동강을,
오대강이라 하오

113 * 평야로는, 강경평야가, 제일 유명하오

114 * 해안선이, 길쭉아 나라, 유명한, 도처 항만이
만소

115 * 항구로는, 인천, 부산, 목포, 원산이 유명하오
진해만에는, 해군요항이 잇소

116 * 濟州도가, 제일 큰 섬이오

117 * 境界는, 북으로는, 지나의 만주와, 로 국령디
를 접하고, 남으로는, 마관(하관)의 협곡을

118 * 하며, 동쪽은, 일본해가 잇고, 서에는, 황해
를 접하엿소

119 * 人口의, 총수는, 일천구백만 씩 됩니다

梁山脈である太白聯脈が、最も名高く、その外
南にある、蘆嶺、車嶺の山脈も可なり高いです

一番高い山は白頭山で、景色の美しい山は、金
剛山です

鴨綠江、豆滿江、大同江、漢江、洛東江を五大
江と云ひます

平野では、江景平野が一番名高いです

海岸線が長いばかりでなく、有名な島嶼港灣が
多いです

港では仁川、釜川、木浦、元川が有名です
鎮海灣には、海軍の要港があります

濟州島が、一番大きな島です

境界は、北では支那の滿州及び露國領地と接し
南は馬關(下關)海峽を隔て、東方には日本海

があり、西は黃海に接して居ります

人口の總數は、一千九百萬程です

四大都會

*新羅古都、南鮮中、古代文化中心地

*內地、東京、關路、著名都會地

爲先

*等地

次例

*道廳、所在地

*西洋

- 119 京省、平壤、부산、대구를, ^{*}수도회라 하오
- 120 京省는, ^{*}신라고도요, ^{*}남선충, ^{*}고대문화의 중심디을시다
- 121 京省처부터, ^{*}내디동경외지가는, ^{*}열로에 ^{*}적명 한도회지를, 아시오
- 122 ^{*}의천부산처, 마관에, 도착하여, 강산을 지나 처, 광도, 신포, 대관, 정도, 명고옥, 청강 등지를들니, 동경청거장에다오
- 123 십삼도를, ^{*}차레로, 말해보시오
- 124 京省, 충청남부, 전라남부, 경상남부, 황해 평안남부, 강원, 함경남부도요
- 125 ^{*}도청의 소지디는, 어디어디요
- 126 京省, 청주, 공주, 천주, 광주, 대구, 부산 해주, 평양, 신의주, 춘천, 함흥, 라남들이오
- 127 ^{*}쇠양의, 유명한나라 이름을, 읽거보시오
- 128 영국, 미국, 법국, 터국, 로국, 이태리, 비

京城、平壤、釜山、大邱を四大都市と謂ひます
 慶州は新羅の古都で、南鮮中に於ける、古代文化の中心地でございます

京城から、内地の東京まで往く道で、著名な都會を御存じですか

先づ、釜山から馬關に到り、岡山を経て廣島、神戸、大阪、京都、名古屋、静岡等に立寄り、東京停車場に着きます

十三道を順に謂うて御覽なさい

京畿、忠清南北、全羅南北、慶尙南北、黄海、平安南北、江原、咸鏡南北道です

道廳所在地は、何處々々ですか

京城、清州、公州、全州、光州、大邱、釜山、海州、平壤、新義州、春川、咸興、羅南等です

西洋の有名な國の名を、暗誦そらで云つて御覽なさい

英國、米國、法國（佛國）、德國（獨國）、露國、

이의, 화란, 덩말, 쇠뎐, 오래리등이오

129 해변, 兒孩
해변에, 아해들이, 만히잇스니, 무엇을하오

130 海水浴
해수욕을, 하나보오

131 溫井, 效驗
동래온천(온칭)이, 제일효험이잇다하오

132 開城, 瀑布
개성박연폭포를, 보섯소

133 處々, 貯水池
도천에는, 쇠뎐에, 더슈지는잇스나, 유명한

湖水
호수는, 적소

134 水原, 西湖
수원의, 쇠호가, 쇠, 큼니다

第十四節 動物

1 개는, 슈상한사람을보면, 짓기를하오
殊常

2 고양이 (괭이) 는, 쥐를잡삽소

3 길으게, 강아지한마리를, 갓다주시오

4 도야지는, 추한증상이나, 잘먹여기르면, 리
醜, 利益

익이만소

伊太利, 白耳義, 和蘭, 丁抹, 瑞典, 塙太利等
です

海岸に子供が澤山居ますが、何をして居るので
すか

海水浴をして居るやうです

東萊溫泉が、一番効驗があるそうです

開城の朴淵瀑布を、御覽になりましたか

朝鮮には、處々に貯水池はあるが、有名な湖は

少いです

水原の西湖が、可なり大きいです

物

犬は怪しい人を見るこ、よく吠えます

猫は鼠をよく捕へます

飼ふんだから、犬の子を一匹持つて來て下さい

豚は汚い獸物ですが、よく喰はせて飼へば、利

益の多いものです

牛馬、農家、必要、動物

眼鏡

宕巾、網巾

羊、至極、順生物

奸邪、作亂

鹿茸、藥材

猛獸

虎皮、貴重、物件

5 우마(馬)는, 농가에, 가장필요한동물이요

6 소는, 힘이세고, 말은, 알으게것소

7 송아지와, 망아지는, 밍우, 보기에, 귀엽소

8 소של노는, 안경테와, 빗을민드오

9 말총으로는, 탕건과, 망건을싸오

10 털은, 담요속을넋소

11 나귀(당나귀)는, 을기를잘하오

12 노새는, 잘차넋가, 무철소

13 양은지극히, 순한동물이요

14 여호는, 간사하기가, 착이업소

15 삼이, 밤에나와서, 작란을잘하오

16 사슴של을, 룽용이라하야, 약지로쓰는데, 갑

시만소

17 산도야지고기가, 맛이죠포

18 노루를, 산양히왔소

19 범(호랑이)은, 무서운뎡슈요

20 호피는, 귀중한볼건이요

牛馬は、農家に、最も必要な動物であります

牛は力が強く、馬は疾く歩きます

子牛や子馬は、非常に可愛らしく見えます

牛の角では、眼鏡の縁や櫛を拵へます

馬の尾では、宕巾や網巾を編みます

毛は、敷蒲團の中へ入れます

驢馬は、よく嘶くものです

騾馬はよく蹴るから、恐いです

羊は極めて、おこなし動物です

狐は狡猾なこは、類がありません

山猫が夜出て、悪戯をよくします

鹿の角を鹿茸と云つて、藥材に用ゐるが値段が

高いものです

猪の肉は、美味しいものです

獐を獵つて來ました

虎は恐しい猛獸です

虎の皮は、貴重なもの

豹*

獅子、百獸、
王、威風、凜々
果然、猛獸

雌雄

氣運、材木
象牙

外、裝飾品、
使用

黒角、犀角

21 갈범 (표범) 은, 무심계 날니요

22 넷척부터, 스스는빅슈의왕이라더니, 오날척
음보닛가, 위풍이름々하야, 과연빙슈입테다

23 암수 (스웅) 두마리가잇는디, 솟컷은, 얼골
에, 털이만코, 암컷은, 그리업소

24 코키리는, 크기가집치만할뿐아니라, 코기운
이세서, 코로, 큰지목을, 날는다합디다

25 상아로, 불썰리나, 쪼가락을만들면, 보기쪼
소

26 그외에, 몸장식품만드는데도, 만히스용하오

27 족기는, 눈알이쌀갓고, 귀가대단히길며, 앞
다리보단, 뒤다리가길어써, 산에오르기는잘
하여도, 니리기는잘못한다하오

28 고리는, 물속에사는집성층에, 데일큰것이요

29 불소설늘, 흑각 (쇠각) 이라하오

豹は恐しい程、猛しいものです

昔から獅子は、百獸の王と云つて居るが、今日
始めて見るこ、威風凜々として、果して猛獸で
ありました

雌雄二匹居ますが、雄は顔に毛が多く、雌は左
程ありません

象は大きさが、家位ある許りでなく、鼻の力が
強くて、鼻で大きな材木を運ぶそうです

象牙でパイプや箸を拵えるこ、見事なものです

その外身の裝飾品の細工にも、多く使ひます

兎は眼玉が眞赤で、耳が非常に長く、前脚より
も後脚が長くて、山に上るこは上手だが、下
りるこは下手だそうです

鯨は水の中に棲む獸物の中で、一番大きなもの
です

水牛の角は黒角(犀角)と云ひます

山村

30 산촌에는, 녀대(일학)가, 각급각급, 나온 다하오

山村には、狼が度々出るそうです

才操

31 원숭이가, 지조를, 피면, 우수워쳐, 볼수업 소

猿が藝をするこ、可笑しくて、見て居られません

薑板

32 곰의 혀는, 강판갓치, 살살(살금살금) 하오

熊の舌は、おろしのやうに、ざら／＼て居ます

駱駝、沙漠

33 락타(약대)는, 사막에 사오

駱駝は、沙漠に住んで居ます

麒麟、世上、稀貴、傳説、聖人

34麒麟은, 처상에, 희귀한 동물인데, 전설에도 청인이 나쳐야,麒麟이 생긴다 함도, 이를 말한 것인 줄 노아오

麒麟は世に稀な動物だが、傳説にも聖人が出なくては、麒麟が生れぬ云つたのも、これを謂つたものだらうと思ひます

35 고슴뚝치털은, 섧々하야, 외를 잘 다쳐, 질머 지고, 다라난다 하오

豪猪の毛は硬くて、よく瓜を取つて負ぶつて走るそうです

36 룡이, 비를 준다 하는 말이 잇소

龍が雨を降らすこ謂ひます

穀食

37 두더지가, 밧곡식을, 잘 먹는다 하오

もぐらもちが、畑の穀物を、よく喰ふそうです

黃毛

38 족점이 꼬리털을, 황모라 하며, 다람쥐 꼬리털을, 청설모라 하야, 붓촉을 미오

鼯の尾の毛を黃毛こ謂ひ、栗鼠の尾の毛を青鼠毛こ謂つて、筆の穂を拵へます

39 염소젖은, 사람의 게 좃소

山羊の乳は、人によいものです

水獺皮、毛物

40 돈피, 슈달피는, 다, 조흔 모블이요

貂の皮、川獺の皮は、皆よい毛皮です

牧場、六畜

41 목장에서, 륙축을, 다, 길느오

42 륙축이라는것은, 우, 양, 마, 전, 돈, 계을
시다

43 우리집에서는, 닭을만히기르오

44 숫닭은, 뼈를맛쳐서울고, 암닭은, 알을나오

45 병아리를, 만히얏소

46 계란을, 내오너라

47 참새는, 침하에깃되리고, 아침커턱으로, 지

지거리오

48 시석기가, 어미시를따라단기오

49 처치가, 아침에지즈면, 깃분일이성긴다하오

50 가마귀는, 식컴에서 (식감에서) 보기는시르

나, 효성잇는시라, 시충의증스라하오

51 비들기는, 마음이여려서, 차음을아니하느고

로, 평화를표증하는시을시다

52 쉼비는, 날기가길어서, 쵸류충, 데일싸르게

날느며, 눈이밝어서, 날어단이면서, 해충을

牧場で六畜を、皆飼つて居ます

六畜云ふのは牛、羊、馬、犬、豚、鶏でございます

私の家では、鶏を澤山飼つて居ます

牡鶏は時に合はせて鳴き、牝鶏は卵を産みます

雛を澤山孵しました

鶏卵を出して來い

雀は簷の下に、巢をくふて朝夕囀ります

雛雀が母雀に隨いて歩きます

鶺鴒が朝鳴くこゝ、喜ばしいこゝがあるさうです

鳥は、眞黒ろで、見えはよくないが、孝心が篤

くて、鳥の中の曾子云ひます

鳩は心が優しく、喧嘩をしませんから、平和

を象徴する鳥であります

燕は翼が長くて、鳥類中一番飛ぶこゝが疾く、

目が明くて、飛びながら害虫を捕つて喰ひます

害虫

平和、表徴

鳥類中

益鳥* 保護

잡어먹는고로, 익조요

53 이런서는, 건드리지말고, 잘보호하여야하오

行列* 生雉, 雌雄

54 오리, 짐오리들은, 다, 입썩리가, 붕득하오

55 가을달밤에, 기력이가힘덜을지여시, 날너가

는것은, 미우보기쫓소

近來* 生雉, 雌雄

56 뺨(성치)한즈용사오너라

近來* 生雉, 雌雄

57 근리는, 못추리기틀, 기르는사람이, 늘엇소

58 미는, 산양을, 썩, 잘하오

59 솔개, 수리는, 병아리갓흔것을, 잘, 차가는

대, 그발톱을보면, 무섭게, 날카롭소

鸚鵡, 蘇秦, 張儀

60 잉무는, 말을갈하는고로, 시중의소진장의라

하오

61 외오리는, 버들가지에안커시, 잘우오

仙鶴, 高尚, 神

62 학(두루미)은, 고향한식라, 시중의신선이

라고하오

63 부엉이는, 나케는, 나무그늘에외출다가, 밤

から、益鳥であります

こんな鳥はいぢめないで、よく保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鴨や家鴨等は、皆嘴が鈍いです

秋の月夜に、雁が行列を造つて、飛んで行くのは誠に美しいものです

雉を雌雄二匹買つて來い

近頃は、鶉を飼ふ人が殖えました

鷹は獵を大變よくします

鳶や鷲は、雛子の様なものを、よく攫つて行くが、その足の爪を見るに、恐しい程鋭いです

鸚鵡は物をよく云ふから、鳥の中の蘇秦張儀を謂ひます

鶯は柳の枝にこまつて、よく鳴きます

鶴は高尚な鳥で、鳥の中の仙人だと申します

梟は、晝間は木蔭で眠つて居つて、夜になるに

梟は、晝間は木蔭で眠つて居つて、夜になるに

梟は、晝間は木蔭で眠つて居つて、夜になるに

梟は、晝間は木蔭で眠つて居つて、夜になるに

梟は、晝間は木蔭で眠つて居つて、夜になるに

鳳凰、梧桐、竹實、傳說、雙鴛、兩主、日常、白鷺、羽毛、外國人、海外輸出、夕陽、凄凉、孔雀、南方、華麗、江邊、白鷗

이면, 나와서, 돌아다니시오

64 뒷쥐구리는, 나무속에있는버러지를, 잡아먹
으오

65 봉황은, 오동에깃드리며, 죽실을먹는다는,
컨철이잇소

66 월앙은, 량주사이가, 찰, 조흔시라, 일상, 한
쌍이뵈터단기오

67 백로의우모는, 희기가눈과갓치, 새뵈하야,
외국인이조화하는고로, 해외에수출한다하오

68 거위는, 몸집은커도, 발은싸르오

69 석양관에, 백국이(백국식)의, 우는소리를
드르면, 마음이최량하야지오

70 공작은, 남방넬머디방의식인디, 털이, 가장
화려하오

71 황시다리리는, 미우길어서, 다리긴사람을보고
황시다리라고, 놀니오

72 강변에, 갈막이(백구)가, 펄々나오

出て歩きます

啄木鳥は、木の中に居る蟲を捕つて喰ひます

鳳凰は桐に棲んで、竹の實を食べるこ云ふ傳説
があります

鴛鴦は夫婦の仲が、洵はよく常に一對がくつ付
いて歩きます

白鷺の毛は、白さが雪のやうに奇麗で、外國人
が好むから、海外へ輸出するそうです

鷓鴣は身は大きい、足は短いです

夕方杜鵑の啼く聲を聴くと、心が物淋しくなり
ます

孔雀は南方熱帶地方の鳥ですが、毛が最も華麗
です

鶴の脚は非常に長いので、脚の長い人を見て
鶴の脚を嘲弄します

江邊に鷗が翩翩々々飛んで居ます

駝鳥 孵化

吉兆、財數

農事 王

薔薇花

73 종달새가, 보리밭우에, 높히떠잇소

74 라조는, 말갓치, 닳는다하오

75 구덕이가, 부화하야, 과리가되오

76 모기가, 들쓰르니, 모기잡는만슈향을피여라

77 빈대와, 벼룩이잇는모양이니, 빈대약을써려라

78 거리마가, 밤에나오면, 길도라하오 (지슈가 잇다하오)

79 빗물밖은독에, 장갹기가, 들쓸으오

80 거미줄에, 왕거미가나와잇소

81 고초잡자리가, 만히날너단기면, 농수에유익 하다하오

82 흰나뉬가, 붉은장미화꽃해, 안첫소

83 벌이, 술을첫스니, 떠냄시다

84 누에가, 고치를지오

85 개미는, 부즈런한버러지 (벌니) 요

86 미암이우는소리를, 드르면, 더위를이즐만하오

雲雀が麥畠の上に、高く飛んで居ます

駝鳥は馬のやうに、走るそうです

蛆が孵化して、蠅になります

蚊が澤山たかつて來るから、蚊捕り線香を焚け

南京蟲や蚤が居るやうだから、蚤捕粉を撒け

蜘蛛が夜出るこ、吉兆だこ云ひます (金儲けがあるそうです)

雨滴を受けた瓮(天水桶)に子子が湧いて居ます

蜘蛛の巢に、親蜘蛛が出て居ます

赤蜻蛉が澤山飛んで居るこ、農作に有益だこ申します

白い蝶が赤い薔薇の花に、こまつて居ます

蜜蜂が蜜を作つたから、取りませう

蠶が繭を作ります

蟻は忠實な(よく働く)蟲です

蟬の啼く聲を聞くこ、暑さを忘れるやうです

盛*

松*
蟲

87 曇々한밤에、반되설이、여괴쳐괴、날느는것
이、볼만하오

88 지네에게불니면、독이올나、릉々부오

89 귀드람이가우니、가을철이되엿구나

90 벧징이、문틈에서、우오

91 뉘득이가、플밭헤서、뛰여단긴다

92 박회가、성하야쳐소

93 묵은살에는、바구미가잇서、안되엿소

94 비추에、진되불이、밭작、성했소

95 달팽이는、찌질늘지고、단이오

96 미나리논에、거머리가만소

97 노리기는、씩은시에나는디、냄시가괴약하오

98 풍덩이가、생님홀、잘먹소

99 개립밧헤、진득이가、부러잇소

100 송충이가솔어서、소나무가、거의、말으게되

眞暗な晩に、螢があちらこちらに飛ぶのが見事
です

百足蟲に螫されるこ、毒が廻つて、ひきく腫れ
ます

蟋蟀が唧いて居るが、秋の季節になつたんだな
螽斯が、戸の隙で、唧いて居ます

飛蝗が、草原で、飛んで居る

蜚蠊が澤山發きました

古くなつた米には、象蟲が居つていけません

白菜に蚜蟲が急にわきました

蝸牛は殻を背負つて歩きます

芹田に蛭が澤山居ます

馬陸は腐つた屋根藻から出来るが、臭が大變惡
いです

黒金龜子が、桑の葉をよく喰ひます

犬の顎の下に、だにが喰付いて居ます

松毛蟲がわいて、松が殆んど枯れさうです

엷소

101 하눌밤도적이, 우물에잇소

102 동아비미 (도마비미) 는, 물지안소

103 비남에는, 구렁이, 독*사가잇스나, 살무스가

데일, 독이잇는것이요

104 개구리가, 물속에셔, 헤엄을치고잇소

올창이쌍지가, 기오

106 지렁이는, 축*한양속에잇소

107 비가온뒤에는, 땡쌍이가, 늘, 땡쌍땡쌍하고

우오

108 남성이와자라는, 얼는보기에, 갓흔것이요

큰거북은, 가마솥뚜껑만하다하오

110 독거비가, 입을*턱*버리고잇소

111 청개구리가, 마당에나와소

112 왕새우가, 장에*만*히*낫소

113 성천가게에가셔, 되미를, 다첫마리만, 사오

너라

おけら 螻蛄が、井戸に居ります

とがけ 蜥蜴は噛みません

蛇には鱗や毒蛇がありますが、蝮が一番毒があるものです

蛙が水の中で、泳いで居ます

おたまじやくし 蝌斗の尾が長いです

蚯蚓は、濕つた土の中に居ります

雨の降つた後には、糞蛙がいつも、ぎゅぎゅ云

つて鳴きます

小龜すつげんと泥龜は、一寸見るすつげんと同じやうです

大きな龜は、釜の蓋位あるそうです

がが 蝦蟆が、口を大きく開けて居ます

青蛙が、庭先に出て來ました

おほえび 大蝦が、市に澤山出ました

肴屋へ行つて、鯛を五匹許り、買つて來い

*青 *王 *生 鮮

*毒 蛇

醬*

114 이계를, 진장에, 킷당거두시오

115 옹백이에서, 방게가 기여나오니, 도로집어

너어라

116 너언덕에서, 붕어를낙그니, 가뵈시다

117 술안주를하겠스니, 조기를짜주시요

118 민어를, 소곰에쳐려서, 밧삭말니면, 암치가

되오

119 명태는, 함경남도마양도에서, 만히잡는데,

이것을말니면, 북에라하오

120 싱천복을, 석슈에언커서, 구어주시요

121 신선포에는, 해삼이들어야, 맛이나오

122 석수어(조기)는, 쇠해바다에서, 만히나오

123 빙장어는, 어린아희를, 만히택이면, 대단보

하는것이요

124 빙어전을, 붓쳐주시요

125 고기알중에, 련어알이, 데일크오

126 방어를, 만히먹으면, 취하오

この蟹を濃い醬油に、漬けて置きなさい

瓮かめから小蟹こがにが匍はひ出て來たから、元へ捕へて入

れろ

川岸で鮒うなぎを釣つて居るから、行つて見ませう

酒の肴にするから、蛤かきの殻を取つて下さい

鱈たらを鹽しほに漬けて、充分乾すこ「アムチ」になり

ます

明太は咸鏡南道馬養島で、澤山捕れますが、こ

れを乾すこ北魚きたういと謂ひます

生なまの鮑あぶりこを炙あぶり子こに載せて、焼いて下さい

神仙爐せんじゆには、海蔘なまこが入らなければ、味が出ません

石首魚いしづちは、西海から多く産します

鰻うなぎは幼い子供に食べさせるこ、非常に精が付く

ものです

白魚しらういのてんぶらを、揚げて下さい

魚ういの卵たまごの中で、鮭さけの卵たまごが一番大きいです

魴魚ぶなを澤山食べるこ、酔よひます

銀魚

127 오늘밤에, 그물을가지고, 너로, 은어를잡으
러감시다

今夜網を持つて、川へ鮎狩りに行きます

膾

128 오징어회를, 해주시오

鳥賊の刺身を、作つて下さい

鯉魚

129 잉어비늘을, 그리어주시요

鯉の鱗を、搔き取つて下さい

青魚

130 자반비웃 (칭어) 한두를, 디려와소

鹽青魚を、二十四買つて來ました

大口

131 대구국을, 쓰려라

鱈の汁を拵へよ

海女

132 해녀가, 바다물속에 들어가서, 소라를, 만히
주어가지고, 나와소

海女が海の水の中に入つて、蠔螺を澤山拾つて
出て來ました

文魚

133 쌀떡이는, 킷을담가먹소

するめは、鹽からにして食べます

鰾湯

134 낙지는지고, 문어는, 얇게침여노시오

小章魚は煮、大章魚は薄く切つて、置きなさい

勞働者

135 밧구리 (밧구라지) 국을, 추탕이라하는데,
로동자가, 잘먹소

鱈汁は「鰾湯」と謂ひますが、勞働者がよく食
べます

魚缸

136 복싱천 (복싱인) 은, 횡여사먹지말어라

河豚は決して、買つて食べてはならぬ

苦草醬

137 금붕어를사서, 어항에너어라

金魚を買つて、鉢に入れよ

鱸魚

138 메기국에는, 고초장을, 풀어야한다

鯰の汁には、唐草辛味増を和かなければならぬ

鯖魚

139 룡어회를, 잠수어보시오

鱸の刺身を、召上つて御覽なさい

며루치 (멸치) 우린국물에, 밀국슈를, 말어

140

鯛を煮出した汁に、鱈鮓を入れて下さい

주시요

141 고등어한손만, 갖다주시요

142 지느러미가시가, 억시오

第十五節 植 物

1 닝이와, 소투장이는, 이튿봄에, 나는나들인

대, 콩나물과갓치, 토장국을, 어러먹소

2 달니장앗지는, 먹을만하나, 입에치, 암내가

나치, 못먹겄소

3 들에가치, 솜바귀나들늘, 키오니라

4 푸초나물늘, 삼남디방에치, 혼이먹소

5 쑥이, 와룻와룻하오

6 비름나물늘, 해열체로쓰오

7 아해들이, 산으로, 고사리를, 키러가오

8 도라지와, 고비나물늘, 귀한것이요

9 피마자를다치, 기름늘, 짜시오

10 고초와호초늘, 약념으로, 만히쓰오

鯖ひれを二匹持つて來て下さい
鯖ひれの骨が硬こわいです

齊なうなや牛頰しのねくさは、春早く出る野菜ですが、豆もやし

こ、一緒に味噌汁に拵おへて食べます

野蒜のびるの福神漬は、一寸美味おいしいですが、口から

臭氣が出るので、食べられません

野原のげしに行つて野罌粟のけしの葉を、摘んで來い

萋あへものの 齧はは、三南地方で多く食べます

蓬よもぎが青々よもぎとして居ます

萋ひゆは解熱劑ひゆに、用ひます

子供等わらわがかりが、山へ蕨わらわがかりに行きます

桔梗ききやうの根や、ぜんまいは珍しいものです

唐胡麻たうこまの實をこつて、油を搾りなさい

唐辛子たうしんじや胡椒こしょうは、藥味やくみとして多く用ひます

* 三南地方
* 解熱劑

* 貴
* 蓖麻子
* 苦草、胡草

蘆田*

11 강가로켄에, 갈티가옥어지게, 낫소

江邊かはべ의 蘆田あしだ에, 葦あし가 一杯生いちぱいせいひ茂もつて居ゐます

梅花、盆

12 수침이는, 수침외로만든것이, 데일쓰기쫓소
13 미화한분을, 방에되려노왓더니, 향향니가가득

梅うめ를 一鉢いちぱつ, 部屋へや에 入いれて 置おいたら, 香氣かうき가 滿みち

紅梅、玉梅

14 홍미보다, 옥미가, 더욱아름답소

紅梅こうばいより 白梅はくばい가, 一層いちじやう美うしいです

梅實

15 미실은, 몹시시오

梅うめ의 實みは, 非常ひじょう에 酸すいです

杜鵑花、葦蕒

16 진달내 (두견화), 키나리 (신이화) 의 싹봉오

躑躅ちぢくや 連翹れんせう의 蕾つぼみ가, 出でました

杏花

17 살구꽃이 (형화가) 활싹피엿소

杏あんず의 花はな가, すつかり 咲さきました

18 사구라꽃이, 만히피여서, 마치, 구름이피여
오르는것갓소

櫻うめ의 花はな, 澤山さわら 咲さいて, 丁度ていど雲うが 叢むらがり 上あがるや
うです

碧桃花、紅桃

19 벽도화, 홍도화가, 웃는것갓치피여서, 사람

白八重桃はくはちじゆうとう, 紅八重桃こうはちじゆうとう의 花はな가, 笑わらふやうに 咲さいて

櫻桃

20 잉도는, 싹보다, 발갓케열미가, 다닥다닥,
의눈을, 놀내오

櫻桃うめは, 花はなよりも, 實み가 眞赤ましかに 澤山さわらなつたのが

연것이, 더욱, 보기쫓소

却かえつて 見み事ことです

21 주먹갓흔, 복송아가, 열녇소

握にぎり拳こぶし의 やうな, 桃もも가 なりました

22 스도가, 벌서낫소

李なし의 實み가, もう 出でました

*全鮮到處

23 사과 (능근)는, 전천도처에 석, 아나나는 곳

이업소

24 감은, 침을담거먹어야, 열지안소

25 비가, 누러케, 익엇소

26 포도덩클이, 씹만히, 퍼적잇소

27 석류는, 화초로, 볼만한것이지, 먹을만한과

실은, 못디오

28 유자는, 쇠주도소산인데, 남시가조흔고로,

문방치레로, 만히사다노합니다

29 목단(모란)은, 화려하야, 부귀의괴상이잇소

30 련꽃은, 청아한맛이잇소

31 영산홍을, 한분디리겟스니, 갖다, 구경하시

요

32 작약을, 분에워겨삼으시오

33 장미는, 다달이피오

34 화단에, 잡풀을뽑고, 잔디를입혀라

林檎は全鮮到る處に、出來ない所はありません

柿は鹽水に漬けてから(澁をぬくこと)食べる

こ澁くありません

梨が黄色く、熟しました

葡萄の蔓が、非常に多く蔓延はびこつて居ます

石榴は植木として、見るべきもので、食べるや

うな、果物ではありません

柚子は濟州島の名産物であります、香がよい

ので、書棚の飾として、多く買つて載せます

牡丹は華麗で、富貴の趣があります

蓮の花は、清雅な味があります

霧島躑躅を、一こ鉢差上げますから、持つて行

つて御覽なさい

芍薬を、鉢に植え替へなさい

薔薇は毎月咲きます

花壇の雜草を抜き捨て、芝を殖えよ

蘭草* 35 린초는, 화단밧헤, 포기를지여서, 일뚝로심

어야, 보기죠타

菖蒲* 36 련못에창포꽃치, 피여서, 향니가코를치르오

鳳仙花, 婦女* 37 봉선화는, 부녀들이, 덕우사랑하오

38 활련초씨를, 밧어두시오

彩松花* 39 치송화꽃은, 여러식이잇소

石竹花, 百日紅, 募種* 40 비가오니, 석죽화, 민도라미, 백일홍들을, 모종하야오니라

41 공원에서, 관국회를한다니, 우리집국화도, 출품합시다

無窮花* 42 무궁화가, 보기죠타, 피엿소

水菊* 43 슈국에, 먹을주면, 금방, 꽃치검의축々하야

지오

玉簪花* 44 옥잠화꽃은, 씨꽃한화초요

楊貴妃* 45 양귀비로, 아편을, 꺾조한다하오

粉* 46 분꽃씨는, 거죽은얇으나, 속은, 분과갓치,

희오

蘭は、花壇の下へ株を拵へて、一列に植ゑるこ
見事だ

池の花菖蒲の花が咲いて、香氣が鼻をつきます

鳳仙花は、婦女達が殊に愛します

金蓮花の實を穫つて置きなさい

松葉牡丹の花は、種々な色があります

雨が降るから、石竹、鶏頭、百日紅等を貰つて

來て植ゑる

公園で觀菊會を開くそうだから、家の菊も出品

しませう

木槿が、見事に咲きました

紫陽花に、墨水をやれば、すぐ花が黒ずんで來

ます

鐵砲百合は、清楚な草花です

罌粟で、鴉片を製造するそうです

白粉花の實は、皮は黒いが、中は白粉のやうに

白いです

宿根草

47 오랑캐꽃은, ^{*}속근초라, ^{*}썩리가, ^{*}미우담고,

크오

梔子

48 차자는, ^{*}꽃도볼만하거니와, ^{*}열미가연것은,

더욱보기^{*}죏소

水仙花

49 ^{*}슈원화가, ^{*}열지안토록, ^{*}방에되려노아라

第十六節 樹 木

赭山秃峯

1 ^{*}도천의산은, ^{*}이권부터, ^{*}자산독봉이, ^{*}만엇습

닛가

已往、鬱々蒼々

2 ^{*}그럭차아니하얏다합니다, ^{*}이왕에는, ^{*}엇던산

이든지, ^{*}나무가, ^{*}을々창々하얏다합니다

客舍、郡衙、材木

3 ^{*}여기, ^{*}익사든지, ^{*}군아든지질싸에, ^{*}지목을,

다, ^{*}이뒤산에서, ^{*}베혀넷다합니다

土皮

4 ^{*}그런대, ^{*}지금은, ^{*}키와갓치, ^{*}토포가, ^{*}버섯소

구려

百姓

5 ^{*}백성들이, ^{*}함부로, ^{*}베히기만하고, ^{*}심지는,

아니한외답이올시다

堇すみれの花は、多年草で、根が非常に太くて大きい

です

梔子くちなしは、花も見事ですが、實がなつたのは、殊

に美しいものです

水仙花が凍らない様に、部屋の中へ入れて置け

朝鮮の山は、昔から秃山が、多うございました

か

そうではなかつたそうです、昔はぎの山にも、

樹が鬱蒼と茂つて、居たそうです

此處の客舎だとか、郡廳だとかを建てるとき、

材木をこの後の山から、伐り出したそうです

それなのに、今は、あんなに秃げてしまつたの

です

人民達が濫りに、伐るばかりで、植ゑはしな

つたからであります

*總督府、出張員、募軍、沙防工事

*事業、治山

*急務

*今年、山林部新設、數年内林政、一新

*植木

*學校生徒、勿論、各官公署職員一同、植樹

*機會、森林、效用

*山野、樹木、茂盛

*有益、根源氣候、景致

6 요사이、총독부에서、출장원들이와서、모군
운을、만히사가지고、사방공사를하는중이을
시다

7 도선에는、여러가지、사업이만치만、치산이
데일금부라고、생각합니다

8 그러코말구요、금년에、산림부가、신설이되
얏스니、슈년년에、림청이、일신할줄노압니
다

9 요마적도、미년、수월삼일에는、식목을합닛가
10 학교성도는、불론이요、각관공서에셔도、직
원일동이、이날에는、식수를합니다

11 나는、귀회가、잇슬적마다、삼림의효용을、
말하야들립니다

12 무엇이라고、말삼하십닛가

13 산야에、슈목이、무성하면、여러가지로、유
익한일이만호오、첫적、물근원이、말으지아
니하고、귀후를고르게하고、도경치를、조케

此頃總督府から、出張員達が來て、人夫を澤山
備つて、砂防工事をやつて居る所です

朝鮮には、幾多の事業がありますが、治山が第
一の急務だと思ひます

そうですね、今年山林部が新設されましたか
ら、數年の内に林政が、一新するだらうと思ひ
ます

近頃でも、毎年四月三日には、植樹をしますか
學校生徒は勿論、各官公署でも、職員一同が、
此の日には植樹をします

私は機會がある毎に、森林の効用を話して聽か
せませす

何ういふ風に、話をなさいますか

山野に樹木が繁茂して居れば、種々有益なるこ
が多い、第一に水の源が乾くことなく、氣候を
調へ、又風景を美しくし、材木や薪炭が充分に

薪炭、土地、淨理致、關係

하며、지목과、신탄이 넘々하며、토지를 청하게 하는데、이리치가、다、이나 무에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갈합니다

14 흔히、엇더한、나무를 만히 심읍닛가

15 소나무를 심으라고、장려합니다

16 소나무 (솔) 는、여러 가지、종류가 잇지요

17 적송、흑송이 잇는데、도선씨는、다、솔이라고 합니다

18 흑송은、그리 케흔치 안코、다만、해안 지방에

19 도선에 서、유명한 삼림은、어디 잇습닛가

20 데일 유명한 곳은、압록강대 삼림이니、동양에

21 유수한 것이며、그 부원은、무진장이라고 할 수가 잇습니다

22 어디서、관리 할 닷가

23 도선 총독 부영림창의 관할인데、신의주에 잇습

니다

22

21

20

* 管理
* 朝鮮總督府營林廠、管轄、新義州

* 有名
* 鴨綠江大森林、東洋、有數、富源、無盡藏

* 海岸地方

* 赤松、黑松

* 種類

* 獎勵

なり、土地を清淨ならしめるのであるが、此等の道理は、凡て樹木に關係があるのだと話します

す

多く、ごんな樹を澤山植ゑますか

松を植ゑる様に、獎勵致します

松は、種類が澤山ありませう

赤松、黒松があるが、朝鮮ではごちらも松と謂ひます

ひます

黒松は、そんなに多くありません、只海岸地方

に少しあります

朝鮮で有名な森林は、どこにありますか

一番有名な所は、鴨綠江大森林であります

が、東洋で有數なもので、その富源は無盡藏である

と、云ふことが出來ます

ここで、管理して居ますか

朝鮮總督府營林廠の管轄ですが、新義州にあり

ます

樹種
樹木、大概、
針葉樹、潤葉
樹、若干

鴨綠材、五木

上流

製材

保安林

盜伐、者、重
罰、當

防風林、風致
林

實栢、滋養分
上等料理

23 압록강 삼림에는, 엇던 슈종이, 만히 잇습닛가

24 그 곳의 슈목은, 대기 침엽 슈이고, 활엽 슈도,

약간 잇는대, 침엽 슈에는, 잣 나무, 가문비,

잇가 리 나무, 주목이 잇고, 활엽 슈에는, 박달

나무가 만 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압록 지

의 오목이라고, 말 합니다

25 압록 강 상류에서, 지목을 베히 가 지고, 예를 모

와 시, 신의 주로 보 내면, 신의 주에 서는, 죄 지

를 합니다

26 이 마을 뒤의, 숲 (숲홀) 은, 보안림이 을 시 다

27 그러 면, 도벌 하는 자 가 잇 스면, 중한 벌 을 당 할

것이 지 요

28 이 숲 은, 방풍림 이 지 요 만 은, 경치가, 미우 조

으 닷가, 풍치림 이 라고 도, 할 수가 잇 습니다

29 잣 나무 에, 잣 송이 가, 주렁 주렁 달 녀 소

30 실박 잣 은, 즈양 분이, 만 홀 현 아 니 라, 보 기 조
흔 고 로, 상 등 료 리 에 는, 만 히 씹 습 니 다

鴨綠江森林には、ごんな樹種が多くありますか

そこの樹木は、大概針葉樹であつて、潤葉樹も

少しばかりありますが、針葉樹には、朝鮮松、

唐檜、五葉松、一位があり潤葉樹には、オノレ

カンバが澤山あります、これを人々が、鴨綠江

材の五木と謂ひます

鴨綠江上流で、材木を伐り出して、筏を組み、

新義州へ流しますと、新義州で製材を致します

この村の後の森林は、保安林でございます

それでは、盜伐する者があつたら、重い罰を受

けるでせうね

この森は防風林であります、景色が非常によ

いから、風致林とも云ふここが出来ます

五葉の松に、松笠が澤山なつて居ます

松の實は、滋養分が多いばかりでなく、奇麗な

ものですから、上等の料理には澤山使ひます

木器 電線 香 银杏、板 上等料理 榧子、寸白蟲 空腹 白楊 垂楊 丹楓 梧桐、樂器

- 31 피나무는, 목귀를뜨면, 가벼워서, 좃습니다
 32 삼나무는, 연철썩로, 만히씹니다만은, 도철
 에는, 엄다합니다
 33 향나무로, 향불을피오
 34 노가주나무로, 쇠코뚜리를, 만드오
 35 은hing나무바둑판을, 데일노, 치오
 36 은hing은, 상등료리에, 만히쓰오
 37 비즈는, 맛이, 열부나, 초빅충이, 잇는사람
 이, 공복에, 이것을만히먹으면, 약이된다하
 오
 38 참나무로, 구은숫치, 데일좃소
 39 오리나무로, 나막신을과오
 40 빅양나무에서, 개아지가, 날니오
 41 슈양버들가지가, 실갓치, 늘어젓소
 42 요사이, 산에단풍이들어서, 볼만하오
 43 도토리묵도, 먹을만한것이오
 44 오동나무로, 악귀를짜오

科の木は道具に指すこ、輕くてようございます
 杉の樹は、電信柱に多く用ひますが、朝鮮には
 ないこいふこごです
 柏檜で、香を焚きます
 杜松の木で、牛の鼻綱の輪を拵へます
 公孫樹の碁盤を、第一に推します
 银杏は上等の料理に、多く用ひられます
 榧の實は味が澁いが、眞田蟲を持つて居る人が
 空腹の時に、之を澤山食べるこ、藥になるそう
 です
 櫟で焼いた炭が、一番よいです
 赤楊で、下駄を拵へます
 ポプラの木から、柳絮が飛びます
 しだれ柳の枝が、絲のやうに、垂れて居ます
 昨今山に、紅葉がして見事です
 栃の實の羊羹も、美味ものです
 桐の木で、樂器を造ります

45 옷나무에도, 열미가, 열니오

46 엄나무가지로, 담을담는것은, 가시가만흔외
담이오

神主

47 밤나무로, 신주를, 만듭니다

48 대비도조흐나, 쓰리비도, 좃습니다

代身

49 링스나무열미를, 아희들이, 공대신으로, 가
지고노오

冬栢

50 :도흔동빅기름을, 머리에발으면, 머리빗같이
조화지오

51 참나무는, 단단한것이라, 연장의자투를, 민
들면, 좃소

華柳、木理、
光彩、櫛

52 화류는, 목리가좃코, 광치가잇시시, 장을차
면, 좃소

文匣

53 먹감나무로, 문감을차면, 보기좃소

54 닥나무썬질노, 쓴조희가, 데일좃소

漆の木にも、實が成ります

針桐の枝で垣根を葺くのは、刺が多いからであ
ります

栗の木で、位牌を造ります

竹箒もよいが、萩の箒もよいものです

枳殻からたちの實を、子供達が毬の代りに、持つて遊び
ます

よい椿油を頭につけるこ、髪うぶの光澤つやがよくなり
ます

櫛の樹は固い樹だから、道具の柄を造るこよい
です

(연장은大工道具、農具、其他凡て工作に用ふる道
具を云ふ)

紫檀は木目が奇麗で、光澤があるから、箒筒を
作るこ宜いです

黑柿で本箱を指すこ、立派です

楮からざの皮で漉すいた紙が、一番宜いです

桶、王

自紋竹

竹筍

農事

内作

外作

小作

合、五町歩、
假量

55 桶* 梅* 是* 大* 是*、* 왕대요

56 활살하는것은、신위대요

57 즈문죽설대를、사오너라

58 죽순을、국에、너어먹으면쫄소

第十七節 農 事

1 농수를、얼마하시요

2 논한철지기 (스므마지기) 와、밭얼마지기를

짓습니다

3 넉작이오닛가

4 네、그렇습니다、이외에외작도잇습니다

5 쇼작은、얼마나、내노흐섯습니가

6 여괴척기것을、합하면、오정보가량이됩니다

7 눈이만히와서、보리농수가、잘되겟소

8 양이결어서、씩잘되었소

桶の籠たがは直竹またげです

弓の矢にするのは、矢竹です

自紋竹の羅字を、買つて來い

筍たけのこを汁に入れて食べるこ、おいしいです

田畑を如何程作つて居ますか

水田を一石斗落 (二十斗落) こ、畑を十斗落作

つて居ます

自作でございませうか

はい、左様でございませう、この外に、小作もし

て居ます

小作はどれ程させて居りますか

彼處此處のものを合せるこ、約五町歩位になります

ます

雪が澤山降つて、麥作がよく出来るでせう

土地が肥えて居て、非常によく出来ました

9 씨뿌린지, 몇칠이나, 되었소

10 거름을, 만히주시오

11 보리가, 작이, 벌서때였소

12 삼복이를, 보는족々, 다뽑아버려라

13 다닐엇스니, 베여오너라

14 라작마당에, 멍석을, 만히살고, 보리를, 얹

게되고, 도리깨로쳐라

15 갈퀴로, 보리씨를, 추레내여라

16 허풍선이를, 갖다가, 톱을뚫쳐내버려라

17 섬에넛코, 식기로뚫거시, 곡간에, 차두어라

18 오늘, 밭홀갈러이니, 정기메고, 소몰고가거

라

19 광이로, 흙덩이를, 치익드려라

20 두덕을쳐라

21 밭두럭 (밭두렁) 을, 삭지마라

22 저거름을, 만히뿌리오

23 면화씨와, 콩씨를, 뿌리시요

種子たね를播いてから、何日位になりますか

肥料を澤山やりなさい

麥が、もう穂が出ました

黒穂病にかゝつたのを、見付け次第抜き捨てろ

すつかり熟したから、刈つて來い

廣場に筵むしろを澤山敷いて、麥を擴げてから連枷で

打て

熊手で、麥稈をより出せ

唐箕を持つて來て、塵を振ひ出せ

俵に入れてから、繩で縛つて、庫に積んで置け

今日は畑を耕すんだから、犁すきを背負つて牛を追

ふて行け

鍬で土魂を打ち碎きなさい

畝うねを拵へよ

畑の畔あぜを削つては不可ん

灰の肥料を、澤山施しなさい

棉の種と大豆の種を、播きなさい

棉花*

穀間* 噓風扇*

打作*

秧板*

移秧、移種*

今年、豊年*
秋收、始作*

24 나락씨를, 물에담그시오

25 비가만히왔스니, 모자리논(모판)에, 물을
잡음시다

26 콩외묵거름을, 노아라

27 췌레질을한뒤에, 양판^{*}을치시오

28 물을, 만히실어라

29 물을썬후에, 새를보아라

30 이앙(이종)을할터이니, 콩거름을, 만히노
코, 물을대여라

31 풀이만히났스니, 김을매야하겠소

32 가물어섯, 논물이주렷스니, 「용두레」로, 물
을퍼올니시오

33 벼가늘어케익엇스니, 거터드려야, 하겠소

34 금년은, 풍년이요

35 추수를, 시작하섯소

種籾を、水に浸^{ひた}しなさい

雨が澤山降りましたから、苗代に水を入れませ
う

豆粕の肥料を入れろ

馬糞を掛けてから、苗代を拵へよ

水を澤山入れろ

水を落してから、鳥を追へ

田植をするから、青刈、大青刈、大豆を澤山入
れて、水を注げ

雑草が澤山生えたから、草取をしけなければなり
ません

早稔で田の水が減つたから「용두레」で水を汲
み上げなさい

稲が眞黄色に熟しに居るから、收穫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

今年は、豊年です

取入れを始めましたか

改良* 36 기량홀릭로, 나락을, 흘트시오

37 짐으로, 이영을, 역거주시오

春精* 38 물방아간에게서, 용청을, 해다주시오

39 비를, 토매에, 너허갈어라

穀良都, 早神* 40 곡낭도와, 조신력이, 석겨서는못쓴다

監農* 41 요사이는, 감동하시노라고, 밧부시겟습니다

陸地棉* 42 올에는, 룩디면이, 잘되었소

諸具, 費用* 43 양감케구를준비하노라고, 비용이적지안케, 들었습니다

養蠶* 44 이번에는, 양삼을, 잘해보다고합니다

園頭幕* 45 참외가낙어가니, 일두막을짓고, 직혀야하겠소

農閑期, 修理* 46 농한기에, 보를슈리합니다

47 오늘밤, 학교에서, 도농무과장이, 농수기량

講演* 에대하여, 강연을하니, 드르러오시오

改良稻扱器で、粃を扱いて下さい

藁で屋根葺き藁を編んで下さい

水車屋に行つて、粃を搗いて貰つて下さい

粃を磨臼すりうすに入れて磨れ

穀良都も早神力が、混つてはならぬ

此の頃は農事監督の爲め、お忙しうございませう

今年は陸地棉が、よく出来ました

養蠶の道具を準備する爲めに、費用が少なから

ずかりました

今度は、養蠶をよくやつて見やうと、思ひます

眞桑瓜が熟しかけて居るから、番小屋を建て、

番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農閑期に沢を修理ませう (沢は灌漑用の溜池な

り)

今晚學校で、道の農務課長が農事改良に對して

講演がありますから、聴きにお出で下さい

*農者、天下之
大本

*朝鮮氣候

*果樹園、經營
利益

*害虫、驅除

*果實、貯藏、
甚、困難

*人民、反對、
多小間、水利
組合、設立

*土地改良會社
發達

*肥料改良、農
具改良、研究

*農村、振興、
計策、目下、
急務、生覺

*農民、生活、
安定

*農家、趣味
田園生活

48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는 말과갓치, 농사는
하로라도, 잊지 못할 것이요

49 *도천귀후는, 농업하기에, 미우조소

50 *과수원들, 경영하면, 리익이만소

51 *해충들, 잘, 구제해주시요

52 *겨울에, 과실들, 더장하기가, 심히곤난하오

53 *인민의반대가, 다소간잇슬지라도, 슈리조합
을, 철념하여야하겟소

54 *토디기랑회사가, 철념되면, 농수가, 더욱,
발달이될러이요

55 *비료기랑, 농구기랑도, 연구하여야하겟소

56 *농촌의진흥을, 계획하는것이, 목하의급무로
싱각하오

57 *농민의생활이, 안정되도록, 힘써주십시요

58 *시골농가의, 취미가, 적지안소

59 *천원생활을, 질겨하는사람이, 만하야하오

農は天下の大本なりと云ふたやうに、農業は一日たりとも、忘れてはならぬものです

朝鮮の氣候は、農業を營むに、大變宜しいです

果樹園を經營するに、利益が多いです

害虫を、よく驅除して下さい

冬期に果物を貯藏するに、甚だ困難です

人民の反對が、多少あつても、水利組合は設立しなければならぬ

土地改良會社が設立されるに、農業が一層發達するでせう

肥料改良や農具改良のことも、研究しなければならぬ

農村の振興を圖ることが、目下の急務だを考へます

農民の生活が、安定するやうに、努力して下さい

田舎の農家の趣味が、少くありません

田園生活を樂しむ人が多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第十八節 商 業

生涯 1 요사이느, 무슨싱이틀하나

始作 2 장소를, 시작하였습나다

時勢、滋味 3 시세 (즈미) 가 조흔가

近來、錢荒、去來、年末、物件 4 큰리견황하야, 거리가 적습나다 만은, 년말이 되여셔, 물건이, 잘, 팔닙니다

3千圓、假量 5 밋천이, 얼마나되나

變通 6 한삼천원가량됩니다

7 그런큰돈을, 어 되셔 변통하얏나

8 토디들, 은행에잡히고, 돈을취힛습나다

邊利、邊錢 9 별리 (변전) 은, 얼마나되나

年七分、契約 10 년칠분변으로, 계약을하고, 돈을썼습나다

商品 11 엇던상품을, 만히갓다노코와나

日用雜貨 12 일용하는잡화가, 만습니다

13 단골도, 만히싱젼나

外上 14 외상은안주고, 맞돈으로팝니다 만은, 차게과

此の頃は、どんな職業をして居るか

商賣を始めました

景氣がよいか

近來不景氣で、取引が少いですが、年末なので

品物がよく賣れます

資本が幾許位か

約三千圓ばかりです

そんな大きな金を、ここで融通して貰つたか

土地を銀行へ抵當に入れて、金を借りました

利子は幾らか

年七分で契約をして、金を使ひました

どんな商品を、澤山仕入れて賣るのか

日用雜貨が多いです

得意先も多く出來たか

掛賣はしないで、現金で、賣りますが、安く賣

負債*

15 是外답으로, 사러오는 사람이, 만습니다
장사를 잘 하니까, 부채도, 멧해아니면, 다 갚
것네그려

16 이불건갑시, 얼마요

定價、二圓五
十錢*

17 :덩가가, 이원오십전이올시다

18 너무빚차니, 조금, 삭가주세요

一割、減*

19 일활만감하야, 되릿겜습니다

五圓、紙錢*

20 오원차리지천이니, 거슬너주세요

21 다른것은, 사실것이업습닛가

利文、利益*

22 오늘은, 리문(리익)이, 얼마나낫소

23 চে음을해보야야, 알겜소

客主*

24 당신은, 엇던릭주집에, 잇소

南門、海陸物
産*

25 남문밖, 해륙물산릭주집에, 잇습니다

北魚*

26 이번에도, 북어를가적오섯소

運送店、物品
到着*

27 네, 오늘은송덕에서, 들뜬이, 도착되엇다는
통지가왔습니다

るので、買ひに来る人が多うございます

商賣が繁昌するから、負債も數年ならずして、

返済出来るだらう

この品物は幾値いくらですか

定價が二圓五十錢でございます

餘り高いから、少し負けて下さい

一割だけ引いて、差上げませう

五圓札ですから、釣錢を下さい

外に御入り用のものは、御座いませんか

今日は、利益が何程ありましたか

勘定をして、見なければ分りません

あなたは、どの問屋に泊つて居りますか

(朝鮮の商人は取引の問屋に泊るを普通とす)

南門外の海陸物産問屋に居ります

今度も、乾明太を持つて來ましたか

はい、今日運送店から品物が到着したと云ふ通

知が参りました

興成

仲介人、口錢
口文

場*

大段、石油、
箱子

票*

換錢

場*

封紙

28 흥청 (흥청) 을, 잘압시다

29 증기인여러분도, 넉넉히, 구전 (구문) 을,
자시도록, 하야 되리지요

30 오늘, 장에, 가시요

31 네, 가겠습니다

32 대단어렵습니다만은, 석유한상즈를, 사다주
시요

33 무슨표를, 사다드릴까요

34 솔표가, 좃습니다

35 이 환전을, 은화에, 가쳐서, 차커다가, 사시
요

36 티삭은, 케가, 짐윤의게, 주겠습니다

37 첫달대목장이 되여서, 사람이, 씩만히 모혀들
었소

38 험업는것을, 가려주시요

39 봉지에, 잘차주시요

取引をよくやりませう

仲買人の方々も、口錢が多くこられる様にして、
差上げます

今日市に行かれますか

はい、参ります

誠に申しかねますが、石油一箱買つて来て下さ
い

何印しのを、買つて上げませうか

松票が宜しうございます

この爲替を銀行へ行つて、受取つて買つて下さ
い

駄賃は手前から、人夫にやつて置きます

年末の市いちですから、人が非常に澤山集つて來ま
した

(대목장은舊曆十二月中最終の市をいふ)

傷のないのを、選よつて下さい

袋に、よく入れて下さい

置簿*

40 돈들이 아니가지고왔스니、이불건갑은、치부히
두시요

41 돈을아니보이니、또한번、지촉하여보시요

高騰*

42 쌀값만차컷지、다른것은、모다、고등하여컷
소

43 에누리 (외누리) 를하면、못쓰오

商店、正直、
安心、商品*

44 최상엿주인은、미우칭직한사람이닷가、안심
하고、상품을살수가잇소

45 가는장소를、볼너라

煙草販賣所*

46 술집가시、술한병사오너라
47 연초판미쇼 (담배가게) 에가시、담배한갑가
키오너라

月終*

48 차던에가시、쌀한섬을되려오라하고、월종체
음을、해주어라

49 관 (푸주간) 에가시、고기한근만、사다주게

生魚*

50 성천장수를、볼너오너라

お金を持つて來なかつたから、この品物の代は
帳面につけて置きなさい

お金を送つて寄さないから、もう一度催促して
見なさい

米代が安くなつた許りで、他のものは、皆高く
なりました

掛値をしてはなりません

あの店の主人は、正直な人ですから、安心して
品物を買へます

行商人を呼べ

酒屋へ行つて、酒一瓶買つて來い

煙草販賣所 (煙草店) へ行つて、煙草一匣持つ
て來い

米屋へ行つて、白米一俵持つて來る様に謂つて
勘定は月末にしてやれ

牛肉屋へ行つて、牛肉一斤だけ買つて來て呉れ

魚屋を呼んで來い

51 반찬가게에가서, 달걀한우렁이와, 김한뿔을

사오너라

52 나무한바리와, 장작한짐을, 밧어오너라

53 커집은, 칠들던이요

54 그엿헤집은, 사기던이요

55 지던이, 어되요

56 기름집은, 어되요

57 쇠스(쇠스)에가서, 국어득본한권사오너라

58 이수형을가지고가서, 돈을, 차키오너라

59 이통장을가지고, 우편국에가서, 돈을차키오

게

60 이모스를, 대금인환으로, 부치라

61 료금이, 얼마나걸니오

62 큰도희디에는, 무역상이만소

63 외국과무역을하라면, 큰스본도필요하나, 더

욱, 상업에, 눈이밝어야하오

64 금년에는, 희삼을만히무역해야, 지나에슈출

*長砵 鐵物塵 沙器塵 紙塵 書肆、冊肆、卷 手形 通帳、郵便局 帽子、代金引 換 料金 都會地、留易 商 外國、資本 必要、商業 海蔘、貿易、支那、輸出

八百屋へ行つて、鶏卵十個と海苔一帖を買つて

來い

柴一駄と割木一支機買つて來い

あの家は、金物屋です

其の隣の家は、瀬戸物屋です

紙屋は何處ですか

油屋は何處ですか

本屋に行つて、國語讀本一冊買つて來い

この手形を持つて行つて、お金を受取つて來い

この通帳を持つて郵便局へ行つて、お金を引出してお出で

この帽子を、代金引換で出して來い

料金が幾ら程かかりますか

大きな都合地には、貿易商が多いです

外國と貿易をするには、大きな資本も必要であるが、殊に商法に明るくなければならぬ

今年(かゝこ)は海蔘を澤山仕入れて、支那へ輸出しませ

*關稅
 *轉入、種類、年々
 *支配人
 *商科大學、出身
 *營業種目、新聞、廣告
 *運賃、船便、車便、安全
 *電報
 *擴張、狹攢、増築
 *純利益
 *保險會社契約
 *利益配當
 *預金
 *決算報告
 *支店

- 65 *關稅는、그리만치안소
 66 *쉬입하는、물건의종류가、년년히、늘어가고
 67 *당신회사의、지배인은、누구요
 68 *상과대학출신이요
 69 *영업종목은、신문에광고합니다
 70 *상품을보낼데、삭(은님)은、만히드나、선
 71 *물건보냈다는、던보들、노(치)시요
 72 *영업이、확장되어、집이협착하니、증축합시다
 73 *순이익이、만소
 74 *보험회사에、계약합니다
 75 *이익배당이、만히되겟소
 76 *은행에、예금도、만습닛가
 77 *결산보고를、하여야하겟소
 78 *지점을、하나늘립니다

關稅は、そんなに多くかかりません
 輸入する品物の種類が、年々増えて行きます
 あなたの會社の支配人は、誰ですか
 商科大學の出身です
 營業種目は、新聞に廣告を出しませう
 商品を送る時、運賃は多くかかるが、船便よりも鐵道便で送るのが安全です
 物品を送つたこと云ふ電報を、打ちなさい
 營業が擴張されて、家屋が狭いから増築しませう
 純利が多いですか
 保險會社に契約しませう
 利益配當が、多くなります
 銀行の預金も、澤山ありますか
 決算報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支店を一つ殖しませう

第十九節 數量・度量衡

籌算

1 이주*가지 (산*가지) 를, 쳐여보시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모도스므개올시다

3 이번은, 손을뚍으면서, 일, 이, 삼, 서로쳐여보아라

4 일, 이, 삼, 소, 오, 륵, 칠, 팔, 구, 십, 십일, 십이, 십삼, 십소, 십오, 십륙, 십칠, 십팔, 십구, 이십, 다쳐엿습니다

5 열, 스물, 그리쳐보아라

6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7 슈효를, 억*만*까지, 계통*덕으로, 말해보시오

この計算箸を、數へて見なさい

(角或は竹にて造れる短き箸にして計算に用ふ)

一つ 二つ、三つ、四つ、五つ、六つ、七つ、八つ、九つ、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皆で、二十でございます

今度は指を折りながら、一、二、三、四と數へて見よ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皆數へました

十、二十コトといふ風に、數へて見よ

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十、百

數を、億まで系統的に、云つて御覽なさい

億萬

8 일, 십, 백, 천, 만처럼, 십진하는 것과 같치

다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만, 이레케

쳐여올나갑니다

9 처음을, 잘하여야, 장수도, 잘할수가잇는것

이오

10 필산틀, 비호섯소

11 네, 좀, 하는척합니다

12 쥬관 (산판) 을, 갖다가, 슈틀노아주세요

13 가감승죄틀, 다, 하실줄압닛가

14 어서, 불너주세요

15 구구틀, 잘하시는구려

16 필육은, 칩척을, 쓰고, 다른데는, 곡척을,

쓰오

17 이필육을, 자로, 재여보시요

18 몇자요

一、十、百、千、萬こいふ風に、十進するの

と同じ様に、更に萬、十萬、百萬、千萬、億こ

こんな工合に數へて行きます

計算がよく出來なければ、商賣も、うまく行き

ません

筆算を學びましたか

はい、少し出來る積りです

珠盤(算盤)を持つて來て、數を置いて(計算

して)下さい

加減乗除が、皆出來ますか

早くん讀で下さい

九々がよく出來ますね(「구구」は計算の意義に

も用ふ)

反物には鯨尺を使ひ、他の物には曲尺を使ひま

す

この反物を物指で、計つて見なさい

何尺ですか

*寢尺、曲尺

*九九

*加減乗除

*珠板、算板

*體

*筆算

明紬、玉洋木

鐵絲、鐵線

根炭

19 스를여덜자아홉치서푼오리오

20 무명、자가웃만、쇠시오

21 명주세필과、옥양목네통만、셔오시오

22 열자를、한길이라하오

23 굵은덜줄 (덜스) 두발반하고、가는덜선、발가웃만、사오너라

24 찻살을、되여보시오

25 두섬엿말닷되오홉구작이요

26 서되만셔서、남쌀밥을지여라

27 벼가、멧침이잇느냐

28 열다섯침이、잇습니다

29 보리한가마니하고、쉬한부대를、드려오시오

30 근탄을、한섬만갓다주시오

31 이술이、멧되요

32 두되닷곰이올시다

33 기름、한복자주시오

二十八尺九寸三分五厘です

木綿一尺五寸だけ下さい

明紬三疋つむぎ、金巾四束だけ買つて來なさい (木綿織には普通「疋」の代りに「束」を用ふ)

十尺を、一丈と云ひます

太い針金を二尋半こ、細い針金を一尋半だけ買つて來い

糯米を、量つて見なさい

二石六斗五升五合九勺です

三升だけ量つて、飯を炊け

粃が何俵あるか

十五俵あります

麥を一呎こ胡麻一袋を、買つて來なさい

根炭を一俵丈け、持つて來て下さい

この酒が何升ですか

二升五合あります

油を一器下さい

鍾*

斤*

原斤、恒用

體重*

兩*

葉錢*

34 한되를사서, 두고두고쓰시오

35 秤을을, 가켜오너라

36 추를, 秤을대에, 외여라

37 秤을받랑에, 물건을업켜라

38 秤을눈을, 잘보아라

39 이것이, 몇근인가, 다려보시오

40 너근달랑엇돈칠푼중이올시다

41 몇랑을, 한근으로치첫소

42 원근은, 스를넉랑중이나, 항용얼몇랑중을,

한근을잡습니다

43 당신데중이, 얼마나되오

44 십륙관오백몬메올시다

45 한랑중은, 십몬메와갓소

46 秤을눈을, 쇠기지말고, 꼭바로다시오

47 엽전은, 지금안쓰니다

(북자는一勺、五勺、一合の種類あり)

一升お買ひになつて、長く置いて、お使いなさい

秤を持つて來い

分銅を、秤の竿にかけよ

秤の皿に、物を載せろ

秤の目盛をよく見なさい

これが何斤あるか、かけて御覽なさい

四斤五兩六錢七分目であります

何兩を一斤として、計算しましたか

一斤は二十四兩ですが、普通十六兩を一斤に勘

定します

あなたの體重は、何程あり か

十六貫五百匁であります

一兩は十匁と同じです

秤の目盛を誤魔化さないで、正しくはかりなさい

い

葉錢は、只今用ひません

銀行、紙幣、
紙錢、金貨

宋安

白銅錢、銅錢

張*

鐵筆

卷*

白紙

箆*

帽子

汽船、隻

48 은^{*}형에 가셔, 이지^{*}폐 (지^{*}천) 를^{*}금화로^{*}바꿔^{*}다
주시요

49 이것을, 잔돈으로^{*}바꿔^{*}주시요

50 미^{*}안합니다^{*}다만은, 바^{*}꿀돈이^{*}업소

51 그러^{*}면, 돈^{*}바^{*}구는^{*}곳에, 가^{*}보아^{*}라

52 은^{*}천, 백^{*}통^{*}천, 동^{*}천을, 다, 석^{*}거^{*}되^{*}려도, 쫓^{*}
: 쫓

켓^{*}습^{*}닛^{*}가

53 관^{*}게^{*}치^{*}안^{*}씀^{*}니다

54 붓^{*}을^{*}한^{*}자^{*}루, 가^{*}져^{*}오^{*}게

55 먹^{*}을^{*}한^{*}장^{*}썩^{*}습^{*}니다

56 털^{*}필^{*}을, 한^{*}따^{*}스^{*}만, 팔^{*}어^{*}주^{*}시^{*}요

57 이것^{*}이, 팔^{*}척^{*}이^{*}거^{*}든, 한^{*}권^{*}삼^{*}시^{*}다

58 백^{*}지^{*}를, 다^{*}섯^{*}장^{*}만^{*}사^{*}오^{*}게

59 석^{*}냥^{*}한^{*}통^{*}와^{*}시^{*}요

60 모^{*}스^{*}한^{*}죽^{*}만, 지^{*}여^{*}주^{*}시^{*}요

61 괴^{*}선^{*}두^{*}척^{*}이, 들^{*}어^{*}와^{*}소

(葉錢は穴のある一文錢なり)

銀行へ行つて、この紙幣を金貨に取替へて來て
下さい

これを細い錢に替へて下さい

お氣の毒ですが、替へる金がありません

それでは、兩替所に行つて見ろ

銀貨、白銅貨、銅貨を取り混ぜて上げて、よ

いでせうか

差支へありません

筆を一本持つて來て呉れ

墨を一挺使ひました

筆を一打だけ、賣つて下さい

この本は、賣るのでしたら、一冊下さい

白紙を五枚買つて來て呉れ

マツチ一袋下さい

帽子を十個、拵へて下さい

汽船が、二隻入つて來ました

瓶* 自動車

朝日、箱子

北魚

櫃、求

桶* 字、式

處理*

62 자동차를, 쳐치만, 불너오시요

63 술한병보내깃습니다

64 김한릇에, 열마요

65 군밤한무덕이, 주시요

66 솟감한덤사왓소

67 ^{*}도일한상즈를, 갖다주시요

68 실한테, 가커오너라

69 나무한단을, 벌치, 다써엿느냐

70 북에스므마리를, 한쾌라하오

71 여괴치, 커괴외지는, 열거름이나되겟소

72 농답을, 천스하겟스니, 다섯케만, 구히주시

요

73 흙을, 두치너삼래기만갖다가, 마당을메여라

74 물을다섯통만, 기려오너라

75 할줄에, 스물다섯스식되는것을, 열줄만썰주

시요

76 오늘, 일을세가지, ^{*}척리하얏소

自動車を三台だけ、呼んで來なさい

酒を一瓶送りませう

海苔一帖、幾らですか

燒栗を一山下さい

串柿百箇買つて來ました

朝日を一箱持つて來て下さい

絲を一束持つて來い

薪一束を、もう皆炊いて仕舞つたのか

乾明太二十四を二一ヶ」に謂ひます

此處から彼處までは、十歩位ありませう

林檎をお土産に送らうと思ふから、五箱だけ求

めて下さい

土を二三箒だけ運んで、庭を埋めろ

水を桶に五つだけ、汲んで來い

一行二十五字語のものを、十行だけ書いて下さ

い

今日仕事を三件處理しました

77 테니스공을, 한개내여라

第二十節 擬聲語

テニスの球を一箇出せ

1 병아리가, 뿡^ㅇ거리며, 어미닭을, 디라단기

오

雛雞がびよびよ鳴きながら、親雞について歩き
ます

2 암락이, 등우리에, 곡, 곡, 곡거리니, 알을

牝雞が埒^ㅇで、ここここここ鳴いて居るが、卵を産

났다보다

んだらしい

3 장닭이, 날개를치며, 위엄^{*}조케, 곡교^ㅇ하고

牡雞が羽搏^ㅇをしながら、威勢よくこけこつこつ

을고잇소

こ、鳴いてゐます

4 새색기가, 어미새를차노라고, 쩍^ㅇ쩍을고잇소

子雀がちうちう囀^ㅇりながら、親雀を探して居り

을고잇소

ます

5 푸른버들가지우에시, 외^ㅇ살이가, 외^ㅇ살, 외^ㅇ살

青い柳の枝の上で、鶯がほうほけきよこ鳴いて

을고잇소

居ます

(朝鮮では「梅に鶯」と謂はず「柳に鶯」といふ)

6 가마귀가, 외^ㅇ막^ㅇ외^ㅇ막(외^ㅇ악^ㅇ외^ㅇ악)을며, 날너

鳥がかあかあ鳴きながら、飛んで行きます

가오

7 산넘어시, 범국이(범국^ㅇ시, 두^{*}전)가, 처^{*}량

山の向ふで、郭公が寂しそくに、かつこつかつ

嚴威

杜鵑、淒涼

滯*

엇을 먹고, 데하얏나냐

20 무엇을 보고, 그리케알살 (얼얼) 웃느냐

21 너 웃는 것을 보닛가, 참우습다, 허, 허, 허,

(하, 하, 하)

22 깃침을, 콜눅, 콜눅, 콜눅 (콜눅, 콜눅) 거리오

23 애기가, 삭, 삭거리며, 잘자오

24 커사람이, 먼길을 갔다 오더니, 코를, 툭, 툭,

(쿨, 쿨) 골고자는 것이, 미우고 단한 모양이오

巡檢*

25 순검이, 득벅, 득벅거리, 이리오네

靑山流水*

26 너는 엇커면, 말이, 그리, 청산류수가치살살

27 배가, 살, 살, 아푸오

28 니에, 무엇이 씨엇거든, 을격, 을격, 양치를

하여라

麵*

29 국수 (면) 를, 흑, 흑먹소

飲食, 飢*

30 씩, 씩, 입맛을 다시면서, 음식을 먹으면, 남

べて中毒あたつたのか

何を見て、そんなにからから笑ふのか

お前の笑ふのを見るこ、本當に可笑しい、は、

は、は

咳せきをこん、こんします

赤ん坊が、すやすやこ、よく寢て居ます

あの人は、遠方へ往つて來たのだが、鼻をぐう

ぐうかいて寢て居るのを見るこ、餘程疲れて居

るやうです

巡查がほかほか(靴の音)歩いて、此方へ來るぞ

お前は、さうして、そんなに言葉が流暢に、す

ら、すらさ出て來るのか

腹がきり、きり痛みます

齒に何か挟まつたら、ごぶごぶ含嗽をしろ

素麵をつる、つる食べて居ます

べちや、べちや舌鼓を打ちながら、食物を食べ

父母*

將校、環刀

册床
霹靂、反對

의 흥을 삼킨다

31 등이가려우니, 박박(복복) 긁어다오

32 길바닥에서, 어린아해가, 영, 영, 울고잇는

것을, 귀의 부모가, 대려갓소

33 무엇을, 그리, 오도독, 오도독(오두둑, 오

두둑) 먹고잇느냐

34 활살나더가는 소리가, 식, 식합니다

35 장교가, 케적, 케적, 환도소리를내며, 안으

로들어오오

36 종의를, 착, 착, 찢켜버리지말어라

37 숯불에, 불을, 켜지니, 불이, 부시시, 꺼지오

38 문을락, 락, 치는 소리가나니, 나가보아라

39 최상을, 주먹으로, 한번락치고, 벌떡, 일어나

드니, 소리를벽력갓치, 질으며, 반대를하얏

40 독에, 물이갓득, 차쳐, 싹금, 싹금, 넘치니,

박아지로, 쫓겨내여라

るこ、人に笑はれるよ

背が痒ゆいから、がりがり搔いて呉れ

道端で小さい子供が、わんわん泣いて居るのを

その親が連れて行きました

何をそんなに、かりかり食べて居るか

弓の矢の飛ぶ音が、ひゅつひゅつこ云ひます

將校ががちや、がちやサーベルの音を立て、

内へ入つて來ます

紙をべり、べり裂いて、捨てはならん

炭火に水をかけたら、火がしゅつこ消えます

門をぎんぎん叩く音がするが、出て行つて見よ

机を拳でぎんこ一ぺん叩いて、つっこ立ち上つ

たこ思つたら、聲を雷のやうに張り上げて、反

對しました

瓮かめに水が一杯になつて、ちよろ、ちよろ溢こぼれて

襪*

瀑布水*

41 장뒤에, 쥐가있는지, 바스럭, 바스럭, 하오
(바삭거리오)

42 시너들이, 샧, 샧흐르오

43 바위틈에서, 시암들이, 졸, 졸흘너나오

44 *뚝포슈, 칼, 칼, 칼, 쏘다 집니다

45 국이 팔팔슬소

46 삭총뚝는 소리가, 호도독, 호도독거리오

47 드레박이, 우물속에, 럽방하키버렸소

48 뺨을, 손바닥으로, 썰격 (썰거리) 따리오

49 주먹으로, 머리를, 쿡 (콧) 쥐여박는다

50 양이, 말났스니, 물을, 짹, 짹, 씹어라

51 밤굽는 소리가, 피피 (푸푸, 픽픽) 나오

52 봄비가, 보슬, 보슬오오

53 말은나무뉘히, 우스스려지오

54 시구두를, 사신엇드니, 뻐각, 뻐각 소리가나

오

55 주머니에서, 돈소리가, 케그럭, 케그럭거리

箆筒の後に鼠が居るのか、ごそごそ云つて居ます (がさがさ云ひます)

たがは 溪川の水が、さらさら流れます

岩の間から、泉がちよろちよろ湧き出ます

瀧の水がごうごうと落ちます

汁がぶくぶく煮立つて居ます

爆竹の音が、ぱちぱち云ひます

釣瓶つるべが、井戸の中へごぶんご落ちました

頬を、掌でぺたんこ叩きます

拳固で、頭をこつんこなぐ殴る

地面が乾いたから、水をちやーく播け

栗を炙る音が、ぶすぶす云ひます

春雨がぱらぱら (ほつほつ) 降ります

枯葉がぱらぱらと落ちます

新しい洋靴を買つて履いたら、きゅつ、きゅつ

と鳴ります

巾着の中で、お金の音がちやら、ちやら云ひま

從容、時計、
鐘、分明

木手

罪人、棍杖

房門

オ

56 대장안에서, 쇠맛치소리가, 득 삭, 득 삭, 나

オ

57 비추를, 씩, 씩 식칼노, 철 고 잇 소

58 방안이 종 용 하 닛 가, 시계의 추 가, 잭 각, 잭 각

거리는 소리가, 더 욱 분 명 히 들 니 오

59 우박이, 후 두 득, 후 두 득 온 다

60 너무더웁더니, 소내기가, 딱, 딱 올 니 다 그 려

61 바람이, 휘, 휘 부 오

62 목수가, 솔 노, 미다지를 홈 을, 삭, 삭 과 고 잇

소

63 바누질감을, 가 워 로, 작, 작 비 고 잇 소

64 죄인의 불기를, 곤 장 으로, 철 각, 철 각 따 린 다

65 채족으로, 말 궁 둥 이 를, 삭 써 리 닛 가, 말 이,

썰다

66 방문을, 락 닷 치 라

す

鍛冶屋から、槌の音がてんかん、てんかん三聞

えます

白菜をざく、ざくこ、庖丁で切つて居ります

部屋が静かなので、時計の振子が、かちく云

ふ音が、一層はつきり聞えます

電がばらく降ります

蒸暑いと思つたら、夕立が、ざざざざやつて來

ましたね

風がひう、ひうこ吹きます

大工が鑿で、障子櫃の渠をみぞこんく掘つて居

ます

着物の地を、鋏でちよまく剪つて居ります

罪人の尻を、棍杖でびしや、びしやこ打ちます

鞭で、馬の尻をびしやり打つたので、馬が跳ね

上がる

戸をきちんこ閉めろ

鉛筆、軟

67 연필이, 연하야, 작구작가도, 득, 득, 부러
지오

지오

68 김군것이, 바삭, 바삭하오

69 슈박을, 어석, 어석먹고잇소

70 장앗지칩는소리가, 아삭, 아삭하오

71 산속에서, 산양꾼총소리가, 탕(탕) 납니다

72 오포소리가, 광납니다

73 북을, 등, 등치며, 광고지를, 헤쳐주고, 가
오

74 학교에서, 상학종치는소리가, 생생늘니오

75 처본원수에서, 광, 광(쌍, 쌍) 증을치오

76 락동소리가, 우루루합니다

77 괴차가, 털교를지나가는소리가, 우루루, 우
루루합니다

78 즈던거가, 따르를, 따르를하면서, 달어나오

自轉車

汽車、鐵橋

天動

西本願寺鐘

學校、上學鐘

廣告紙

午砲

山陽軍

鉛筆が脆くて、幾ら削つてもほきん、ほきん折
れます

海苔を焼いたのが、かさくします

水瓜をざくざく食べて居ます

福神漬を食べる音が、こり、こり云つて居ます

山の奥で、獵師の銃聲が、ずんぞん聞えます

午砲の音が、ざんぞん鳴ります

太鼓をざん、ざん打ちながら、廣告を撒いて
行きます

學校で始業の鐘の音が、ちゃん、ちゃん聞え
ます

西本願寺で、ごーん、ごーん鐘を鳴します

雷の音が、ごろごろと鳴ります

汽車の鐵橋を渡る音が、ごーごー云ひます

自轉車がちりん、ちりん云はせながら走りま
す

自動車

電車

79 자동차가, 사람을 빙키라고, 붕, 붕소리를,

내오

80 던차가, 사람더러, 일핀타라고, 생생거리오

第二十一節 擬客語

1 무슨우슨것을, 보았는지, 빙글, 빙글웃고잇

소

2 산독기가, 쌍총, 쌍총뛰여, 산으로, 을너간

다

3 흰구름이, 뭉게, 뭉게피여올음오

4 배를, 턱내밀고, 잘난척하고서잇소

5 인력거에, 쌍칭(쌍총)타올으시오

6 성이나치, 불손, 불손말을하오

7 날이느적가니, 숨실, 숨실거리시는, 아니된

다

8 일을, 늘신, 늘신하는것은, 보기실타

自動車が人を退ける爲め、ぶう、ぶう鳴らしま
す

電車が人に速く乗る様に、かんく鳴らして居
ます

何か可笑しいものを見たこ見えて、にこにこ笑
つて居ます

野兎がびよん、びよん跳んで、山へ上つて往き
ます

白い雲が、もくもく立ち上ります

腹をぐつこ出して、偉さうに立つて居ります

人力車に、ひよいこ乗りなさい

腹を立て、ぶつぶつ云つて居ります

日が暮れさうだから、のらくらして居てはなら
ん

仕事をのろのろして居るのは、見つこもない

下人

- 9 먼길은, 노력, 노력가야, 다리가, 압호지안 소
- 10 죄하인은, 발악스럽게, 일늘하오
- 11 키가, 혈척 (활신, 혈신) 크오
- 12 일늘, 똑잘한다
- 13 엄병덤병한사람이닛가, 밋을수업소
- 14 여괴덤척, 죄괴덤척하는사람은, 남에게, 뭘
을을맞는법이다
- 15 휘득, 휘득한놈이로구나
- 16 어쇠가자, 무엇늘, 그리두리번, 두리번하느
나
- 17 즐을, 휘, 휘 (칭칭) 감아쳐, 잡아당겨라
- 18 화를내다가, 마음을홀척, 돌녀쳐, 허, 허웃
는다
- 19 팔늘, 쓱내밀어라
- 20 밤안그릇을, 괴눈감쳐듯이, 털늘 (늘늘) 먹
어버린다

- 遠い路は、ゆるゆるこ歩かなければ、足が疲れ
ます
- あの召使は、こまめに仕事をよくします
丈が、すらつこして居ます
- 仕事をきちんこ、よくします
- あやふやな人だから、信用が出来ません
- こつちでお茶を濁し、あつちでお茶を濁して
居る者は、人に嫌はれるものだ
- 劍呑な男だね
- 速く行かう、何をそんなに、もぢ、もぢして居
るのか
- 繩をくる、くる (きりきり) 卷いて、引つ張れ
- 怒つて居たが、心をがらつこ變へては、こ笑ふ
- 腕をぬつこ (にゆつこ) 出せ
- 一杯の飯を、蟹が目を隠すやうに、ぺろつこ食
べて仕舞ふ

飲食*

21 너무음식을, 위역, 위역 먹지 말아

22 담배를, 썩, 썩, 빨며, 무슨생각을하고있다

23 로인이, 양디착에안취서, 담배연기를, 필석

필석니고잇소

怯*

24 겁이나서, 가슴이, 두근, 두근한다

25 손을비여서, 피가, 줄, 줄나온다

軍樂隊*

26 군악대가, 떼를지여, 느리, 느리 (졸졸히) 가오

27 요사히는, 스긏, 스긏하게칩소

28 가셔, 부득, 부득 졸나야하오

29 다리가, 압하셔, 절룩, 절룩하고, 겨우걸어

셔, 갓습니다

醉、橫說堅設

30 술에취해셔, 횡설수설하게말고, 술이깨거든 말하시오

31 밤에오다가, 호방을, 쓱싹쓱소

32 허둥지둥하지말고, 차근차근말하게

あんまり、食物をむしや、むしや食ふな

煙草をぶかり／＼呑みながら、何か考へて居る

老人が日向ひなたに坐つて、煙草の煙をすほかりほかり出して居ます

恐しくて、胸が悸どき々します

手を切つて、血がだらだら出て来る

樂隊が隊を組んで、ぞろぞろと行きます

この頃の寒さは、ぞくぞく、ぞくぞく、寒いです

行つて、飽くまで、催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脚が痛くて、ひよこり、ひよこり、ひよこり、漸く歩いて

行きました

酒に酔つて管を巻いて居ないで、酔が醒めてから、お話しなさい

夜中來る途中で、泥の中(或は溝の中)へ脚が

ずぶつと陥はまりました

周章しゅうしょうて、言はないで、着落いて物を云ひ給へ

33 열◦김◦덤◦김◦에◦, 만◦히◦잘◦먹◦었◦소

34 밧◦삭◦잡◦아◦던◦겨◦라

35 집◦땡◦이◦로◦, 쿡◦실◦너◦라

36 새◦가◦오◦거◦든◦, 돌◦을◦, 락◦던◦커◦셔◦, 쫓◦차◦라

37 도◦장◦을◦, 싹◦싹◦썩◦어◦라

38 이◦근◦초◦로◦, 어◦경◦어◦경◦하◦고◦잇◦섯◦다◦하◦오

39 공◦연◦히◦, 우◦득◦커◦니◦, 쇠◦잇◦지◦말◦고◦, 불◦이◦나◦길◦어

오◦게

40 이◦류◦리◦그◦릇◦을◦, 다◦치◦지◦안◦토◦록◦, 선◦반◦에◦, 살◦작◦

집◦어◦연◦지◦시◦오

41 충◦, 충◦, 충◦, 충◦, 충◦, 급◦히◦걸◦어◦가◦오

42 네◦가◦, 왜◦, 헐◦덕◦헐◦덕◦하◦니

43 어◦제◦밤◦에◦, 술◦을◦만◦히◦먹◦었◦드◦니◦, 목◦이◦킬◦킬◦하◦오

44 성◦미◦가◦, 팔◦팔◦하◦야◦, 아◦주◦, 참◦을◦성◦이◦업◦소

45 사◦람◦이◦, 착◦착◦하◦야◦, 사◦필◦만◦하◦오

この時ぞこ許り、澤山食べました

うんこ引つぱれ

杖でほーんこ突け

雀が來たら、石をほーんこ抛つて追へ

印をぺたぺた擦せ

此の邊をうろ、うろして居つたさうです

たゞぼんやりこ立つて居ないで、水でも汲んで

お出で

この硝子器を壊さないやうに、棚の上へそつこ

載せて置きなさい

こつこゝ急いで、歩いて行きます

お前は、なぜはあはあ云つてるか(息切れる)

昨夜酒を澤山飲んだら、咽喉がからから渴いて

居ます

性質がきよこ、きよこして居つて、少しも根氣

がありません

てきはきして居るから、交際してよい人です

性*

琉璃*

空然*

近處*

圖章*

速*

46 질질 끌지 말고, 세음을, 속히 해주시오

47 뒤에 잇는 사람을, 말이, 핵 찿소

48 남의 억개를, 축치며, 말을 하오

49 좁은 언덕우에 서, 밋출나려다 보닛가, 쟁신이

앗득, 앓득 하오

50 커릭케, 커단놈이, 썬썬하게 노느냐

51 철닝철닝 거러 갔소

52 거름이 재쳐, 벌쳐, 커기를, 번적 가 버렸소

不平*

53 무슨, 불평이 잇는지, 울근불근 하 고 잇소

54 웨그리, 벌떡벌떡 잡바지느냐

55 안쳐서, 우박, 우박 조을고 잇소

56 찬옷을 남으닛가, 선득, 선득 하오

57 덩심뻬가 되닛가, 속이, 출출 하오

58 뉘새가, 들큰 들큰 나 오

59 요가 푸근 푸근 하오

點心*

精神*

다라다라引張らないで、勘定を速くして下さい

後ろに居る人を、馬がびん。蹴りました

入の肩を、ほん。叩いて、物を云ひます

高い崖の上から下を見下ろしたら、目がくらく

らします

あんな大きな奴が、のめ。のめ。(をめをめ)に遊

んでゐるのか

の。その。そ歩いて行きました

脚が速くて、もう彼處をすつ。往つて仕舞いま

した

何か不平があるぞ見えて、ぶん。ぶんして居ます

何故そんなに、す。こん、す。こん倒れるのか

坐つてこくりこくり居眠をして居ます

冷い着物を着たら、ひやひやします

晝飯時になつたので、お腹がぺこぺこです

臭ひがぶん。ぶんします

蒲團がぶくぶくして居ます

大砲* 簇*

軟柿*

工場、煙氣* 煙筒、

燈皮*

60 대포*는 옆에 잇섯더니, 귀가, 먹*먹*하다
 61 붓의*촉이 길어서, 흐*느*흐*느* (불*녕*불*녕*) 하오
 62 참새가, 담우로, 훌*작*날*너, 올라안즈오

63 나무*가지가, 바람에 불*너*쳐, 흔*들*흔*들*하오
 64 연*시가, 불*큰*불*큰*하니 실*소
 65 멧*떡이*철*어서, 우*수*수*하오

66 이것은, 적*분*, 적*분*하야, 먹*기*좃*소

67 배가, 대*풍*대*풍*달*너*잇*소

68 나무*쪼*각이, 등*실*, 등*실*떠*나*가*오

69 공장*연*통에서, 식*점*은*연*괴*가, 무*력*무*력*나*오
 오

70 등*피*를, 던*컷*드*니, 산*산*조*각*에, 낫*습*니다

71 콩이*즐*즐*쏘*다*진*다

72 독*집*이가, 눈*을*삼*박*삼*박*하*고*잇*소

73 불*이, 휘*휘*, 타*오

大砲を打つ側に居たら、耳かがーんこした
 筆の先が長くて、ぐにやぐにやします
 雀が垣根の上に、ぴよんこ飛び上がつて止りま
 す

木の枝が風に吹かれて、ゆらゆらして居ます
 軟柿がめそめそして居るから、厭だ
 粳米の餅が半蒸しのなので、ほろほろして居ま
 す

此れは、こりこりして居つて、齒切が宜しいです

梨がぶらぶらぶら下がつて居ます

木切れか、ぶくぶく浮いて行きます

工場の煙突から、眞黒な煙がむくむく出て來ま
 す

ほやを投げましたら、粉微塵になりました

豆がばらばらこ漏れる

藁が、目をばちくりさせて居ます

火がぼうぼう燃えます

東*

74 : 먼동이, 환히 떠오다

75 날이, 환하게 밝았다

76 번개불이, 번쩍번쩍하오

77 돛아오는별이, 반짝반짝하오

78 고기잡는배의, 등자불이, 삼박삼박하오

燈臺* 燈臺*

79 등대의불이, 번쩍번쩍하오

80 날이, 활짝개었소

81 눈이, 푹푹온다

82 처늘한바람이, 슬슬부오

只今、平垣

83 지금길은, 평한하나, 네컨길은, 울릉볼릉하

엇섯습니다

梅花*

84 매화가, 드문드문피어나오

85 보재기를, 활짝피라

86 거루배가, 바다우에, 등실등실(등실등실)

떠잇소

發行機、空中*

87 비행기가, 공중으로, 훨훨날니단기오

東の方が、ほのぼののこ明けて來た

夜が、すつかり明渡つた

稻妻がぴかぴか光ります

有明の星が、きら、きらして居ます

漁船の燈火が、ちらちらします

燈臺の火が、ぴかりぴかり光ります

天氣がからつこ晴れました

雪が、ちら、ちら降ります

涼しい風が、そよそよ吹いて來ます

今の路は平坦ですが、昔の道路はでこぼこでありました

梅の花がちらほら咲き初めました

風呂敷をふわりと擴げろ

小舟が海の上に、ゆらりゆらり浮いて居ます

飛行機が、空中をふわり、ふわりと飛び廻ります

88 무를, 토막토막썰러라

89 몬지가, 솔솔내려온다

90 더진데가, 솔솔풀어지오

91 쇠켜기에, 갈갈이낫습니다

92 널이, 바람에불너서, 덜컹잡바켓소

93 옷이헐어서, 찰찰하오 (착착지켜지오)

94 단풍남사귀가, 바람에, 팔팔날너떠러지오

95 괴밭이, 바람에, 팔팔날니오

96 구경꾼이, 뛰뛰뛰뛰모여드오

97 여러사람이, 왓작모여드오

98 징검다리틀, 띄엄띄엄노와소

99 광고지를, 남의벽에, 할부로, 킷킷킷붓치

지말아

100 련끗치, 활작띄엿소

101 여러날걸너서, 만든것이, 엿지, 이리엿성하

나

大根をづたづたに刻め

埃が、ほうほう落ち、來ます

綻ほこほびがずるずるほとこ解けます

引裂いたもんですから、切切まれくになりました

板が風に吹かれて、ばたんこ倒れました

着物が古くなつて、ぼろぼろこ裂けます

紅葉が風に吹かれて、ばらばらこ散ります

旗が風に、ひら、ひらこ翻つて居ます

見物人が、ごんごん集つて來ます

色々な人が、ぎやぎや集つて來ます

飛石橋が、飛び飛びに置いてあります

(淺き川を渡る爲に置きたる石なり)

廣告を人の家の壁に、無暗にべたべた貼つては

ならぬ

蓮の花が、ぱつこ開きました

幾日も、か、つて造つたものが、ごうして、こ

んなに拙まういのか

丹楓

旗

求景軍

廣告紙、壁

蓮

連*

西洋鐵

閑*

102 술밧이, 부격부격괴오

103 장마가척시, 미일, 비가, 줄줄(죽죽, 죽죽, 작작)런해오오

104 그리케, 나폴나폴깃거리지말아

105 쇠양철(싱철)이, 얹아시, 쌀다쌀다한다

106 박아지가, 뒤릉뒤릉(흔들흔들)달녀잇소

107 훌죽(훌죽, 훌죽)한사람은, 옷님은모양이

108 잇소

살이, 뭉쿨, 뭉쿨(뭉실뭉실, 푹실푹실, 푹

실포실, 쑹쑹, 통통)하오

109 죄사람은, 미우, 똥똥(통통)하오

110 손에, 엇이뭇어시, 안적안적하오

111 해바락이가, 날노쑹쑹자라나오

112 죄사람은, 한가하길내, 죄러케, 어슬렁어슬

113 녀단이지요

114 컷꼭지가, 쑹(쑹)나와소

뺨곰이, 쑹(쑹)들어갓소

酒めけの母もとが、ぶつぶつぶつぶつこ發は酵じょうします

梅雨つゆになつて、毎日雨あめがあめああ降ふり續つきます

そんなに、ぺらぺらしやべつてはならぬ

ブリキ板いが薄うくて、ぺこぺこして居ゐます

瓢箪ひょうたんがぶらぶらぶらぶらこさがつて居ゐます

すらりこした人は、着物きものの着榮きはがはします

肌かわがだぶだぶだぶだぶ(でぶでぶ)肥ちつて居ゐます

あの人は、非常ひじょうにががつしりして居ゐます

手に飴あめがくつ付ついて、ねばねばねばねばします

日廻草ひまわりが、日一日ひひここずんずん育はちます

あの人は暇ひまだから、あんなにぶらぶらぶらぶら歩あき廻まる

のでせう

乳首ちちうぶが、ほちつこほちつこ出でて居ゐます

臍へそがぺこつこぺこつこ凹へんで居ゐます

三二五

兵丁*

- 115 오줌을, 질질 (졸졸, 질금질금) 차오
- 116 어린아해가, 오줌을살살 (찰찰) 차고잇소
- 117 락이썩 (썩) 나왔소
- 118 병딩이, 득벅득벅거리오오
- 119 핑구 (핑이) 가, 핑핑돈다
- 120 바람기비가, 뱅뱅돈다

第二十二節 俚 諺

功、塔*

- 1 열길물속은알아도, 한길사람의속은, 모른다
- 2 구슬이세말이라도, 꿰여야보이지
- 3 공든탑이, 문혀지랴
- 4 물이가야, 비가오지
- 5 붓도막에소곰도, 집어녀야짜다
- 6 급하면, 바늘허리미여쓰나

小便をたらたら垂れて居ます
 幼い子供が、小便をしあしあ垂れて居ます
 顎がぬつこ出て居ます
 兵士がごかりごかり歩いて居ます
 獨樂がくるくる廻る
 玩物の風車がくるくる廻る

十尋ひろの水の底は分つても、一尋ひろの人の心は分
 らぬ
 珠が三斗あつても、糸を通してこそ寶なる
 念入れて造つた塔は倒れず
 水流れてこそ、舟も通へ
 竈かまどのすぐ上にある鹽も、こつて釜に入れなけり
 や鹽氣が出ぬ
 急ぐからこ云つて、針の真中に糸を結び付けて
 縫へるか

急*

精神*

7 콩심는데에콩나고, 팥심는데팥난다

8 :범의게블녀가도, 청신만차려라*

9 잠을자야, 꿈을꾸지

煙氣*

10 벼지안은은글뒤에, 연그날가*

11 우불과도, 한우불과라

醬油*
大豆で作る

12 팥호로, 메주를순다하야도, 고지듯는다

主人*

13 개색기도, 주인늘보면, 쇼리를친다*

14 말일코, 외양간긔친다

15 모난돌이, 쟁맛는다

16 벼슬은답하가고, 뜻은나커가라

兩主*

17 량주차홍은, 칼노블베기다*

白紙張*

18 백지장도, 맛들어야, 나호리라*

19 곳은다에, 들핀다

20 :아는길도, 들어가라

大豆を播いた所に大豆が出来、小豆を播いた所に小豆が出来る

虎に啣えられて行きながらも、氣だけは確かに持て

寢れやこそ、夢を見る

焚かない煙突に、煙が出るか

井戸を掘るにも、一つ井戸を掘れ

小豆で、醬油の原料を造るもと云つても、信用ほんとにする

犬の子も主人を見るこ、尾を振る

馬を失つて、厩を修繕する

角かどある石は、鑿で打たれる

官は高かれ、志は低かれ

夫婦喧嘩は、庖丁で水を切るやう(すぐ直る)

白紙も二人で擧ぐれば、猶軽い

地堅ければ、水溜る

知つてる道も、聞いて往け

牛耳誦經

始作、半

房

蔭地、陽地

走馬加鞭

限

芥子

地龍

21 우이송경

22 시작이반이다

23 방안에쉬, 큰말한다

24 음지도, 양지된다

25 닷는말예, 치질한다 (주마가편)

26 언밭에, 오줌누기

27 고리차흙에, 시우등터진다

28 소경이, 키천만나무란다

29 자는범의, 코를치르기

30 중이, 케머리못악는다

31 셋어가는출도, 한이잇지

32 니칼도, 남의칼집에너흐면, 쟁기어렵다

33 울며, 겨자먹기

34 디룡이도되되면, 쓸커거린다

35 남의턱으로, 설지낸다

36 손톱에든가시는알아도, 염등에쉬스는즐은모
른다

牛の耳に經を讀む(馬の耳に念佛)

始めれば半分出來たも同じ

部屋の中で大きな言を云ふ(蔭辨慶)

日蔭も日向ひになる

走る馬にも鞭を加ふ

凍つた足に小便(姑息の處置)

鯨の喧嘩に、海老の脊が裂ける(側杖)

盲目が溝を吐る

眠て居る虎の鼻を突つつく

坊主が自分の頭を剃れない

伸びて行く蔓も限りあり

我が劔も、他人の鞘に挿せば抜き難い

泣きながら、芥子を食ふ

蚯蚓も踏めば蠢く

他人の餅で、正月をする

爪に立つた刺の痛みは感じてても、心臓に湧く蛆
は分らぬ

黃*
毛

- 37 어린아히말도, 귀담어들어라
- 38 세살씩버릇시, 여든외시간다
- 39 하로개아지, 범무치은줄모른다
- 40 기소리삼년에, 항모못된다
- 41 슬개도오리면, 썩을잡는다고

第二十三節 字 劃

字、人扁

- 1 (仁) 「어질인」 ㅅ는인변에 「두이」 ㅅ를쓰니다
- 2 (元) 「웃듬원」 ㅅ는두이밋헤 「어진사람인」 ㅅ를쓰니다
- 3 (全) 「순진할전」 ㅅ는 「들입」 밋헤 「임금왕」 ㅅ를쓰니다
- 4 (乘) 「두두당길미」 ㅅ는 「민관머리」 아리에 「쌀미」 ㅅ를쓰니다
- 5 (冲) 「김흠중」 ㅅ는이슈변에 「가운대중」 ㅅ를쓰니다

幼い子の言葉も、耳傾けて聞け
 三歳の癖八十まで残る
 生れたての子犬は、虎の恐しさを知らぬ
 犬の尾は三年經つても、鮎の尾にならぬ
 薦も年を経れば雉を捕るこか

仁の字は、人扁に二の字を書きます

元の字は、二の字の下に儿の字を書きます

全の字は、人の字の下に王の字を書きます

乘(めくりゆく)の字は、「坎ムリ」の下に米の字を書きます

冲(おき)の字は、二水扁に中の字を書きます

案席*

6 (凱) 「차홀의인풍투기」 또는 「엇지기」 艸
「안석계」 艸를 씹니다

7 (到) 「이를도」 또는 「이를지」 艸
「선갈도」 艸를 씹니다

8 (助) 「도을조」 또는 「도차」 艸
「힘력」 艸를 씹니다

9 (匡) 「바들망」 또는 「터진입구안」 에 「남음
왕」 艸를 씹니다

10 (卦) 「덤과과」 는 「홀가」 艸
「덤복복」 합니다

11 (厓) 「언덕애」 또는 「임동길의」 「홀가」 艸를
씹니다

12 (去) 「갈거」 또는 「홀토」 「밋해」 「마늘모」 艸
를 씹니다

13 (吉) 「길할길」 또는 「선비스」 艸
「아래에」 「길구」 를 씹니다

14 (咏) 「노래할영」 또는 「입구변의」 「길영」

凱의字は、豈の字の傍に几の字を書きます

到(いたる)の字は、至の傍に立刀を書きます

助(たすける)の字は、且の字の扁に力の字を書きます

匡(たす)の字は、匚の中に王の字を書きます

卦(うらなひ)の字は、圭の傍に卜の字を書きます

厓(がけ)の字は、厓垂に圭の字を書きます

去(さる)の字は、土の下にム(それがし)の字を書きます

吉の字は士(さむらひ)の字の下に口を書きます

咏(うたふ)の字は、口扁に永(ながし)

- 15 (固) 「구들고」 또는 큰입구안에 「에고」
- 16 (埴) 「찰흙치」 또는 흙토변에 「고들적」
- 17 (壬) 「부방임」 또는 셋치고 「천비스」

- 18 (多) 「만홀다」 또는 「적녁석」 또는 들을 씹니다
- 19 (太) 「클래」 또는 「큰대」 또는 밋해 덩을 씹음니다

- 20 (好) 「조홀호」 또는 「계집녀」 변에 「아들즈」
- 21 (字) 「글자즈」 또는 관머리아래에 「아들즈」
- 22 (射) 「쓸샤」 또는 「몸신 열해」 「마되촌」
- 23 (少) 「젊을쇼」 또는 「작을쇼」 또는 밋해, 한획 셋칩니다

- 24 (居) 「살거」 또는 「죽엄시」 밋해 「네고」
- 25 (峨) 「산남홀아」 또는 「되산」 변에 「나아」
- 26 (帳) 「회장장」 또는 「슈건건」 변에 「긴장」
- 27 (床) 「상상」 또는 「엄호」 밋해 「나무목」

固 (かたし) の字は、圍カコヒの中に古(いにしへ)埴シヨク(ねばつち)の字は、土扁ツチヒラに直(ただし)王ジシ(みづのえ)の字は、一つはねて、士(さむらひ)

多タの字は、夕タの字を二つ書きます
太タイ(ふこし)の字は、大の字の下に點を打ちます

好カウ(このむ)の字は、女扁メヒラに子

字の字は「ウカンムリ」の下に子射シヤ(いる)の字は、身の横に寸

少の字は、小の字の下に一劃はねます

居キヨの字は、尸シ(しかばね)の下に古(いにしへ)

峨ガ(たかし)の字は、山扁ヤマヒラに我(われ)帳チャウ(さばり)の字は、巾チン(てぬぐひ)扁ヒラに長(ながし)

床シヤウ(ここ)の字は、广マタレの下に木

28 (引) 「당길인」 𠄎는 「활궁」 변에 ㄴ리 ㄹ입니다
 29 (彫) 「색일도」 𠄎는 「두루쥬」 𠄎엮 ㅎ 세 ㅅ 칩니다

30 (彷彿) 「비슷할방」 𠄎는 ㄴ쥬인 변에 「모방」

31 (付) 「해아릴촌」 𠄎는 심 방 변에 「마 되촌」

32 (戰) 「차홍천」 𠄎는 「호단」 엮 ㅎ 「창과」

33 (扇) 「부채천」 𠄎는 「지게호」 아 래 「깃우」

34 (技) 「재조기」 𠄎는 지 방 변에 「지랑지」

35 (敏) 「민첩할민」 𠄎는 「미양미」 엮 ㅎ 「등걸」

36 (斑) 「아롱질반」 𠄎는 「임금왕」 두 스 사 이에 「클월문」

37 (料) 「거리료」 𠄎는 「쌀미」 변에 「말두」

38 (斯) 「이스」 𠄎는 「그기」 변에 「날근」

39 (於) 「어조사어」 𠄎는 「모방」 변에 「사람인」

하고 두 점 씩읍니다

引 (ひく) 字は、弓扁に一劃引きます

彫 (ほる) の字は、周 (めぐる) の字の傍に三

つはねます

彷彿 (さもにたり) の字は、行人扁に方 (かた)

付 (おもふ) の字は、立心扁に寸

戰 (たたかひ) の字は、單 (たさへ) の傍に 戈 (ほこ)

(ほこ)

扇 (おほぎ) の字は、戶 (こ) の下に羽 (はね)

技 (わざ) の字は、手扁に支 (ささへ)

敏 (はやし) の字は、每 (つね) の傍に 文

斑 (まだら) の字は、王の字二つの中に 文 (ふ

み)

料 (かず) の字は、米扁に斗 (こます)

斯 (これ) の字は、其扁に 斤

於 (おける) の字は、方 (かた) 扁に 人 を 書い

て二つ點を打ちます

40 (旭) 「해살치밀옥」 ㅅ는 「아홉구」 ㅅ 옆에 「날일」

41 (明) 「밝을명」 ㅅ는 「날일」 변에 「달월」

42 (材) 「재목재」 ㅅ는 「나무목」 변에 「재조재」

43 (欣) 「깃볼흔」 ㅅ는 「날근」 변에 「합홀홀」

44 (正) 「바를칭」 ㅅ는 「한획건밋헤」 「스칠지」

45 (毗) 「쌀을비」 ㅅ는 「밭천」 변에 「비할비」
몸동이합니다

46 (毬) 「끼기구」 ㅅ는 「러럭모」 변에 「구할구」

47 (池) 「못지」 ㅅ는 삼수변에 「이기야」

48 (炊) 「불셀취」 ㅅ는 「불화」 변에 「합홀홀」

49 (烈) 「빛날렬」 ㅅ는 「벌렬」 밋헤 닷덥씩읍니다

50 (牧) 「기를목」 ㅅ는 「소우」 변에 「등결문」

51 (狗) 「개구」 ㅅ는 「개사승늑」 변에 「글귀구」

52 (珠) 「진주쥬」 ㅅ는 「임금왕」 변(구슬우변)에 「부일주」

旭(あさひ)の字は、九の字の傍に日

明の字は、日扁に月

材の字は、木扁に才

欣(よろこぶ)の字は斤の扁に欠(あくび)

正の字は、一劃の下に止(こまる)

毗(あきらか)の字は、田扁に比(くらぶ)の旁です

毬(まり)の字は、毛字に求(もこむ)

池(いけ)の字は、三水扁に也(なり)

炊(たく)の字は、火扁に欠(あくび)

烈(はげし)の字は、列の下に四つ點を打ちます

牧(まき)の字は、牛扁に父

狗(いぬ)の字は、小鹿扁に句(くぎり)

珠(たま)の字は、玉扁に朱(あか)

53 (瓢) 「박표」 𠄎는 「표。할。표」 𠄎 𠄎 𠄎 「오。이。과」

54 (病) 「알흘병」 𠄎는 「병。질」 𠄎 𠄎 「남。덕。병」

55 (皎) 「달밝을교」 𠄎는 「회。백」 𠄎 𠄎 「사。결。교」

56 (盃) 「잔배」 𠄎는 「아。니。불」 𠄎 𠄎 「그。릇。명」

57 (皺) 「주글어질추」 𠄎는 「살。추」 𠄎 𠄎 「가。죽
피」

58 (盼) 「돌아볼반」 𠄎는 「눈。목」 𠄎 𠄎 「나。늘。분」

59 (矜) 「자랑할궁」 𠄎는 「세。모。진。창。모」 𠄎 𠄎 「이。제。급」

60 (知) 「알지」 𠄎는 「살。시」 𠄎 𠄎 「입。구」

61 (砲) 「돌쇠뢰포」 𠄎는 「돌。석」 𠄎 𠄎 「살。포」

62 (社) 「복지」 𠄎는 「보。일。시」 𠄎 𠄎 「식。칠。지」

63 (科) 「과청과」 𠄎는 「벼。화」 𠄎 𠄎 「말。두」

64 (穹) 「높은궁」 𠄎는 「구。명。혈」 𠄎 𠄎 「활。궁」

65 (站) 「역마을참」 𠄎는 「철。림」 𠄎 𠄎 「덤。철」

瓢 (히사)의 字는, 粟 (시러시)의 字의 傍に

瓜 (우리)

病 (야마히)의 字는, 病垂의 下に 丙 (히의え)

皎 (키요시)의 字는, 白扁に 交 (마지하러)

盃 (사카즈키)의 字는, 不 (아라즈)의 下に 皿

(사러)

皺 (시와)의 字는, 芻 (마구사)의 字의 傍に 皮

(카와)

盼 (카헤리미러)의 字는, 目扁に 分 (와케러)

矜 (호코러)의 字는, 矛 (호코)扁に 今

知 (시러)의 字는, 矢扁に 口

砲 (오호즈つ)의 字는, 石扁に 包 (つつむ)

社 (さい히)의 字는, 示扁に 止 (こまる)

科 (시나)의 字는, 禾扁に 斗 (こます)

穹 (타카시)의 字는, 穴의 下に 弓 (ゆみ)

站 (히사しくたつ)의 字는, 立扁に 占 (うらな

덤

- 66 (竿) 「낙시대간」 𪛗는 「대죽」 𪛗헤 「방패간」
- 67 (精) 「청할청」 𪛗는 「쌀미」 𪛗에 「푸를청」
- 68 (紙) 「조희지」 𪛗는 「실소」 𪛗에 「각씨시」
- 69 (粘) 「암양고」 𪛗는 「암양」 𪛗에 「넝고」
- 70 (習) 「익힐습」 𪛗는 「깃우」 𪛗헤 「회빅」
- 71 (耕) 「갈경」 𪛗는 「장기뢰」 𪛗에 「우물청」
- 72 (聞) 「들을볼」 𪛗는 「문문」 𪛗에 「귀이」
- 73 (胞) 「래보포」 𪛗는 「달월」 𪛗에 「쌀포」
- 74 (舅) 「시아비구」 𪛗는 「절구구」 𪛗헤 「사내 남」
- 75 (舍) 「집사」 𪛗는 「사람인」 𪛗에 「혀철」
- 76 (舫) 「쌍배방」 𪛗는 「배쥬」 𪛗에 「모방」
- 77 (英) 「잇썩리영」 𪛗는 초도아래에 「가온대양」
- 78 (虹) 「무지개홍」 𪛗는 「버레충」 𪛗에 「징인 공」
- 79 (衙) 「마을아」 𪛗는 「덩길형」 「사이에」 「나오」

ふ

- 竿 (さお) の字は、竹冠の下に干(たて)
- 精 (くはしい) の字は、米扁に青
- 紙 (かみ) の字は、糸扁に氏(うち)
- 粘 (めひつじ) の字は、羊扁に古(いにしへ)
- 習 (ならふ) の字は羽の下に白
- 耕 (たがやす) の字は、耒扁に井(ゐぎ)
- 聞 (まぐ) の字は、門構に耳(みみ)
- 胞 (えな) の字は、肉月扁に包(つつみ)
- 舅 (しうこ) の字は、白(うす)の下に男(をこ)
- 舍 (やぎ) の字は、人の下に舌(した)
- 舫 (ふね) の字は、舟扁に方(かた)
- 英 (はな) の字は、草冠の下に央(なかば)
- 虹 (にじ) の字は、虫扁に工(たくみ)
- 衙 (やくしよ) の字は、行の字の中に吾(われ)

80 (被) 「 입을 피 」 ㅅ는 「 옷 의 」 변에 「 가죽 피 」

81 (觥) 「 클 광 」 ㅅ는 「 설 각 」 변에 「 빛 광 」

82 (訓) 「 가 라 칠 훈 」 ㅅ는 「 말 승 언 」 변에 「 너 천 」

83 (駭) 「 콩 자 반 시 」 ㅅ는 「 콩 두 」 변에 「 지 탕 지 」

84 (賦) 「 구 실 부 」 ㅅ는 「 즈 기 때 」 변에 「 호 반 무 」

35 (赫) 「 빛 날 혁 」 ㅅ는 「 불 을 혁 」 을 두 스 씩 니 다

86 (超) 「 뛰 어 넘 을 초 」 ㅅ는 「 다 라 날 쥬 」 ㅅ 밧 침 에 「 부 를 소 」 합 니 다

87 (跡) 「 자 취 척 」 ㅅ는 「 발 족 」 변에 「 또 역 」

88 (軀) 「 몸 구 」 ㅅ는 「 몸 신 」 변에 「 구 역 구 」

89 (輅) 「 오 로 차 로 」 ㅅ는 「 수 레 거 」 변에 「 각 각 각 」

90 (道) 「 길 도 」 ㅅ는 「 머 리 수 」 ㅅ 밧 헤 착 밧 침 합 니 다

91 (郡) 「 고 을 군 」 ㅅ는 「 임 군 군 」 ㅅ 엽 헤 부 방 을 합 니 다

92 (酸) 「 실 산 」 ㅅ는 「 달 기 유 」 변에 「 준 결 준 」

ㅅ 밧 침 이 들 합 니 다

被 (きる) の字は、衣扁に皮(かわ)

觥 (おほし) の字は、角扁に光(ひかり)

訓 (おしふ) の字は、言扁に川(かは)

駭 (なそ) の字は、豆扁に支(ささえ)

賦 (みつぎ) の字は、貝扁に武(たけし)

赫 (かがやく) の字は、赤を二つ書きます

超 (こす) の字は、召の下に走(はしる)

跡 (あと) の字は、足扁に亦(まだ)

軀 (からだ) の字は、身扁に區(さかひ)

輅 (車の前のよきぎ) の字は、車扁に各(おのおの)

道 (みち) の字は、首(くび)の下に辵(しん

にう)

郡 (こほり) の字は、君の傍に邑(おほさこ)

酸 (すし) の字は、酉の扁に俊の字の旁(つくり

ます

- 93 (錦)「비단금」또는「쇠금」변에「김박」
 94 (陣)「진칠진」또는「부방변에」수레거」
 95 (集)「모들집」또는「식추」밋헤「나무목」
 96 (露)「이슬로」또는「비우」밋헤「길로」
 97 (靴)「목화화」또는「가족혁」변에「뿔화」
 98 (鞞)「질길인」또는「가족위」변에「칼날인」
 99 (領)「거나틸령」또는「하야금령」엮헤「마
 리현」
 100 (饒)「넉넉할요」또는「밤식」변에「웃넉금
 요」
 101 (馳)「달릴차」또는「말마」변에「이기야」
 102 (體)「몸데」또는「색골」변에「풍년풍」
 103 (鮮)「고을선」또는「고기어」변에「양양」
 104 (鳩)「비둘이구」또는「아홉구」에「시조」
 105 (麒)「끼린끼」또는「사승루」변에「그기」

- 錦ギン(にしき)의字は、金屬に帛(きぬ)
 陣ジン(いくさ)의字は、阜토지扁편에車
 集집(あつまる)의字は、隹(きり)の下に木
 露로(つゆ)의字は、雨の下に路(みち)
 靴쿠(くつ)의字は、革扁에化(ばける)
 鞞진(しなやか)의字は、韋扁에刃(はもの)
 領리영(すぶ)의字は、令레이(いいつけ)의傍에頁
 (かしら)
 饒조(ゆたか)의字は、食扁에堯조(たかし)
 馳치(はしる)의字は、馬扁에也
 體타이(からだ)의字は、骨扁에豐호우(ゆたか)
 鮮센(あざやか)의字は、魚扁에羊
 鳩구(はこ)의字は、九に鳥조의旁에す
 麒키(きりん)의字は、鹿扁에其

主婦「어떻게 어린애 쇠길썬애 물이뜨거운지 찬지
寒暖計로 溫度를맞춰서하게」

어멈「아이고 저는寒暖計갖은것은 所用업서요 애
기를 물에느어봐서 빨가지면 뜨거운지알고
퍼래지면 찬지를 아는걸이요」

主婦「婆야、赤ちゃんにお湯を使はせる時、お湯が熱
いかぬるいか、寒暖計で計つてから お爲^し」

婆야「いゝえ、わたしは寒暖計なんかいません、赤
ちゃんをお湯に入れて見て、赤くなれば熱いし、
青くなればぬるいのだと云ふことが分かります」

附

錄

一、朝鮮語用字比較例

一、人 事

朝鮮語	食口 (식구)	一家 (일가)	三寸 (삼촌)	同氣 (동기)	同生 (동생)	四寸 (스촌)	內外 (니외), 兩主 (량주)	男便 (남편)	內子 (니즈), 內相 (니상)	親舊 (친구)	文章 (문장)	先輩 (선비)
-----	---------	---------	---------	---------	---------	---------	------------------	---------	------------------	---------	---------	---------

國語	家族	親類	叔父	兄弟	弟	從兄弟	夫婦	夫	妻	朋友	學者	儒者
----	----	----	----	----	---	-----	----	---	---	----	----	----

朝鮮語	白丁 (백정)	保人 (보인)	一手 (일슈)	一色 (일식)	年歲 (년취)	同甲 (동갑)	壯元 (장원)	根地 (근디)	形勢 (형치)	凡節 (범철)	議論 (의론)	是非 (시비)
-----	---------	---------	---------	---------	---------	---------	---------	---------	---------	---------	---------	---------

國語	穢多	保證人	名人	美人	年齡 (敬語)	同年	優等	身元	家計	生計	相談	爭論
----	----	-----	----	----	---------	----	----	----	----	----	----	----

舉動 (거동)

出入 (출입)

到任 (도임)

傳掌 (전장)

團束 (단속)

行下 (행하)

求乞 (구걸)

軍號 (군호)

號令 (호령)

二、性

朝鮮語

未練 (미련)

多情 (다정)

味沒 (미몰)

義面 (의면)

念慮 (념려), 曲情 (곡정)

行幸

外出

赴任

引繼

取締

纏頭 (은마)

托鉢

合圖

叱咤

行

國語

愚鈍

親切

無情

廉恥

心配

等狀 (등장)

呈狀 (등장), 呈訴 (등소)

對答 (대답)

作伴 (작반)

平生 (평생)

改差 (기차)

失手 (실수)

違錯 (위착)

變通 (변통)

連署出願

訴訟

返答

同伴

一生

更迭

失錯

行違

融通

朝鮮語

辭讓 (소양)

所願 (소원)

固執 (고집)

大忌 (대기)

知覺 (지각)

國語

遠慮

願望

剛情

嫌惡

常識

氣運 (기운)
 無顏 (무안)
 吐說 (토설)
 弄談 (롱담)
 妄發 (망발)
 客說 (객설)、客談 (객담)
 發明 (발명)
 作亂 (작란)

三、身

朝鮮語
 病身 (병신)
 身病 (신병)
 親患 (친환)
 兒患 (아환)
 內患 (내환)
 感氣 (감기)、外感 (외감)

氣分、力
 赤面
 自白
 冗談
 妄言、失言
 贅言
 辨解
 惡戲

體

國語
 不具者
 病氣
 親の病
 子供の病
 妻の病
 風邪

誤入 (오입)
 失言 (실언)、食言 (식언)
 操心 (조심)
 分揀 (분간)
 聞見 (문견)
 生意 (성의)
 虛費 (허비)
 辱說 (욕설)

朝鮮語
 運氣 (운기)、染病 (염병)
 滯症 (체증)
 怪疾 (괴질)
 腫氣 (종기)
 判數 (판수)
 疫疾 (역질)

放蕩
 違約
 用心
 辨別
 見聞
 企圖
 浪費
 惡口

國語
 熱病
 胃病
 虎列刺
 腫物
 盲人
 天然痘

調理 (도리)、調攝 (도섭)

快差 (쾌차)

差度 (차도)

四、衣

朝鮮語

綢緞 (주단)

白木 (백목)、布木 (포목)

唐木 (당목)、廣木 (광목)

木花 (목화)

去核 (거핵)

毛物 (모물)

掌甲 (장갑)

丹粧 (단장)、成赤 (성적)

穀屬 (곡속)、穀食 (곡식)

點心 (점심)

空心 (공심)

養生

全快

輕快

食

國語

絹物

木綿類

金巾

棉

綿

毛皮

手袋

化粧

穀物

晝飯

食前

方文 (방문)

誤死 (오스)

沒死 (몰스)

朝鮮語

口味 (구미)

沈菜 (침치)

土醬 (토장)

干醬 (간장)

苦草 (고초)

燒酒 (소주)

南草 (남초)

上草 (상초)

葉草 (엽초)

切草 (철초)

洋襪 (양말)

處方書

變死

全滅

國語

食慾

漬物

味噌

醬油

唐辛

燒酎

煙草

上等煙草

葉煙草

刻煙草

靴下

吐手 (토수)
床 (상)

五、建

朝鮮語

閭閣 (녀열)
貫家 (외가)
亭子 (딩즈)
家堡 (가대)
假家 (가가)
行廊 (형랑)、廊下 (랑하)
舍廊 (사랑)
壁櫥 (벽장)
門 (문)
大門 (대문)

腕貫
膳

築

國語

民家
貸家
別莊
屋敷
露店
長屋
客室
押入
戶
門

進支 (진지)
西洋木 (쇠양목)

朝鮮語

二層 (이층)
層臺 (층대)、層々臺 (층층대)
壁石 (벽석)
移舍 (이소)、搬移 (반이)
磨練 (마련)
都給 (도급)
家役 (가역)、役事 (역사)
看役 (간역)
房 (방)
廁間 (취간)

御飯 (敬語)
金巾

國語

二階
階段
煉瓦
轉宅
設計
請負
普請
工事監督
部屋
便所

六、器

具

朝鮮語

沙器 (사기)
 冊床 (책상)
 舌盒 (철합)
 交椅 (교의)
 方席 (방석)
 簇子 (족자)
 懸板 (현판)
 掛鐘 (과종)
 坐鐘 (좌종)
 醒鐘 (성종)
 時表 (시표)
 刻針 (각침)
 冊匣 (책갑)
 硯滴 (연덕)
 籌板 (주판)
 燈盞 (등잔)

國語

瀨戶物
 机
 引出
 椅子
 坐蒲團
 掛物
 額
 掛時計
 置時計
 目醒時計
 懷中時計
 分針
 本箱
 水入
 算盤
 カンテラ

朝鮮語

燈皮 (등피)
 手袋 (슈대)
 雨傘 (우산)
 尾扇 (미선)
 千里鏡 (천리경)
 名啣 (명함)、名帖 (명첩)
 圖章 (도장)、圖署 (도서)
 帳幕 (장막)
 油衫 (유삼)
 空席 (공석)
 六穴砲 (육혈포)
 鐵丸 (철환)
 環刀 (환도)
 駕馬 (가마)、轎軍 (교군)
 木板 (목판)
 客竹 (객죽)

國語

亦ヤ
 靴
 傘
 團扇
 望遠鏡
 名刺
 印判
 天幕
 合羽
 蓆
 ピストル
 彈丸
 刀
 駕籠
 盆
 客用煙管

登床 (등상)

七、慶

踏臺

火爐 (화로)

火鉢

朝鮮語

國語

朝鮮語

國語

致賀 (치하)

吉事 (길소)

納彩 (납치)、納幣 (납폐)

聘儀 (부의)

生產 (생산)

得男 (득남)

得女 (득녀)

慶賀

婚姻

結納

香典

出產

男子誕生

女子誕生

生辰 (성신)、生日 (성일)

還甲 (환갑)

忌故 (기고)

外艱 (외간)

內艱 (년간)

大祥 (대상)、大祥 (대기)

小祥 (소상)、小祥 (소기)

誕生日

還曆

命日

父の死

母の死

三周忌

一周忌

八、交

際

朝鮮語

國語

朝鮮語

國語

相從 (상종)、追逐 (추족)

人事 (인사)

尋訪 (심방)

交際

挨拶

訪問

顔面 (안면)

交接 (교접)

膳物 (선물)

面識

交際

進物

圭角 (규각)、氷炭 (빙탄)
通寄 (통기)、寄別 (기별)
祇迎 (지영)
祇送 (지송)
迎接 (영첩)

九、職

業

不和
通知
奉迎
奉送
出迎

餞送 (견송)、餞別 (견별)
言約 (언약)、相約 (상약)
退定 (퇴정)
問議 (문의)
作別 (작별)

見送
約束
延期
承合
訣別

朝 鮮 語

國 語

朝 鮮 語

國 語

生涯 (성인)
冊肆 (책사)
長木塵 (장목던)
客主 (객주)
酒幕 (주막)、旅閣 (려각)
乾材局 (건지국)、藥局 (약국)
福德房 (복덕방)
家儉 (가괘)
居間 (거간)

職業
本屋
材木屋
間屋
宿屋
藥種屋
家屋周旋所
家屋周旋者
仲買

醫員 (의원)
農軍 (농군)
作人 (작인)
熟手 (숙수)
沙工 (사공)
役夫 (역부)
募軍 (모군)
木手 (목수)
泥匠 (니장)

醫者
農夫
小作人
料理人
船頭
人夫
人足
大工
左官

石手匠 (석수장)
蓋瓦匠 (기와장)

石工
屋根屋

砲手 (포수)
兵丁 (병정)

銃獵者
兵士

一〇、經濟

朝鮮語

國語

朝鮮語

國語

場 (장)

市場

公拍 (공박)

競賣

典當舖 (던당포)

質屋

同事 (동사)

共同商賣

典當 (던당)

質

都中 (도중)

組合

典物 (던물)

質物

財物 (지물)

財產

典執 (던집)

質入

金錢 (금권)

金貨

襍負商 (보부상)

行商

銀錢 (은권)

銀貨

物件 (물건)

品物

紙錢 (지권), 紙貨 (지화)

紙幣

方物 (방물)

小間物

加計 (가계)

打步

見樣 (견양)

雛形

直錢 (직권)

現金

看色 (간식)

見本

口文 (구문)

口錢

散賣 (산매)

小賣

邊利 (변리)

利息

都賣 (도매)

卸賣

本邊 (본변)

元利

重邊 (동변)
 輕邊 (경변)
 出債 (출채)
 股金 (고금)、股本金 (고본금)
 股票 (고표)、股本票 (고본표)
 雇價 (고가)、役價 (역가)
 家賈 (가취)
 食債 (식채)、食價 (식가)
 船價 (선가)
 路需 (로슈)、路資 (로스)
 馱價 (대가)
 換錢 (환전)
 時勢 (시세)

高利
 低利
 借金
 株金
 株券
 賃錢
 家賃
 下宿料
 船賃
 旅費
 馱賃
 爲替
 相場

外上 (외상)
 手標 (슈표)、於音 (어음)
 結錢 (결전)、稅納 (세납)
 浮費 (부비)、所費 (소비)
 本錢 (본전)、本金 (본금)
 本金 (본금)、本價 (본가)
 去來 (거리)、興成 (흥성)
 清帳 (청장)
 相計 (상계)、計除 (계취)
 支撥 (지발)、出給 (출급)
 會計 (회계)
 發記 (발기)
 放賣 (방매)

掛賣
 手形 (割札)
 租稅
 費用
 元金、資本
 原價
 取引
 皆濟
 差引
 支拂
 勘定
 書出
 販賣

一一、天文・地理

朝鮮語

日氣 (날기)

國語

天氣

朝鮮語

尾星 (미성)

國語

帚星

銀河水 (은하수)

天動 (턴동)

地動 (디동)

石假山 (석가산)

沙汰 (사태)

田畚 (컨담)

畚 (담), 畚土 (담토)

田 (컨), 田地 (컨디)

防川 (방천)

湫 (복)

防築 (방축)

天の川

雷

地震

築山

山崩

田畑

田

畑

土水

貯水池

堤防

溫井 (온칭)

山所 (산소)

東山 (동산)

怪石 (괴석)

水道 (수도)

局內 (국내)

外方 (외방)

下陸 (하륙)

花草 (화초)

實果 (실과)

沙場 (사장)

溫泉

墓地

庭園

庭石

下水

境內

地方

上陸

植木

果實

砂原

一一、文 書

朝鮮語

冊 (책), 書冊 (외책)

張數 (장수), 冊張數 (책장수)

致富冊 (치부책)

國語

本、書籍

枚數、頁數

帳面

朝鮮語

冊衣 (책의)

周紙 (주지)

片紙 (편지)

國語

表紙

卷紙

手紙

答狀 (답장)

通文 (통문)

封套 (봉토)

登記 (등기)

文字 (문자)

冊曆 (척력)

休紙 (휴지)

印朱 (인주)

返書

回章

狀袋

書留

熟字

曆

反古

印肉

郵票 (우표)

掌記 (장기)

物目 (물목)

手標 (슈표)、手記 (슈기)

文書 (문서)、文券 (문권)

家券 (가권)

鑄字 (주스)

井間紙 (청간지)

印紙

商品目錄

送狀

證書

證券

家屋賣買證

活字

野紙

一三、時

朝鮮語

來日 (리일)

再明日 (지명일)

三明日 (삼명일)

再昨日 (지작일)

三昨日 (삼작일)

上年 (상년)

國語

明日

明後日

明後々日

一昨日

一昨々日

昨年

朝鮮語

再昨年 (지작년)

後年 (후년)

來後年 (리후년)

空日 (공일)

半空日 (반공일)

午正 (오정)

國語

一昨年

明後年

明後々年

日曜日、休日

土曜日

正午

上午 (상오)
 下午 (하오)
 開東 (개동)
 食前 (식전)
 去番 (거번)

一四、雜

朝鮮語

雜鬼 (잡귀)
 貌樣 (모양)
 馬上技 (마상기)
 雜技 (잡기)
 等分 (등분)
 亂離 (란리)
 所聞 (소문)
 工夫 (공부)
 始作 (시작)

午前
 午後
 明方
 朝、朝飯前
 先般

國語

惡魔
 形
 曲馬
 賭博
 等級
 亂
 噲、風聞
 稽古
 開始

今番 (금번)
 來頭 (리두)
 日間 (일간)
 暫間 (잠간)
 瞥眼間 (별안간)

朝鮮語

乃終 (니종)
 艱難 (간난)、苟且 (구츠)
 不祥 (불상)
 曖昧 (의미)
 每事 (미스)
 各色 (각식)、各項 (각항)
 丁寧 (딩녕)
 不可不 (불가불)
 大端 (대단)、大段 (대단)

今般
 將來
 近日
 暫時
 瞬間

國語

終
 貧乏
 不憫
 無罪
 萬事
 種々
 屹度
 是非
 大層

居半 (거반)

次々 (츠츠)

恒茶飯 (항다반)

左右間 (좌우간)

設或 (설혹)、設使 (설사)

眼界 (안계)

求景 (구경)

間或 (간혹)

滿發 (만발)

曲折 (곡절)

形便 (형편)

裏許 (리허)、內坪 (내평)

理致 (리치)、涇渭 (경위)

緣故 (연고)

層折 (층절)

事勢 (사세)、形便 (형편)

大慨

追々

平素、尋常

兎角

假令

眺望

見物、傍聽

間々

滿開

仔細、委曲

有樣、都合

內容

理屈

事故

故障

都合

狼狽 (랑패)

斟酌 (집착)

至境 (지경)

境遇 (경우)

相考 (상고)

查實 (사실)

摘拔 (덕발)

的實 (덕실)、分明 (분명)

中路 (중로)、路上 (로상)

窮究 (궁구)

毀妨 (훼방)

牌 (패)

沒數 (몰슈)

與受 (여슈)

空行 (공행)、虛行 (허행)

運數 (운슈)

失敗

推察

境遇

場合

調查

取調

拔書

確實

途中

工夫、研究

妨害

群、組

全部

授受

無駄足

運

二千字文

朝鮮語に於ては、國語と同じく漢字が盛に用ひられるので、漢字の音と訓とを知つて置くことが極めて大切である。姓名を名のる場合でも、地名をいふ場合でも、何といふ漢字を書くかといふことはよく問はれることである、その際何の扁へんに何の旁つくりなきと一々説明するのは頗る煩はしいことであるが、例へば『明』の字ならば『밝을 명』と謂へば、一言にして明瞭に通ずるのである。朝鮮語に熟達するには、さうしても漢字の音と訓とを知らねばならぬ。朝鮮人は子供の時から、書堂なきで先づ第一に『千字文』を學ぶので、よく一般の漢字の訓音に通じて居る。依て茲でも漢字の訓音を知る便宜上、千字文を卷尾に副へた次第である。勿論その全部に通ずるとは困難だらうから、先づ比較的通俗に用ひられるものに就いて、暗誦に努めるが宜からうと思ふ。諺文の右は訓、左は音である。

天	天	地	地	玄	玄	黃	黃	宇	宇	宙	宙	洪	洪	荒	荒
하늘	하늘	디	디	갈	갈	누	누	집	집	집	집	넓	넓	거	거
天	天	地	地	玄	玄	黃	黃	宇	宇	宙	宙	洪	洪	荒	荒
일	일	달	달	영	영	찰	찰	기	기	별	별	진	진	찰	찰
日	日	月	月	盈	盈	吳	吳	辰	辰	宿	宿	列	列	張	張
찰	찰	월	월	영	영	기	기	진	진	찰	찰	렬	렬	벌	벌
寒	寒	來	來	暑	暑	往	往	秋	秋	收	收	冬	冬	藏	藏
한	한	러	러	셔	셔	왕	왕	추	추	슈	슈	동	동	장	장
寒	寒	來	來	暑	暑	往	往	秋	秋	收	收	冬	冬	藏	藏
찰	찰	울	울	을	을	갈	갈	을	을	들	들	을	을	출	출

閏 윤달

餘 여남을

成 성닐을

歲 세히

律 률법족

呂 려법족

調 조고로

陽 양벧

雲 운구름

騰 등날

致 치닐월

雨 우비

露 로이슬

結 결리질

爲 위하

霜 상서리

金 금쇠

生 성날

麗 려빛날

水 수물

玉 옥구슬

出 출날

崑 곤외

岡 강외

劒 검칼

號 호이름

巨 거클

闕 철집

珠 주구슬

稱 칭일카를

夜 야밤

光 광빛

果 과실과

珍 진보배

李 니외얏

柰 니벧

菜 치나물

重 동무거을

芥 지저즈

薑 강스양

海 히브다

醜 함쌀

河 하물

淡 담뭍을

麟 린비늘

潛 잠잠길

羽 우깃

翔 상늘리

龍 룡룡

師 스스승

火 화불

帝 제님군

鳥 조새

官 관벼슬

人 인사람

皇 황님군

始 시비로술

制 제지을

文 문글월

字 즈글즈

乃 니이

服 복넙을

衣 의옷

裳 상치마

推 추밀

位 위벼슬

讓 양스양

國 국나라

有 유이슬

虞 우나라

陶 도질것

唐 당나라

弔 도도상

民 민릭성

伐 벌칠

罪 죄허물

周 주두루

發 발펼

殷 은만훈

湯 탕물훈

坐 좌안승

朝 조아침

問 문무물

道 도길

垂 슈드리을

拱 공흐늘

平 평평홍

章 장글월

愛 의스랑

育 육기를

黎 려감을

首 슈머리

臣 신신하

伏 부엨드릴

戎 용되

羌 강되

遐 遐 하 떨
邇 邇 이 갓가울
壹 壹 일 한
體 體 해 몸
率 率 솔 거나릴
賓 賓 빈 손
歸 歸 귀 도라갈
王 王 왕 남군

鳴 鳴 명 울
鳳 鳳 봉 서
在 在 저 잇술
樹 樹 수 나무
白 白 백 흰
駒 駒 구 막야지
食 食 식 밥
場 場 장 마당

化 化 화 될
被 被 피 넘을
草 草 초 풀
木 木 목 나무
賴 賴 뢰 힘넘을
及 及 급 미출
萬 萬 만 일만
方 方 방 모

蓋 蓋 기 덮을
此 此 차 이
身 身 신 몸
髮 髮 발 털어
四 四 스 넉
大 大 대 큰
五 五 오 드스
常 常 상 썩썩

恭 恭 공 손
惟 惟 유 오주
鞠 鞠 국 철
養 養 양 기를
豈 豈 기 엇지
敢 敢 감 구터
毀 毀 회 헐
傷 傷 상 상흔

女 女 녀 계집
慕 慕 모 스모
貞 貞 정 고들
烈 烈 렬 릭을
男 男 남 사나의
效 效 효 본마들
才 才 재 저조
良 良 량 어질

知 知 지 알
過 過 과 허물
必 必 필 반듯
改 改 기 고칠
得 得 득 엇을
能 能 능 능할
莫 莫 막 말
忘 忘 망 나술

罔 罔 망 업술
談 談 담 말습
彼 彼 피 저
短 短 단 저를
靡 靡 미 아닐
恃 恃 시 밋을
己 己 기 몸
長 長 장 긴

信 信 신 밋을
使 使 스 하여금
可 可 가 을술
覆 覆 복 뒤칠
器 器 기 그릇
欲 欲 욕 고저할
難 難 난 어려울
量 量 량 헤아릴

墨 墨 묵 먹
悲 悲 비 슬플
絲 絲 스 실
染 染 염 물들
詩 詩 시 글
讚 讚 찬 길일
羔 羔 고 염소
羊 羊 양 양

景 景 경 벼
行 行 행 단길
維 維 유 오지
賢 賢 현 어질
剋 剋 극 나길
念 念 념 성각
作 作 작 지을
聖 聖 성 성인

德 德 덕 큰
建 建 건 세울
名 名 명 일흠
立 立 립 설
形 形 형 일갈
端 端 단 웃
表 表 표 것
正 正 정 바루

空 공 췌
谷 고 을
傳 전 환
聲 소 려
虛 허 췌
堂 당 집
習 습 익 일
聽聽 들 을

禍 화 지 앙
因 인 인 환
惡 악 모 질
積 적 사 후
福 복 복
緣 연 인 연
善 선 착 후
慶 경 경 스

尺 척 자
璧 벽 구 술
非 비 아 닐
寶 보 보 비
寸 촌 마 되
陰 음 그 늘
是 시 이
競 경 다 들

資 자 리
父 부 아 비
事 스 섬 길
君 군 님 군
日 일 로
嚴 엄 엄 후
與 여 더 불
敬 경 공 경

孝 효 효 도
當 당 맛 당
竭 갈 다 후
力 령 힘
忠 충 충 성
則 척 법 축
盡 딴 다 후
命 명 목 습

臨 림 다 다 를
深 심 김 후
履 리 밟 을
薄 박 얇 을
夙 숙 일 즉
興 흥 일
溫 온 드 살
淸 정 서 늘

似 사 샅
蘭 난 난 초
斯 스 이
馨 향 기
如 여 샅 후
松 송 솔
之 지 갈
盛 성 성 후

川 천 니
流 류 흘 을
不 불 아 닐
息 식 췌
淵 연 못
澄 정 맑 을
取 취 가 질
映 영 비 칠

容 용 일 글
止 지 그 칠
若 약 만 약
思 스 생각
言 언 말 습
辭 스 말 습
安 안 평 안
定 정 정 후

篤 독 도 타 을
初 초 처 음
誠 성 정 성
美 미 아 름 다 을
慎 신 삼 갈
終 종 마 칠
宜 의 맛 당
令 령 하 야 급

榮 영 영 화
業 업 업
所 소 바
基 기 터
籍 적 호 적
甚 심 심 후
無 무 업 습
竟 경 마 찬

學 학 배 을
優 우 덕 덕
登 등 을 을
仕 스 씨 습
攝 섭 잡 을
職 직 씨 습
從 종 좃 출
政 정 정 스

堅 견 굳을	守 수 지킴	性 성 성품	節 절 마디	仁 인 어질	交 교 사귄다	孔 공 구멍	諸 제 모름	外 외 밖	上 상 윗	樂 악 종류	存 존 잇음
持 지 가질	眞 진 참	靜 정 고요	義 의 옳음	慈 즈 스람	友 우 벗	懷 회 품음	姑 고 할미	受 수 받음	和 화 화합	殊 슈 다름	以 이 써
雅 야 뉘음	志 지 뜻	情 정 뜻	廉 렴 청렴	隱 은 숨음	投 투 던짐	兄 형 맏	伯 백 맏	傅 부 스승	下 하 아래	貴 귀 귀함	甘 감 달
操 조 잡음	滿 만 가득함	逸 일 편안함	退 퇴 물러갈	惻 측 슬픔	分 분 난함	弟 제 아우	叔 숙 가짜비	訓 훈 가르침	睦 목 화목	賤 천 천함	棠 당 아가의
好 호 두름	逐 쫓 추출	心 심 마음	顛 전 엎더짐	造 조 지음	切 절 간절	同 동 함가지	猶 유 갓음	入 입 들	夫 부 지아비	禮 례 례도	去 거 갈
爵 작 벼슬	物 물 만물	動 동 움직임	沛 피 잡바짐	次 차 벼급	磨 마 갈	氣 기 기운	子 자 아들	奉 봉 받들	唱 창 부름	別 별 다름	而 이 말이
自 자 스스리	意 의 뜻	神 신 귀신	匪 비 아닐	弗 불 아닐	箴 침 경계	連 련 연함	比 비 전줄	母 모 어미	婦 부 지어미	尊 존 높음	益 익 더함
糜 미 엷음	移 이 옮김	疲 피 곯음	虧 휴 이슬어짐	離 리 떠남	規 기 범	枝 지 가지	兒 이 아회	儀 의 거동	隨 수 따름	卑 비 나름	詠 영 을름

都 도읍

邑 읍고을

華 화빛날

夏 하여름

東 동동녘

西 서서녘

二 이두

京 경서울

背 배등

邨 방허

面 면낫

洛 낙낙수

浮 부부플

渭 위위수

據 거옹거할

涇 경경수

宮 궁집

殿 년집

盤 반서갈

鬱 을담담

樓 루다락

觀 관볼

飛 비날

驚 경놀날

圖 도그림

寫 샤샷

禽 금시

獸 속짐성

畫 화그림

綵 채채석

仙 선신선

靈 령신령

丙 병남녘

舍 샤집

傍 방것

啓 계열

甲 갑갑옷

帳 당당

對 더더답

楹 영기둥

肆 스베플

筵 연자리

設 설베플

席 석자리

鼓 고북

瑟 승비파

吹 취불

笙 성더

陞 승을을

階 계섬

納 납드릴

陞 폐섬들

弁 번삿갈

轉 전구를

疑 의의심

星 성별

右 우을을

通 통통홀

廣 광넓을

內 내안

左 좌왼

達 달통달

承 승니을

明 명밝을

旣 기이의

集 집모들

墳 분무덤

典 던법

亦 역또

聚 취모들

羣 군무리

英 영요부리

杜 두막을

藁 고집

鍾 종종즈

隸 래글시

漆 칠옷

書 서글

壁 벽바람벽

經 경경서

府 부마을

羅 라벌

將 장장수

相 상서로

路 로길

俠 협협력

槐 괴괴화

卿 경벼슬

戶 호지개

封 봉봉홀

八 팔여덟

縣 현고을

家 가집

給 급줄

千 천일천

兵 병군사

高 고 높음

冠 관 갓

陪 비 외성

輩 련 련

驅 구 몰

轂 슈려

振 진 떨칠

纓 영 갓끈

世 세 인간

祿 록 록

侈 치스치

富 부부자

車 거수레

駕 가 멍에

肥 비 살찐

輕 가벼움

策 책 악대

功 공 공

茂 무거움

實 실 열리

勒 륝 갈기

碑 비 비석

刻 각 삭일

銘 명 삭일

磻 반 돌

溪 계 시내

伊 이 저

尹 윤 맛

佐 좌 도울

時 시 때

阿 아 언덕

衡 형 저울대

奄 엄 문득

宅 직 집

曲 곡 굽음

阜 부 언덕

微 미 적음

鼃 조 니움

孰 슈 구

營 영 경영

桓 환 굿셀

公 공 번될

匡 광 바를

合 합 모들

濟 제 건널

弱 약 약함

扶 부 북돋

傾 경 기울

綺 기 김

回 회 도라움

漢 한 한슈

惠 혜 은혜

說 설 깃들

感 감 늦길

武 무 호반

丁 정 장정

俊 준 준걸

父 에 미움

密 밀 섹섹함

勿 무 말

多 다 관홀

士 스 선비

寔 식 이

寧 ning 편안

假 가 빌

途 도 길

虺 기 다시

霸 패 으뜸

趙 조 도국

魏 위 위국

困 곤 함

橫 hing 빗길

何 하 엇지

遵 준 좃춤

約 약 언약

法 법 법

韓 한 한국

弊 폐 허야질

煩 번 거름

刑 hing 형벌

起 기 일

翦 전 갈길

頗 파 자못

牧 목 천

用 용 쓸

軍 군 군스

最 가 장

精 정 정함

宣 선 벨플

威 위 위엃

沙 사 모래

漠 막 아득함

馳 치 달님

譽 예 기릴

丹 단 붉을

靑 靑 푸를

九 구 아홉

州 주 고을

禹 우 님금

迹 적 자취

百 백 일백

郡 군 고을

秦 진 진국

井 井 아물

嶽 악 외벽리

宗 종 마루

恆 항 항상

岱 대 외

禪 선 터닥글

主 주 님금

云 운 이물

亭 딩 정자

鴈 안 기럭이

門 문 문

紫 자 붉을

塞 시 변방

雞 계 닭

田 던 밭

赤 적 붉을

城 성 재

昆 곤 맛

池 지 못

碣 갈 돌

石 석 돌

鉅 거 클

野 야 들

洞 동 고을

庭 딩 정

曠 광 벌

遠 원 멀

綿 면 소음

貌 막 멀

巖 암 바위

岫 슈 외벽리

杳 묘 아득함

冥 명 아득함

治 치 드스릴

本 본 밋

於 어 늘

農 농 농사

務 무 힘쓸

茲 즈 이

稼 가 심을

穡 석 것

俶 슈 비로슬

載 저 시를

南 남 남녘

畝 묘 이랑

我 아 나

藝 예 심을

黍 슈 기장

稷 직 피

稅 세 구실

熟 숙 너을

貢 공 바칠

新 신 새

勸 권 권할

賞 상 상줄

黜 추 너칠

陟 덕 오를

孟 밍 맛

軻 가 슈레

敦 돈 도타을

素 소 흰

史 스 스키

魚 어 고기

秉 병 잡을

直 직 곧을

庶 셔 거의

幾 기 거의

中 중 가운데

庸 용 헛헛

勞 로 슈고

謙 검 겸손

謹 근 습갈

勅 덕 신책

聆 령 들을

音 음 소리

察 찰 살필

理 리 드스릴

鑑 감 거울

貌 모 모양

辨 변 분변

色 색 빛

貽 이 씨
철

省 성
슬필

殆 터
거위

兩 냥
두

索 식
츠슬

求 구
구홍

欣 흥
깃불

渠 거
기천

枇 비
나무

陳 진
무울

遊 유
놀

耽 탐
슬길

厥 결
그

躬 궁
몸

辱 욕
욕홀

疏 소
셔컬

居 거
살

古 고
네

奏 주
드랴

荷 하
년

杷 파
나무

根 근
뿌리

鯤 곤
고기

讀 독
읽을

嘉 가
아름다울

譏 기
롱

近 근
갓가울

見 견
전볼

閒 한
할가

尋 심
츠슬

累 누
여럿

的 덕
마름

晚 만
늦음

委 위
보일

獨 독
홀노

翫 환
구경

猷 유
씨

誠 제
정제

恥 치
부끄러울

機 기
틀

處 처
곳

論 논
의논

遣 전
보낼

歷 력
다날

翠 취
푸름

翳 예
가리울

運 운
운전

市 시
저자

勉 면
힘쓸

寵 등
고일

林 립
슈름

解 히
풀

沈 침
잠길

散 산
흩흠

感 감
슬픔

園 원
동산

梧 오
오동

落 락
떨러질

凌 령
엮슈널일

寓 우
부칠

其 기
그

增 증
더할

臬 고
언덕

組 조
쌈

默 무
잠잠

慮 녀
생각

謝 사
샤례

莽 망
풀

桐 동
오동

葉 엽
남

摩 마
만질

目 목
눈

祇 지
공경

抗 항
걸을

幸 흥
다행

誰 슈
누구

寂 적
고요

逍 소
노닐

歡 환
깃불

抽 추
서힐

早 조
이름

飄 표
나부길

絳 강
불글

囊 낭
슈머니

植 식
심을

極 극
극진

卽 즉
곳

逼 빙
갓가울

寥 료
고요

遙 요
노닐

招 초
부를

條 조
가지

彫 표
마름

飊 표
나부길

霄 소
하날

箱 상
상자

易 역 맛글

輜 유 가벼울

攸 유 바

畏 외 두려울

屬 속 부칠

耳 이 귀

垣 원 담

牆 장 담

具 구 가출

膳 선 반찬

飡 손 밥

飯 반 밥

適 적 마름

口 구 입

充 충 채일

腸 장 차자

飽 포 비부름

飫 에 술홀

烹 핑 삼을

宰 저 저상

飢 기 쥬릴

厭 염 술홀

糟 조 저강이

糠 강 제

親 친 친할

戚 척 친당

故 고 연고

舊 구 네

老 로 늙을

少 소 젊을

異 이 다름

糧 양 양식

妾 첩 첩

御 어 외실

績 적 질삼

紡 방 질삼

侍 시 외실

巾 신 슈건

帷 유 장막

房 방 방

紈 환 김

扇 선 부채

圓 원 둥글

潔 절 조홀

銀 은 은

燭 촉 초불

燁 위 불빛

煌 황 불빛

晝 듀 낮

眠 면 조을

夕 석 저녁

寐 미 잠

藍 남 색

筍 순 순

象 상 코기리

牀 상 상

絃 현 줄

歌 가 노리

酒 유 술

讌 연 잔치

接 접 부칠

杯 배 잔

舉 거 들

觴 상 잔

矯 교 아닐

手 수 손

頓 돈 두다릴

足 족 발

悅 열 깃불

豫 예 미리

且 차 또

康 강 평안

嫡 적 맛

後 후 뒤

嗣 스 니을

續 속 니을

祭 대 대스

祀 스 대스

蒸 증 찜

嘗 상 맛볼

稽 계 조을

頽 상 이마

再 지 두

拜 비 절

悚 송 두려울

懼 구 두려울

恐 공 두려울

惶 황 두려울

牋 전 조회

牒 첩 서첩

簡 간 티북

要 요 중요

顧 고 도라볼

答 답 티답

審 심 살필

詳 상 다서

骸 히 뼈

垢 후 써

想 상 생각

浴 욕 목욕

執 집 잡을

熱 열 더울

願 원 원할

涼 량 서늘

驢 녀 나귀

騾 나 노서

犢 독 쇠야지

特 특 소

駭 히 놀날

躍 약 뛸

超 초 뛸

驤 양 들릴

誅 쥬 벌힐

斬 참 버힐

賊 적 도적

盜 도 도적

捕 포 잡을

獲 획 얻을

叛 반 반할

亡 망 도망

布 포 비

射 사 쓸

遼 요 멀

丸 환 탄

毳 히 외

琴 금 거문고

阮 완 성

嘯 소 쉬파를

恬 편 안

筆 필 붓

倫 륜 처리

紙 지 조회

鈞 간 무거울

巧 교 공교

任 임 맡길

釣 조 낚시

釋 석 노을

紛 분 어즈러울

利 리 너을

俗 속 풍속

竝 병 아울러

皆 기 다

佳 가 아름답을

妙 묘 묘할

毛 모 러럭

施 시 베풀

淑 숙 맑을

姿 자 자질

工 공 바칠

頻 빈 씩갈

妍 연 고을

笑 소 웃을

年 년 히

矢 시 슬

每 미 미양

催 취 저촉

羲 희 밝을

暉 휘 빛날

朗 랑 밝을

曜 요 빛칠

璇 현 구슬

璣 기 구슬

懸 현 달

幹 갈 들

晦 회 그믐

魄 빅 녀

環 환 고리

照 조 비칠

指 지 가리칠

薪 신 섬

脩 슈 다글

祐 우 도울

永 영 길

綏 유 평안

吉 길 길할

邵 쇼 높을

矩 구 법

步 보 거를

引 인 당길

領 녕 옷깃

俯 부 굽꾸릴

仰 양 올릴

廊 랑 횡랑

廟 묘 사당

束 속 묶을

帶 대 띠

矜 궁 자랑

莊 장 식식

徘徊 비 머물

徊 회 머물

瞻 침 볼

眺 조 볼

孤 외로울

陋 더러울

寡 적을

聞 드를

愚 어릴

蒙 무릅쓸

等 무리

誚 무지을

謂 나를

語 말을

助 도를

者 놈

焉 있기

哉 있기

乎 호

也 있기

朝鮮には、現今でも到る處に、書堂(글방)といふものがあるが、子供は最初多くこゝに入つて學問をしたものである。十年前までは全盛を極めたが、今は普通學校又は之に類似する教育機關が普及したので、漸次其の數を減じつゝある。書堂に入つて先づ第一に學ぶのは千字文・童蒙先習等であつて、漸次進んで論語・孟子等を學ぶ、然したゞ素讀に止るのである。狭い部屋の内外にいたづらさうな顔をした鼻垂れ小僧たちが不規則に居並び、本を前に置き、高い聲で身體を斜め前後に揺り動かしながら、所謂蛙鳴蟬噪といふ風でやつて居るのは、如何にも面白い情景である。朝鮮の子供が、早くから比較的漢字を知つて居るのは、書堂でこの千字文などを學ぶからである。教師に贈る謝禮を講米(강미)と謂ふ。

三、朝鮮の風習

はしがき

風俗習慣は國民性の一反映を見るべきでありませう。その國民性が、天賦の性情に幾百千年間の科學・文藝・宗教などの諸要素や、政治・經濟・教育、乃至は自然力などの影響の織込まれたものであります以上は、如何に他愛もなき風習の一行事にも、如上の諸要素の史的面影を止めてゐないものはありません。さればこそ、斯道の學者達は、古瓦の紋様にも、俗謠の旋律にも、熱心な研究の耳目を傾注するのでありませう。

朝鮮は、内地とは一葦帶水の地、固より同種同根の民族、有史以前より交渉を重ねて、齊しく東亞の文化に哺まれて來ました關係上、風習の如きは、實に驚くほご多くの類同を有して居るのであります。さうご氣付いて見ますと、日韓併合の如きも、寧ろ自然に歸れるもの、當然に歸したるもの……この感が自ら湧き出でて、親和の情の一入切なるを覺ゆると同時に、更にかゝる方面の探究に興味を唆られるのであります。

然し、かゝる探究も、今は學究的の興味からするやうな閑事業ではなくなりました。今内地人の在鮮者は三十八萬、如何なる奥地にも活動の姿を見ざるなく、一方、二十數萬の朝鮮人は、内地の都市は勿論、僻陬の地方にまで入込んで、或は同一の學舎に官衙に、或は會社に工場に、共に研究

し、作業し起臥して、デリケートな交渉が日夕兩者の間に行はれつゝあるの状態でありますから、内地人として、朝鮮の如何——その民情・風習の如何といふことを知るのは、最早や學者・好事家のみの趣味の問題ではなく、實に國民全體としての必要に直面してゐる譯であります。して見まするに、苟も新附の國土を拓き、新屬の同胞を導いて、文化の向上を圖り、共に康福を享受しようといふことを常に念こせられる人々は、かゝる風習の一端なりとも速に知つて置くべきではありませんまいか。まして、風習は偉大なる潛勢力の持主であります。若し之を胸に置いて、折衝上に舵を執つて行きますならば、如何ほご共昌共榮への行進が、平和に圓滑に捗つてゆくことか、測り知れぬであらうと思ひます。

本編は、かく朝鮮を知らんとする内地人に對して、一參考資料にも記述したものであります。併し朝鮮の風習をいひましても、仔細に研究しますれば、頗る多様でありますので、この小編では只大要を摘記するに止めました。且つ一口に朝鮮を申しましても、一萬四千方里、本州大の廣さでありますから、北境を南端を、東部を西邊を、都邑を村落では、それ／＼多少の相違の存することを免れません。で、本編は、主に京城を中心として、記したものであるといふことを、一言致して置く次第であります。

目 次

- 一、社會階級
- 二、一家の意味
- 三、家庭
- 四、男女の別

- 五、言語と應對
- 六、訪問と接客
- 七、服 裝
- 八、飲 食
- 九、住 家
- 一〇、年中行事
- 一一、補 遺

一、社 會 階 級

Ⅱ・嚴しき四階級・Ⅱ

* 상놈とも謂ふ

本文中の諺文は著者が便宜上入れたものであります

朝鮮の社會組織は、明治四十三年の日韓併合前までは、兩班(양반)・中人(중인)・常民(상민)*・賤民の四階級より成つて居りました。兩班は文武の大官若は學徳高き學者を出した家筋の正しい一族でありまして、名門及官吏となるべき資格や其の他の特權を有つてをりました。中人は或る限定せられた官職にあつたものゝ一族で、門地や教育が常民よりは稍々高いもの、常民は農工商を業とするもの、又賤民は常民の班にも入り得ない最下層のもので、白丁(백정)・奴婢(노비)・僧侶(승려)・僧侶(승려)の類がそれでありまして、尙又同一階級のうちでも、職業によつて高下があり、年齢の老若に因つても亦差別があつたのであります。そして、階級に隨つて、冠婚葬祭はいふまでもなく、衣服・住居乃至は言葉の末に至るまで八釜敷い區別があり、嚴しい制裁がありました。例へば、賤民の住家は瓦葺にしてはならぬとか、常民は門構の家を建てたり履石に階段をつけたりしてはならぬとか、兩班は入口の正門を其の兩側の建物よりも一段高く拵へても可いとか、衣服について、兩班は淡青色のものを使用するが、常民以下は色物の上衣を着けてはならぬとかいふの類

であります。かやうな階級制度は、併合と同時に全く撤廢せられて所謂四民平等となり、漸次に移風改俗の事實を見るやうになりましたが、何分長い間植ゑつけられた風習なので、根本的には未だなか／＼抜けきれません。殊に地方に入りますと、依然たる所も少くありません。

二、一家の意味

——・祖先崇拜——同族の團結——

朝鮮で一家(일가)といふ言葉は、内地の親類といふのに當りますが、内容は親類といふよりも非常に廣汎な意味を有つて居るのであります。朝鮮では血統を同じうする者、即ち同一祖先より出でたるものは、どこまでも一家族であるこの觀念を以て一家と稱するのであります。それ故、一家とは即ち一族のことで、内地の一家即ち一家庭とは意味を異にして居りますし、又親類といふ範圍よりもズツと廣いのであります。随つて子孫幾十百代の後になりますと、所謂一家は幾千萬人を算するに至るのであります。現にさうした實例は到る所に之を見るのであります。この一家には族譜(系圖)なり系圖なりがありまして、十年目なり二十年目なりに加除訂正を施されて、其の一家一門の宗家(宗가)に鄭重に保管せられてあります。宗家は一族尊敬の中心でありまして、其の家系の持續と祭祀(列々)を絶やさぬ爲に、田畑等の基本財産をも設定してあります。これを宗田(宗전)、宗中財産(宗중재산)、門中財産(문중재산)など稱して、宗會(宗회)——門會(문회)といふ親族會の承認を経なければ、宗家といへども自由に之を處分することが出來ない定めになつてをります。

祖先を尊ぶことは非常なもので、自分の祖先は、十數代乃至數十代前の者でも皆チャンと其の名を記憶してをります。それ故、祖先の祭祀は極めて鄭重なものであります。祭祀には祀祭といつて祠堂で行ふもの、墓祭(豆列)といつて墓地で行ふものがあります。

祭祀に讀む祭文(列呈)を祝文(奇呈)ともいつてをります。かゝる祖先崇拜心から、墓地を非常に大切にいたします。朝鮮に来て、若し禿楮地の中に鬱蒼たる綠林を見たならば、それは必ず某一家の墓地と定まつてをります。一族のうちに立身出世した者があります、一族總ての名譽であることなし、之を慶び之を誇りいたしますが、それと共に、出世した者は、一族の者を扶助せねばならぬ義務を負ふのであります。そこで見も知らぬものまでが、一族であるといふ關係から頼つて來て庇護を受けよういたします。そして雙方ともそれを當然の事のやうに考へて居りますので、若しかうした被庇護者を全然取合はないやうな行動に出ます、不人情者として一門一族から指彈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あります。斯様な譯で、同族間の相互扶助といふことは能く行届いてをります。又單に同族間のみでなく、姻戚間に於ても、かゝる風習のよく行はれてゐるのは、感すべきことでもあります。

一家即ち同族間では、如何に遠い間柄であつても、同姓は娶らずといつて、決して結婚を致しません。これは血統の純潔を保つため、儒教(兪豆)の精神に基いたのであります。それですから、萬一之に反して同族間で密通等の行爲がありました場合には、道德上恕すべからざる罪惡であること見做して、普通の姦通以上に之を賤しみ、他族の者までが之を齒せざるのみならず、終には他

郷に放逐せられるやうな憂目に遇はされるのであります。同姓を忌むこいふこころは、單に結婚の場合のみではなく、妓生(고성)等を招くにしても、それが偶々同姓であるこころ、直に斥けてしまふこころいふ程までに、極端に走つてをるのであります。

三、家 庭

——親の権力—子の孝養——

朝鮮では、祖父母(조부모)・曾祖父母(증조부모)から孫・曾孫(손손)に至るまで、多數の家族が戸主(호주)を中心として同一家屋内に居住してをります。随つて幾組もの夫婦(부부)が同居生活を營んでる譯であります。これは、隱居や別家の制度がないので、親元に長く居るためこ、早婚の關係に由るのであります。家庭に於ては、親たるものが絶対の権力を有つて居て、家族の者は無條件の服従を守つてゐるのであります。

朝鮮では儒教の感化が可なり徹底して居りまする結果、孝の徳が最も重んぜられて居ります。親を尊敬し、孝養を盡してその心を安んずるこころに力める點に於ては、内地人も到底及ばぬ程であります。子たるものは日夜孝養に心掛け、父母の命令には絶対に服従し、苟も違背してはならぬこころふこころが幼時から深く強く腦裡に刻まれてあるので、父母に對する日常の行爲も不時の場合も至れり盡せりであります。例へば、晨省昏定(신성호정)の禮こいつて、朝夕必ず叮嚀に挨拶を述べ、その出入には送迎の禮を缺きません。子たるものが旅行・仕官する場合には先づ父母の許諾を受

け、外出する時には行先を明にし、歸れば之を必ず告げます。父母の命令に口答へしたり反抗したりするやうなここの無いのは勿論、父母の行爲には決して是非を挟みません。ですから兩親の蔭口をするやうな者さへも見受けられないのであります。

食膳に向つては父母に先つて箸を執りません、父母の食事の終るまでは侍立又は侍坐して行儀を崩すやうなここのありません。又父母の前では煙草や酒を絶対に喫飲いたしません。或時、朝鮮人の親子が打揃つて懇意な内地人を訪問しました、主人は珍客さばかりに、煙草、酒等を出して歡待しましたが、如何に強いても子息の方は飲みも食ひもいたしませんで、非常に迷惑顔であつたさいふここの聞きました、これは飲めないのでもなく、又主人へ遠慮したのでもありません、實は吾が親へ遠慮したのであります。子に娶つた嫁は専ら父母の孝養に勉めるので、夫のためさいふよりも寧ろ親のために貰つたやうな觀があります。ですから、旅行その他の事由で暫く家を空けるやうな場合にも、兩親を残して夫婦揃つて出掛けるここのなごは滅多になく、いつも嫁だけは家に残つて留守役に當るのが例であります。若しも不幸にして父母が病に罹らうものならば、日夜側を離れず、看護に懇切を盡すは勿論、危篤に瀕するやうな場合には、自ら指を割いて鮮血を飲ましめるこか、寒中に氷を砕いて鯉を捕つて進めるこか支那の二十四孝そのまゝの事例が、今日も尙乏しくないのであります。父母が亡くなりますこ喪に服しますが、この喪期の間は自らを罪人こ呼んで人に接するここを避け、外出に布扇(부선)及方笠(방앗, 방남)を用ひて顔を隠すのであります。

四、男 女 の 別

――女子の家庭生活―被衣の外出姿――

朝鮮では「男女別あり」といふことが嚴格に守られて居ります。でありますから夫婦の間柄でありまして、下層の者でない限りは、住家に内外の區別を設け、男は表の方に、女は内の方に、各々部屋を別にしてあります。女の居る方は内房と稱し、表の方は堀等で區切られてありまして、表の方から直接に窺はれないやうになつて居るのです。若し内房に婦人の來客なごある場合には、家族の一員たる男子でも、尙遠慮して近寄らぬやうに注意を拂ひます。又親族の者でも、極めて近い間柄の者以外は内房から呼込まれない以上は決して内には入りません。一般に婦人は、見も知らぬ男に對しては、顔を見られることさへも耻辱としてゐる位ですから、如何に主人と懇意な友人でありますしても、之と言葉を交はしたりなごすることはなく、若し已むを得ざる場合には、如何にも迷惑さうに、他所々々しい態度で、極めて無愛想に應對するのであります。或る内地人が、一日懇意な朝鮮人の宅を訪ねていきました、ところが、生憎と不在でしたので、要件を其の妻君に傳言しやうとして内房の方へ言葉をかけました爲めに、遂に其の友人から交際を絶たれたといふ例があります。

女子は十二三歳になりますと、表の方には姿を現はしません。親の監督が嚴重でありまして、假令下層階級のもので、娘一人で出歩くといふや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そんな次第で、處女の貞

操は聖く保たれてゐるのであります。又一方には、處女を冒した男子は非常に排斥を受けるのみならず、其の女を引受けねばならぬこいふやうな制裁もあるのであります。かやうな理由から婦人は餘り外出することはなく、多くは家内に蟄居してゐるのであります。勿論朝鮮の家庭では、一日三度の食事は、必ず其の都度炊くことになつてをりまして、冷えたものは決して食べませぬし、それに衣服が汚れ易い白地であるのこ、一つ縫ひこいふ面倒な仕立方でもありますから、家庭内に於ける斯うした炊事・洗濯・(빨)裁縫(바느질)の仕事に日々忙殺されて、實際上からも餘り出歩くこが出來ないのであります。以前には、婦人が外出する場合、親戚や知人を訪問(방문)するこには、中流以上ですこ乗物で先方の内房まで乗付けにして、全然姿を見せなかつたものです。さうでないものは、被衣(장옷)で顔を覆ふて眼ばかり出して往來したものであります。しかし、このやうな風習も、近來妙齡の女子が學校に通ひ始めてからは段々こ廢れて來まして、往時のやうな家庭蟄居も少くなり、平氣で顔を露して出歩くやうになつて來まして、今日では被衣姿の婦人なごは稀に見る位であります。たゞ併し、男子に對する態度だけは以前こさまで變りがありません。こいふのは、男子に馴々しい言葉をかけるやうな舉動は、今も娼婦のしわざにひこしいこの觀念に支配されて、之を賤視してゐるからであります。かやうなわけで自分の良人に對してさへも無愛想な態度をこるのであります。

五、言語と應對

——・自他及男女間の言葉の差別——年長者尊重——

第三章第八節
參照

朝鮮では、他人に對し目上の者を呼ぶには、それが自分の身内のものであつても敬語を用ふるこゝになつてゐます。内地ならば『父が』『兄が』『こいふべき場合でも』『お父様が』『兄さんが』等こいふのであります。が、反對に、目下の者に對しては皆呼棄てに致します。縦令他人の子供でありまして『坊ちゃん』『嬢ちゃん』なごいふ敬語は用ひません。一家の内では夫婦は對等の言葉で應酬して、内地のやうに、夫が妻に對して命令的な言葉を用ふるやうなこゝは致しませんし、一般に、男は女に對しては、相手が多少目下の者でありましても、叮嚀な言葉を使ふならはしになつてをります。例へば妻の兄に對しては對等の言葉を使ひますが、弟の妻に對しては敬語を以つてする……こいつたやうな工合であります。之を反對に、女は自分の弟の妻なり、その妻の弟なりに對しては對下語を使ひます。總て自分より目上の者、又は年齢の高い者に對しては夫々の敬語を用ひますが、然らざる者に對しては對等又は對下の言葉を用ひるのであります。併し近年は、男女學生間では、身分の高下なごに因る言葉の差別(차별)は廢めまして、互に相當叮嚀な言葉を交換するやうになりました。又自分の親の親友なごに對しては、恰も自分の兩親に對するやうな態度で言遣ひを叮嚀に致します。

總じて年長者及老人に對しては、身分が卑くとも相當の敬意を表してゐます、自分の年より倍數以上の人に對しては、之を遇するこゝ父の如く、尊長(존장)を呼び、自らを侍生(시생)と稱してをります。又十歳以上の者をば老兄(노형)と尊敬し、自らをば小弟(소제)と呼んでゐます。目上の者の前では眼鏡(안경)を用ひませんし、飲酒喫煙をも憚る風があります。併し近來は、

かうした長幼有序(장유유차)の美風(미풍)も多少は弛んで來た傾があります。

老者を尊敬する反對に、幼少のものを輕んじます。わけて未婚の男女は、年齢の高下を問はず、一人前の待遇(대우)をしないのが例でありますから、其の家の召使ですらも、主人の子女―未婚の―に對しては、呼捨にしたり命令語を遣つたりします。

六、訪問と接客

――長幼序ありの應接ぶり――

來客が自分より身分年輩共に目上のものであります。部屋の入口の外まで出迎へ、一層目上の者です。門口まで出て敬意を表します。客に對しては、煙草を出して接待するばかりで、茶は出しません。若し懇意なものでありますか、或は珍客でもありました場合には酒を饗應しますが、この酒は内地の茶菓のやうに、極く手輕に用意せられるのであります。親しい間柄で、同一の身分年輩のものです。食事の時間にはお膳を出しますが、それも一つお膳で、飯と汁との外は、料理はみな一つの皿に盛られてあるので、主客共に突き合つて味ふのであります。酒は一つの盃で獻酬します。御飯の際は主人が先づ箸を取り、客の食事の終るまでは箸を置きません。

初對面の人と挨拶する時には、姓名・住所を告げ、年齢・職業・暮らし向きなどについての問答をします。若し同姓の場合です。その本貫即ち祖先の出身地を告げあひます。此の問答によつて上下の別が分りますので、互の態度なり言葉遣ひなりが改まつて來るのであります。

他人を訪問する場合には、非常に懇意にしてゐる者、或は平常出入して居る者の外は、先づ其の門の入口で召使（하인 下人）を呼び、主人の在否を問ふて來意を告げます。召使が居らぬ家でも、恰もそれが居るやうな言葉を使つて、先方に敬意を表するのであります。殊に主人不在のため、已むを得ず主婦の言葉を交はさねばならぬやうな場合には、互に物を隔て、丁度他人の取次ぎでもするやうな言葉の使ひ方を以てするのであります。

愈々部屋に通りましたから、若し自分が先方と同等又はそれ以上の身分年輩であります、主人と同列に坐りますが、同等以下です、主人に向つて一段下手の左か右に斜めに着座します。若し一層主人の身分の懸隔が甚しいか、或は年輩に餘程の相違のある場合です、着座を勧められ、てからでなければ席に着きません。坐法は特に敬意を表する場合は、端坐であります、其の他は多く胡坐、女ならば立膝であります。親の友人なり又同年輩の人なりの前では次の間に着座し、さもなければ、其の前に起立してをります。これは朝鮮に於ける「長幼序あり」の美風の結果であります。一室の内では、内地のやうに、主客向ひ合つて着座するやうなことはなく、同室に他人が居つた場合には、主人なり知人なりから紹介（介引）がなければ、挨拶はさておき禮を交はすこともしません。又行先きで馳走になつても、平常出入する家であるか、さなくとも普通の場合ならば、別に禮を述べるやうなことはないのであります。如上の風習なきは、内地は可なりの相違でありまして、或は全く正反對になつてをる點もありますから、互に心しておくべきことでありませう。